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10** Vol. 214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09 웰빙 콘서트 시리즈 IV

#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구스타프 말러  
Gustav Mahler  
(1860~1911)



지휘  
이동신

해설 및 진행  
김문경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조창후

바리톤  
강경원

클라리넷  
정우영

부산시립극단

2009. 10. 8 목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4(부산사랑)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20% 할인  
(단, 홍보마케팅부 전화예약 후 입금회원에 한함)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ulture.busan.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 Opera in Concert



Giacomo Pucc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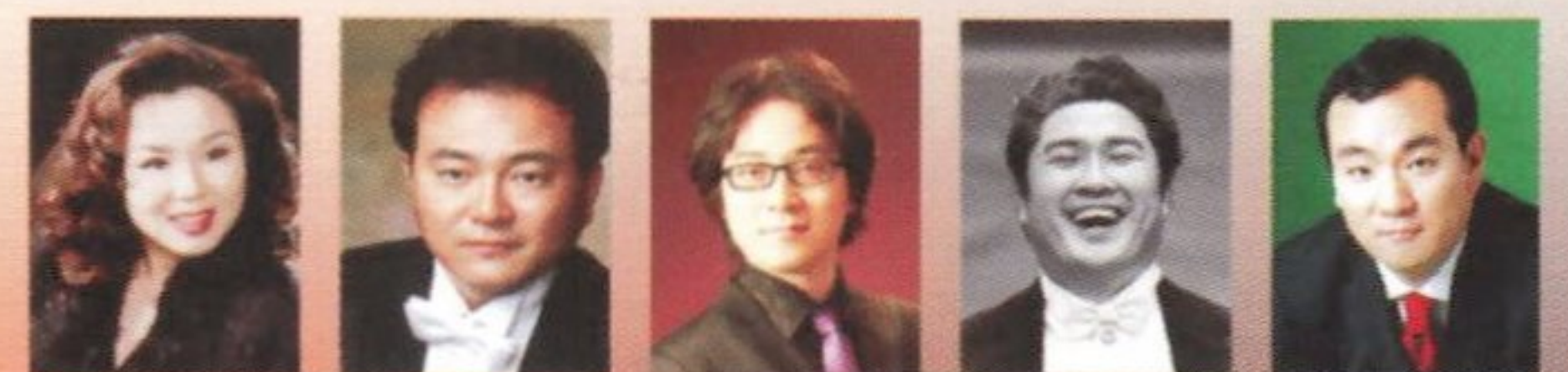
# OSCA 토스카



오페라 코치  
정금련



지휘 및 연출  
리신차오



도스카 김유심 캐바레도시 전병호 안젤로타 박기국 스키프리아 우주호 성당지기 함석현



부산시립합창단 동래초등학교 성악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목동 이지아 스펠레타 강은태 사르네 김태우 김수 구명금

2009. 10. 16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11~4 (부산사랑)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ulture.busan.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세계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 백혜선 피아노독주회

## PROGRAM

### 1부

바흐/부조니 J.S.Bach / F.Busoni

오르간 코랄 전주곡 중에서  
in the Organ Chorale Preludes

"깨어라, 그 음성이 들리나라"  
"Wachet, ruff uns die stimme" BWV.645

"기뻐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Nun freut euch, liebe Christen" in g minor, BWV.734

모차르트 W.A.Mozart

피아노 소나타 F장조  
Piano Sonata in F Major, K.533/494  
Allegro | Andante | Rondo, Allegretto

바르톡 Bela Bartok

피아노 소나타  
Sonata for Piano (1926)  
Allegro moderato | Sostenuto e pesante | Allegro molto

### 2부

리스트 F. Liszt

피아노 소나타 b단조  
Piano Sonata in b minor

위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섬세함과 열정을 겸비한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피아니즘의 진수를 보여줄 테크닉을 넘어선  
바르톡과 리스트의 감동!

공연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7-1536 (www.busanarts.com)

# 20주년

2009년 11월 8일(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최 | KBS 부산방송총국

주관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협찬 | CENTUM SQUARE  
센·텀·스·퀘·어

회원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ticketlink 티켓링크 1544-1555

 YAMAHA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피아노 10~30% 할인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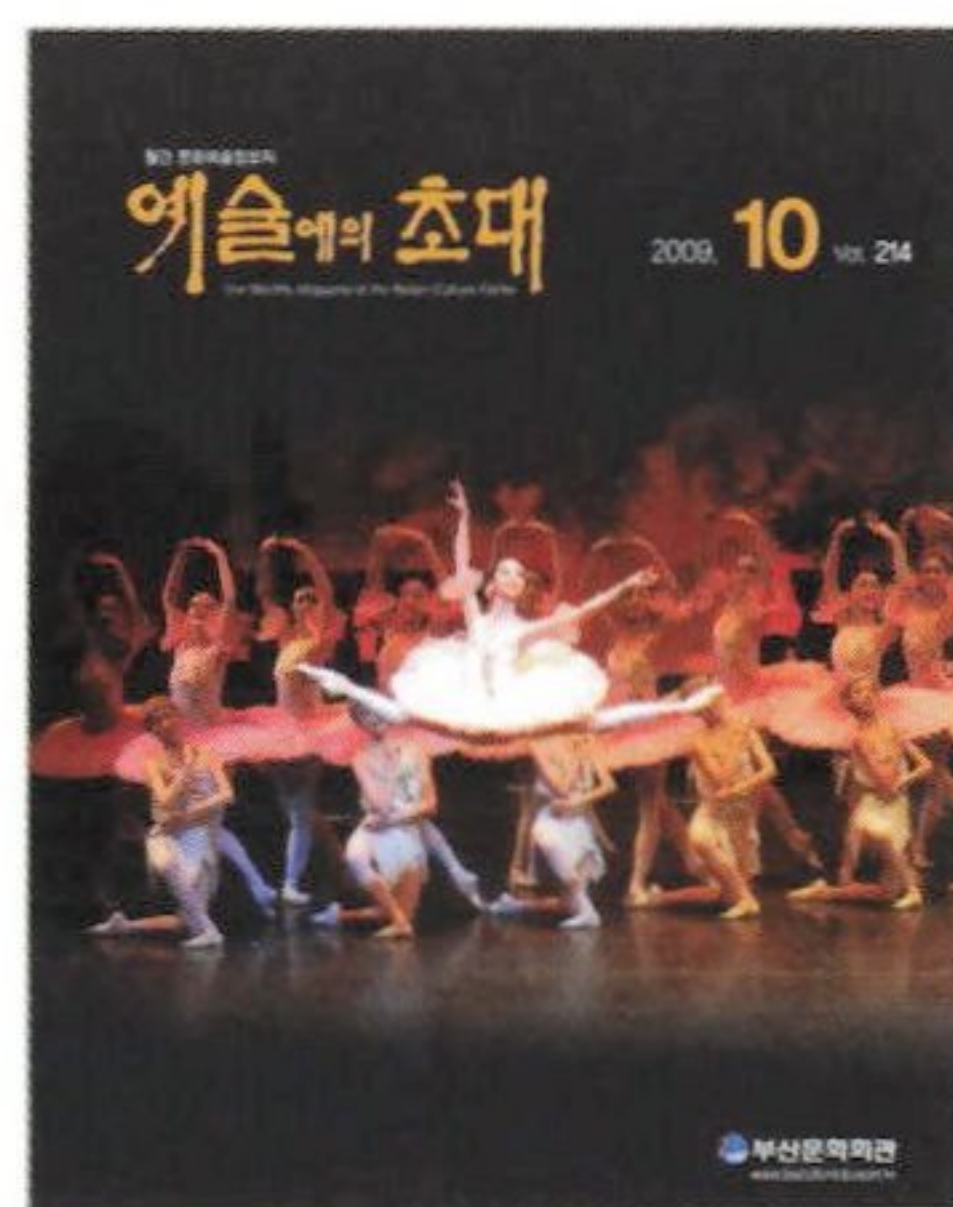
##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본점	051-863-0900
현대백화점 7층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7층	051-816-0089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후문입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장림 홈플러스 6층	051-266-4747



- 8 커버스토리 \_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있는 유쾌한 발레 '돈키호테'
- 10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_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뉴욕 뉴욕 맨하탄 · 주종식
- 21 불멸의 거장, 말러 \_ 말러와 신(新)빈악파 · 김문경
- 22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비제 '카르멘(Carmen)' · 김홍승
- 24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풍자군 도미에가 그린 19세기 프랑스 · 채경혜
- 26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멕시코 II '볼레로(Bolero)와 란체라(Ranchera)' · 황윤기
- 27 우리는 문화가족 \_ 부산실버예술단
- 28 문화가 화제 \_ 영화와 음악이 있는 즐거운 10월
- 30 리뷰 \_ 전수일, 그의 영화가 머무는 곳 · 김희진  
지역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 남인용
- 32 그곳에 가면 \_ 요산문학관
- 34 프로그램 가이드
- 53 나의 애청음반 \_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 4번' · 김중옥
- 54 새로 나온 책
- 55 부산문화회관 소식
-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5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9 100자 토크



### 2009. 10 Vol.214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3109

발행인 최성달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9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래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 표지설명

유니버설발레단이 10월 9일과 10일 스페인의 열정이 살아있는 유쾌한 고전발레 '돈키호테'로 10년만에 부산 발레 애호가들과 만난다.

# 2009. 10 OCTO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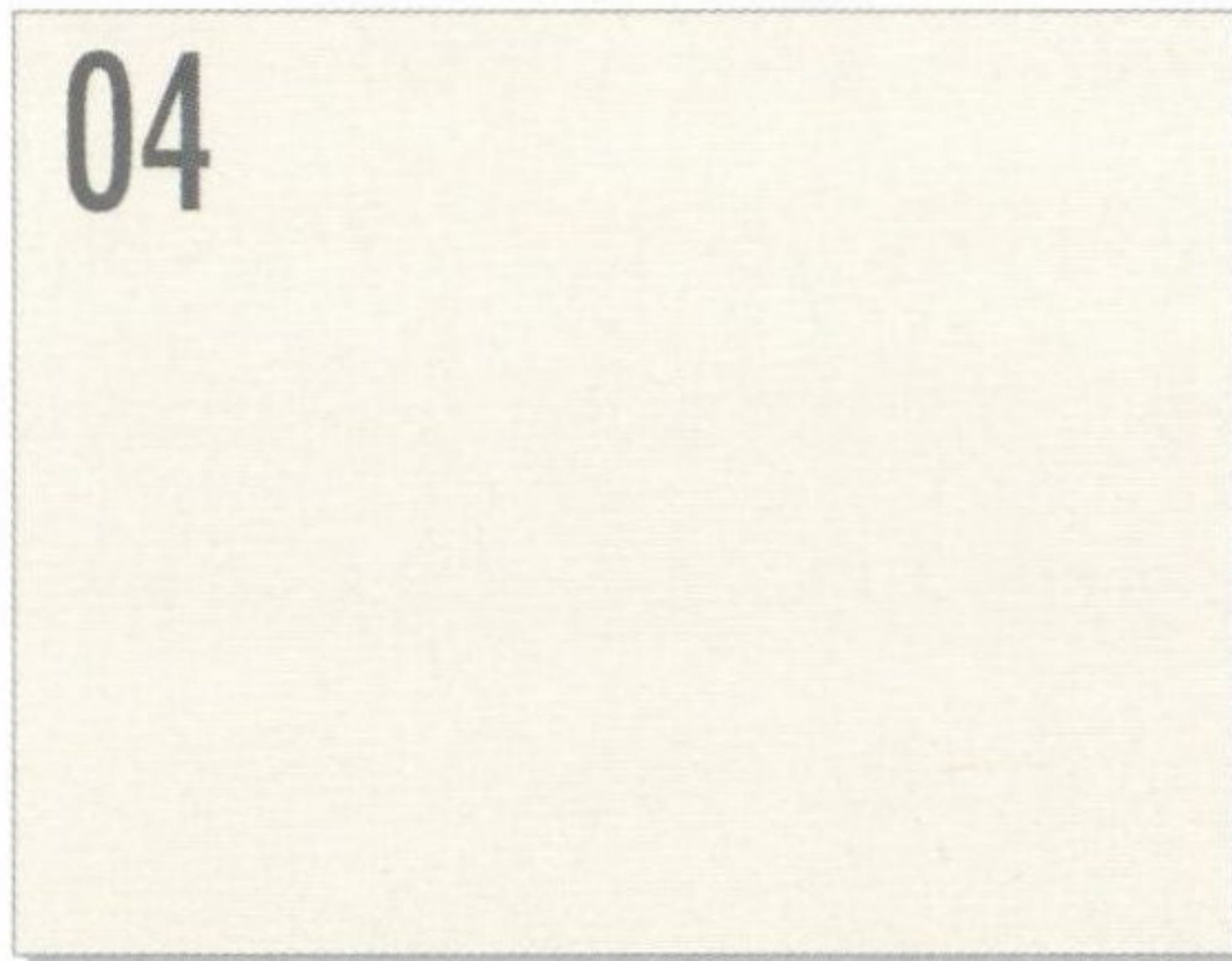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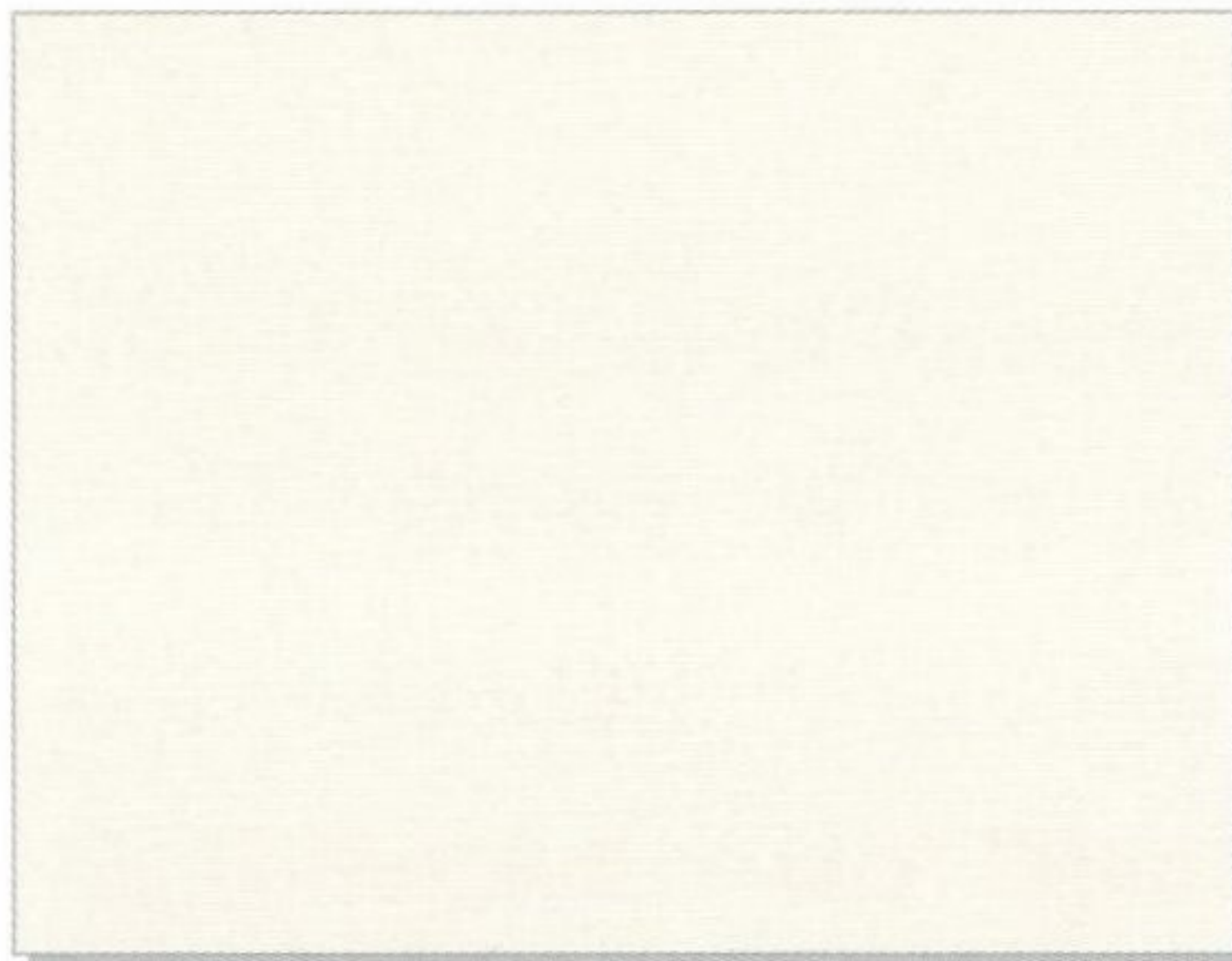
## 부산문화회관

###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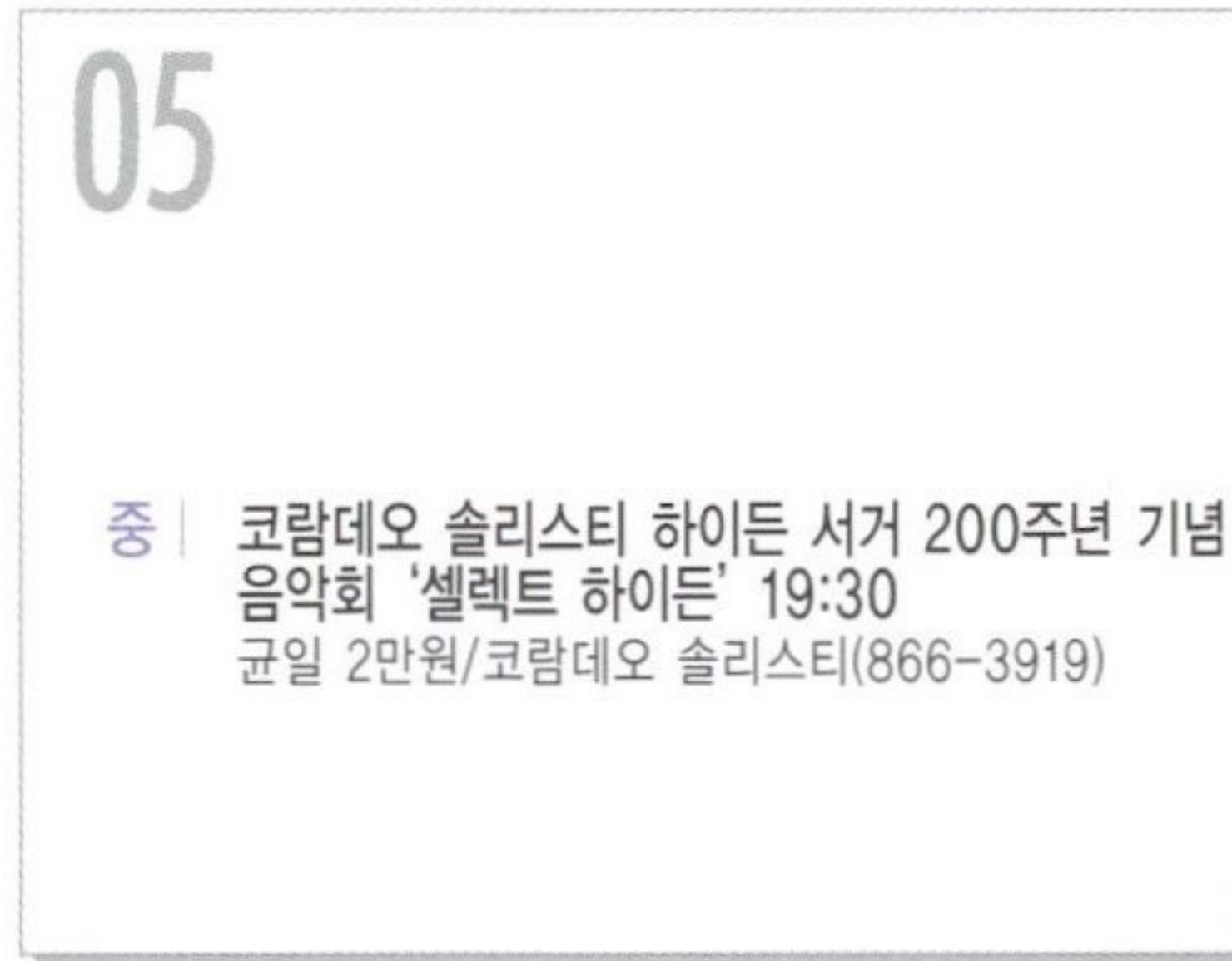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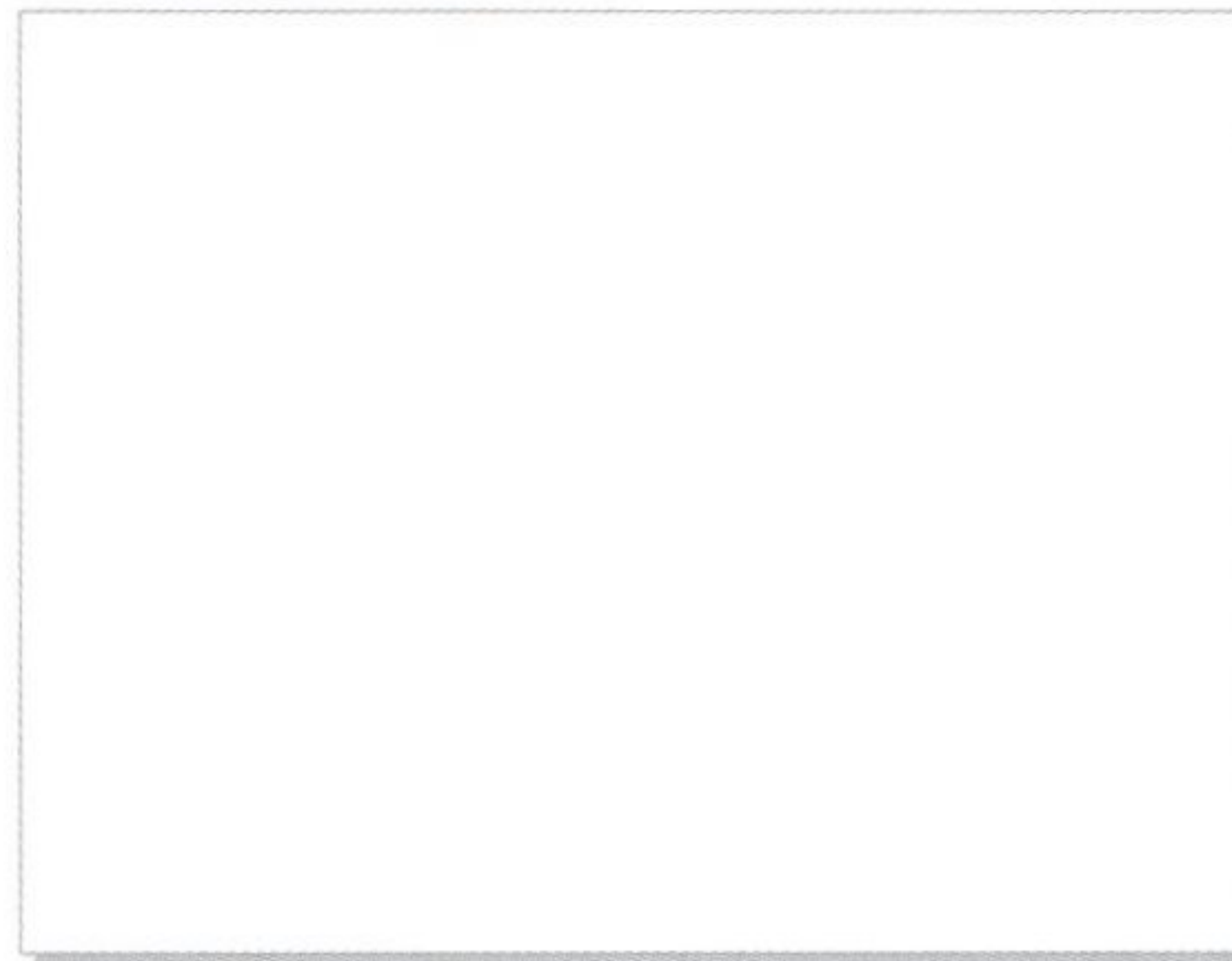
Tuesday 화요일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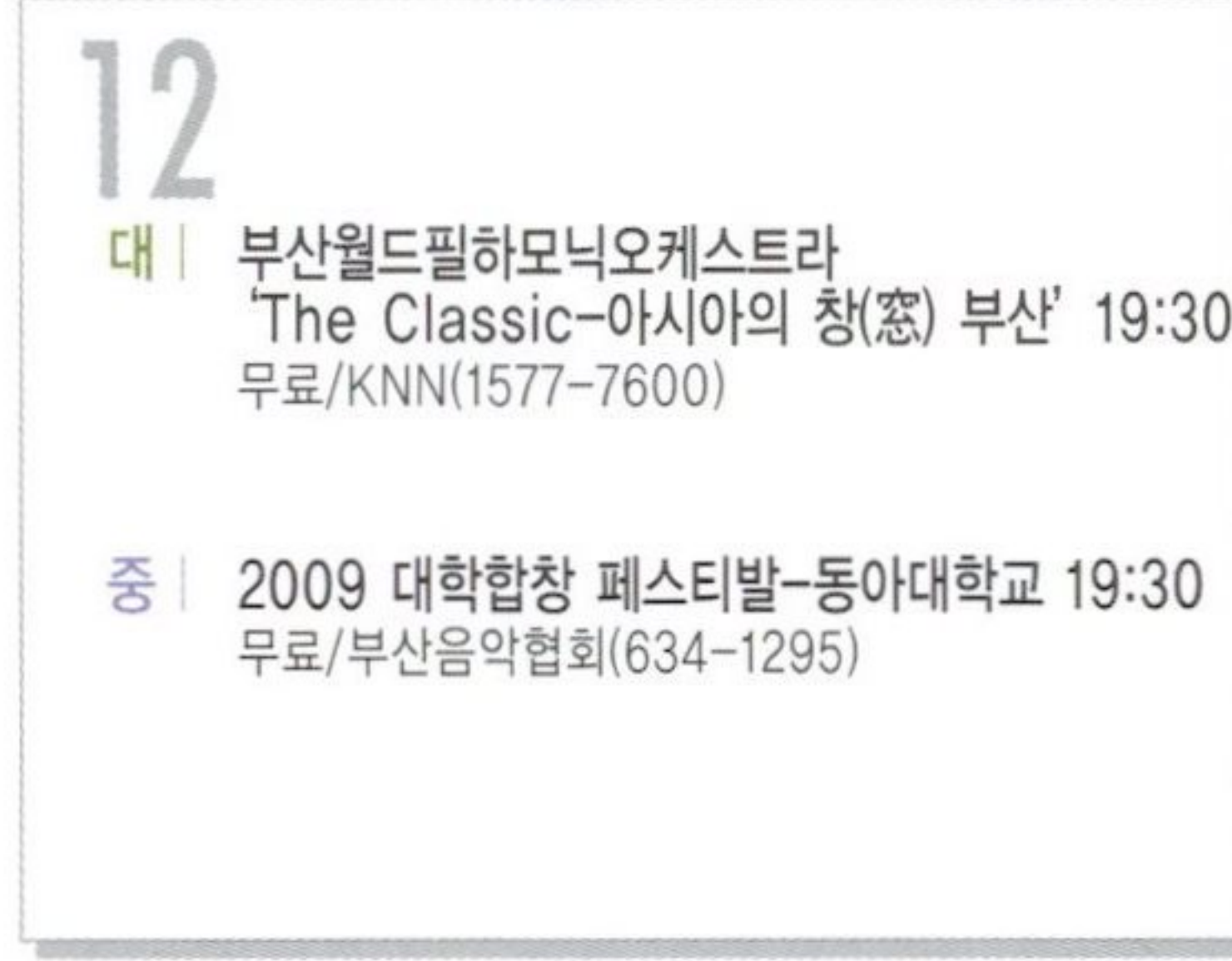
중 | 최은주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최은주(011-592-5697)

소 | 문인성 제자 발표회 18:00  
문인성(010-3954-052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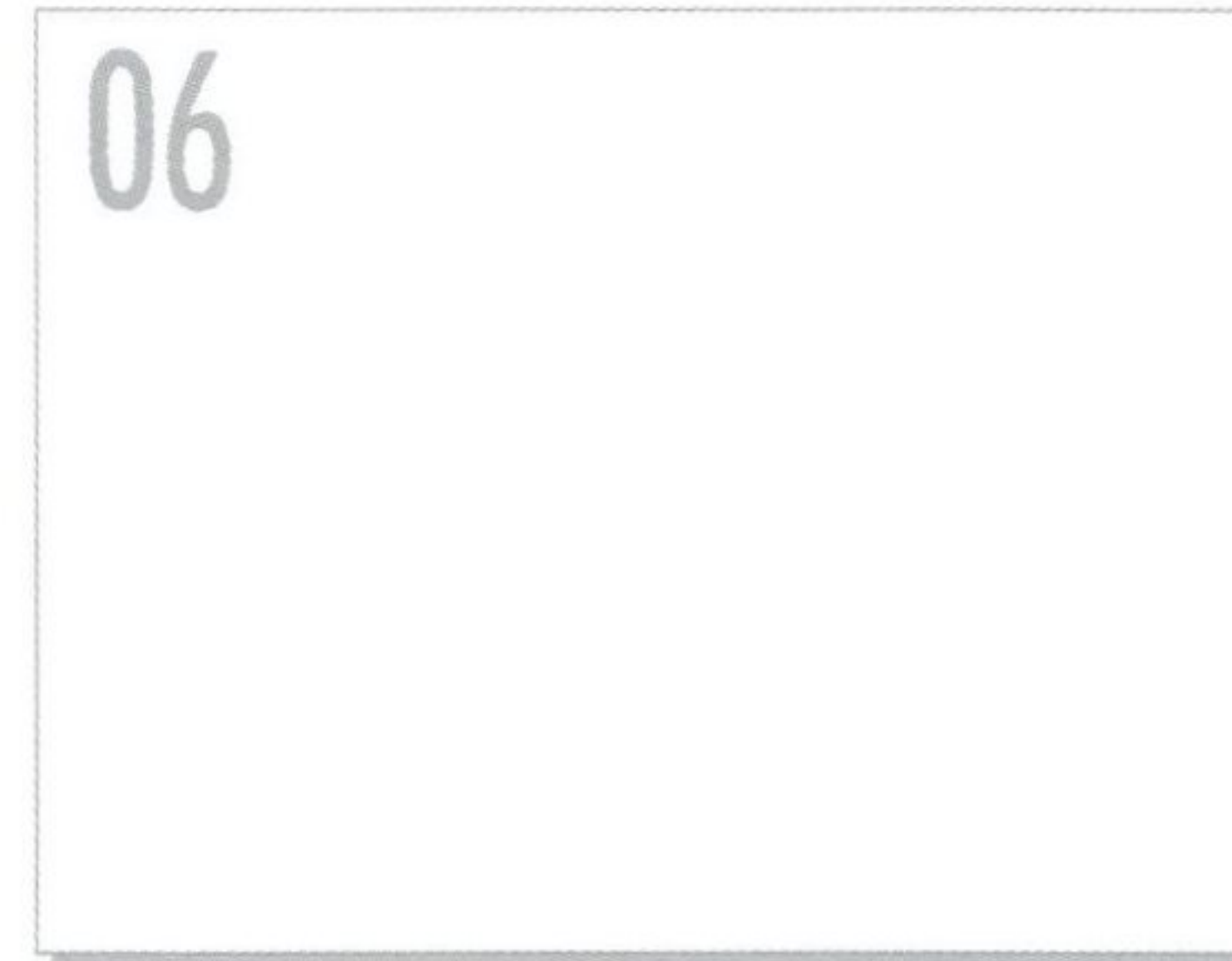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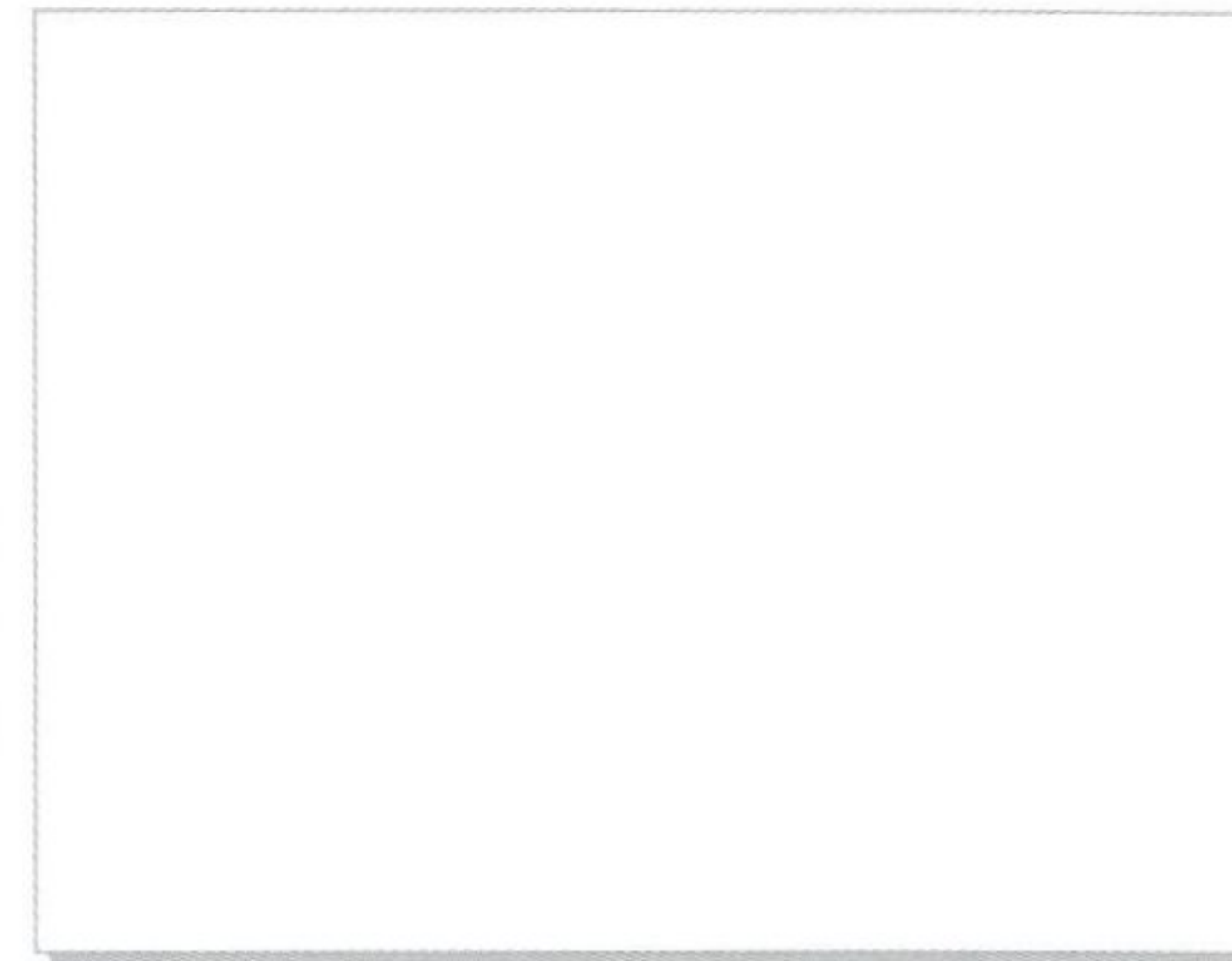
중 | 코람데오 솔리스트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음악회 '셀렉트 하이든' 19:30  
균일 2만원/코람데오 솔리스트(866-3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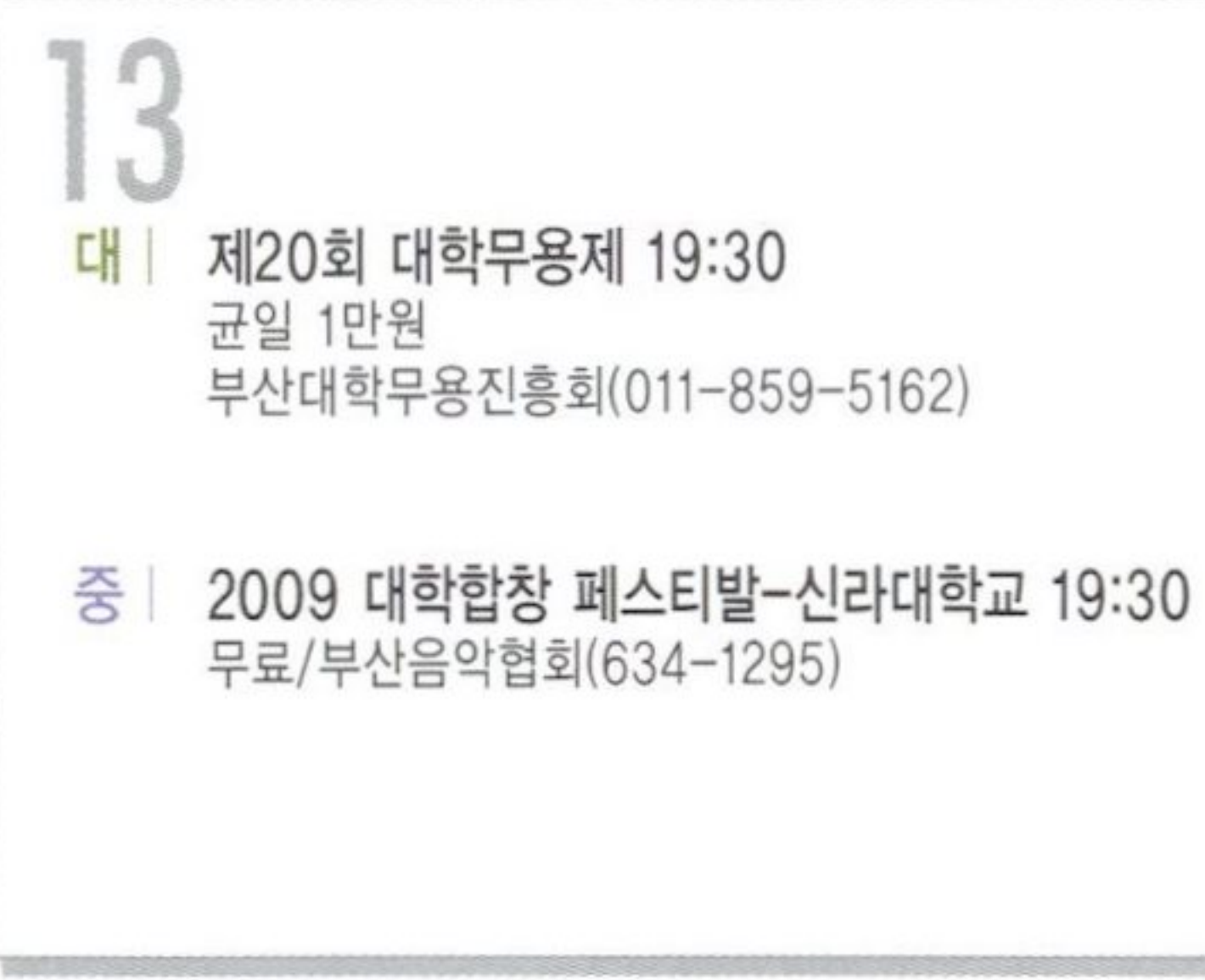
12

대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19:30  
무료/KNN(1577-7600)

중 | 2009 대학합창 페스티벌-동아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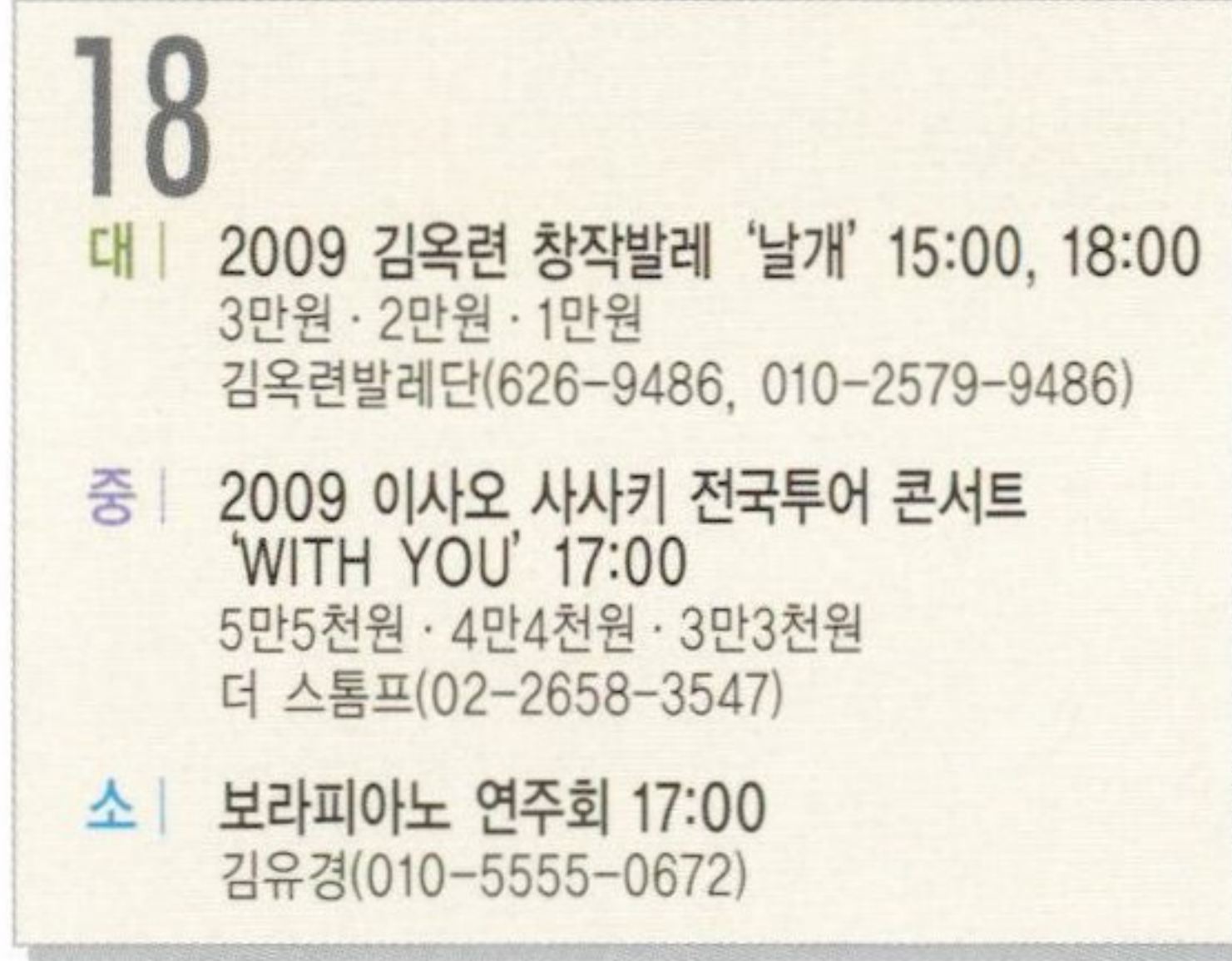
06



13

대 | 제20회 대학무용제 19:30  
균일 1만원  
부산대학무용진흥회(011-859-5162)

중 | 2009 대학합창 페스티벌-신라대학교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18

대 | 2009 김옥련 창작발레 '날개' 15:00, 18:00  
3만원 · 2만원 · 1만원  
김옥련발레단(626-9486, 010-2579-9486)

중 | 2009 이사오 사사키 전국투어 콘서트  
'WITH YOU' 17:00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  
더 스톱프(02-2658-3547)

소 | 보라피아노 연주회 17:00  
김유경(010-5555-067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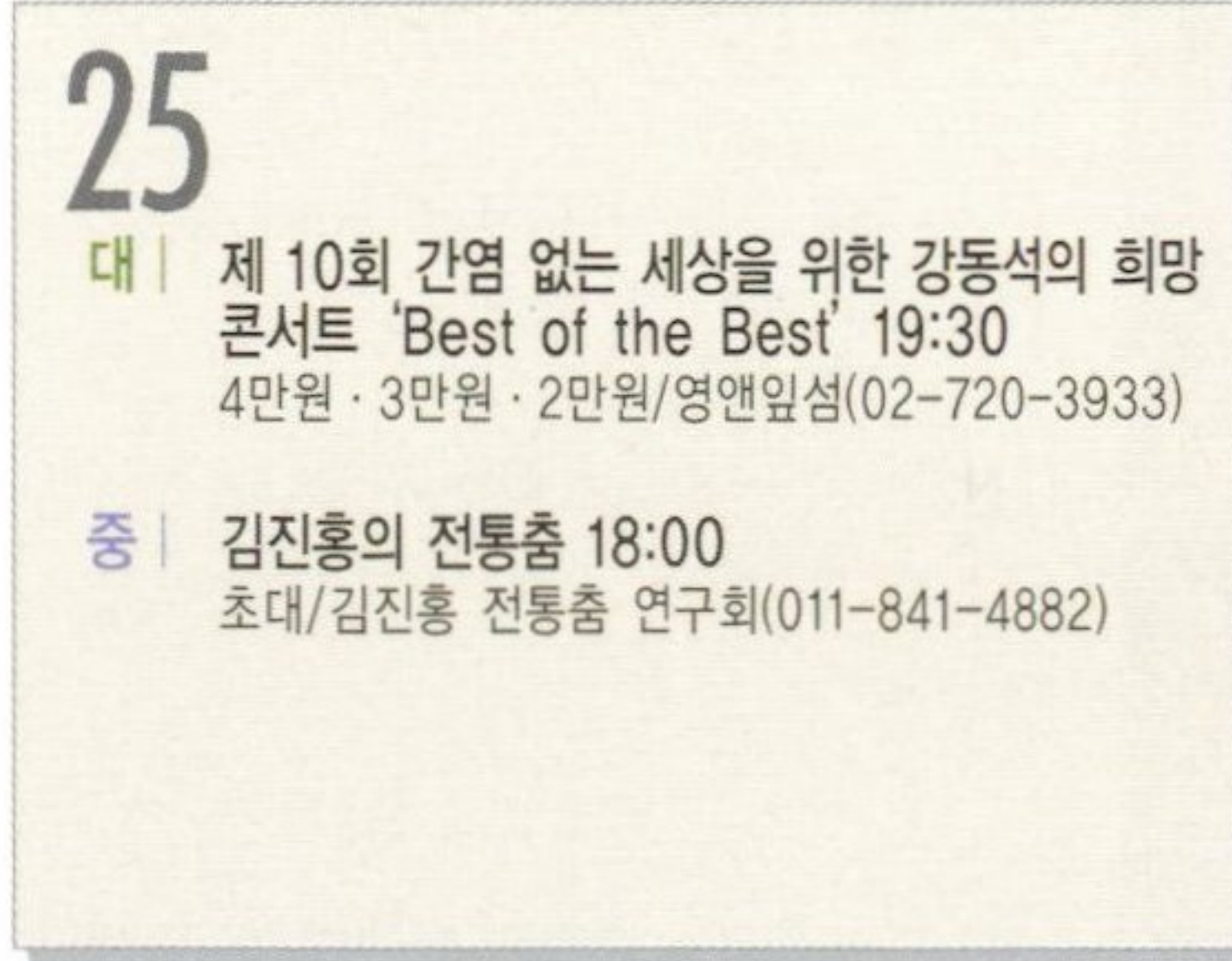
대 |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6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 19:00  
초대/동아대학교 총동문회(243-4005)

중 |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 음악회  
작곡가 정원상 '부산 연가의 밤' 19:30  
초 대/M&M 성악 연구회(010-4434-660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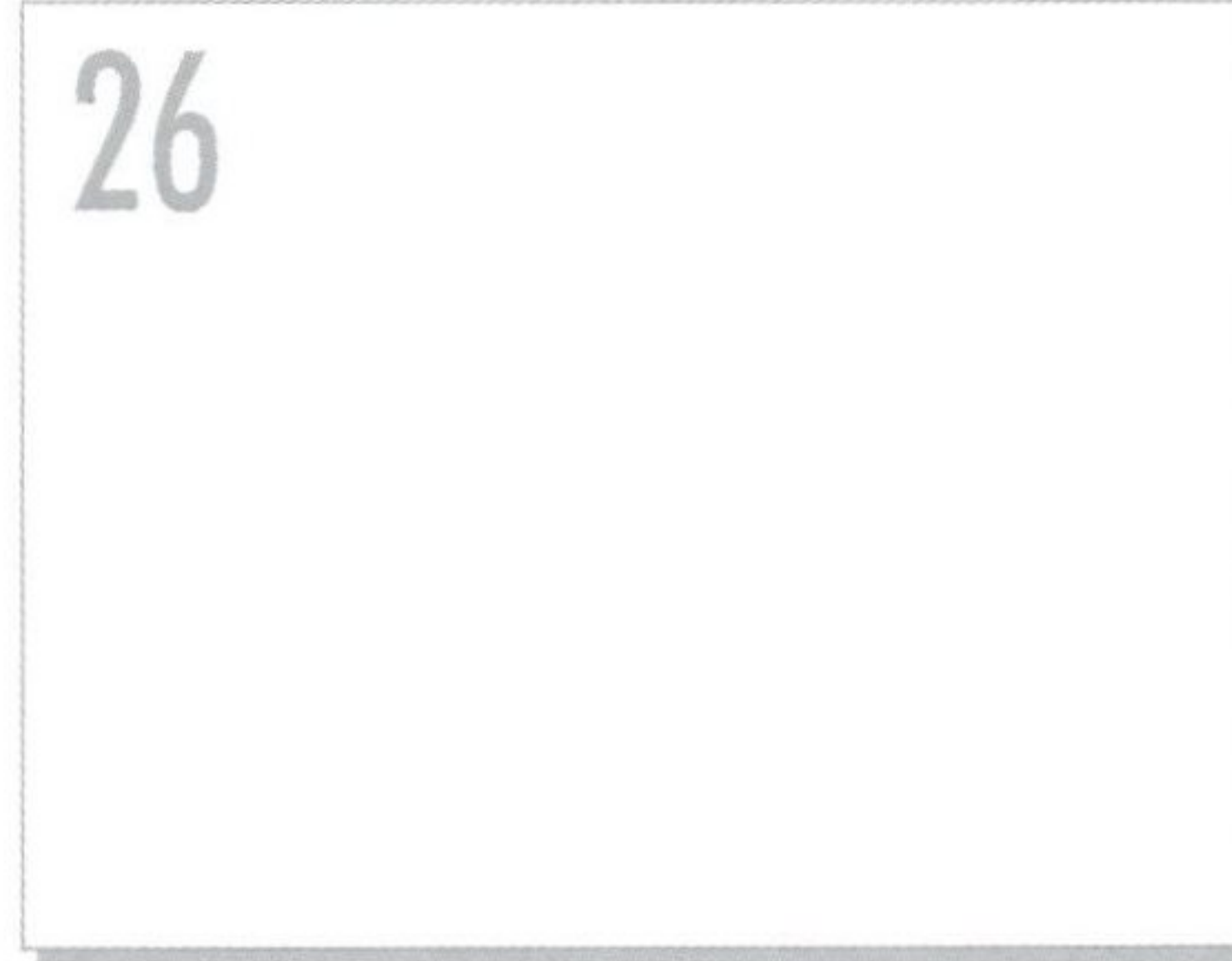
중 | 2009 동서커피 클래식 19:00  
초대/(주)크레디아(02-741-1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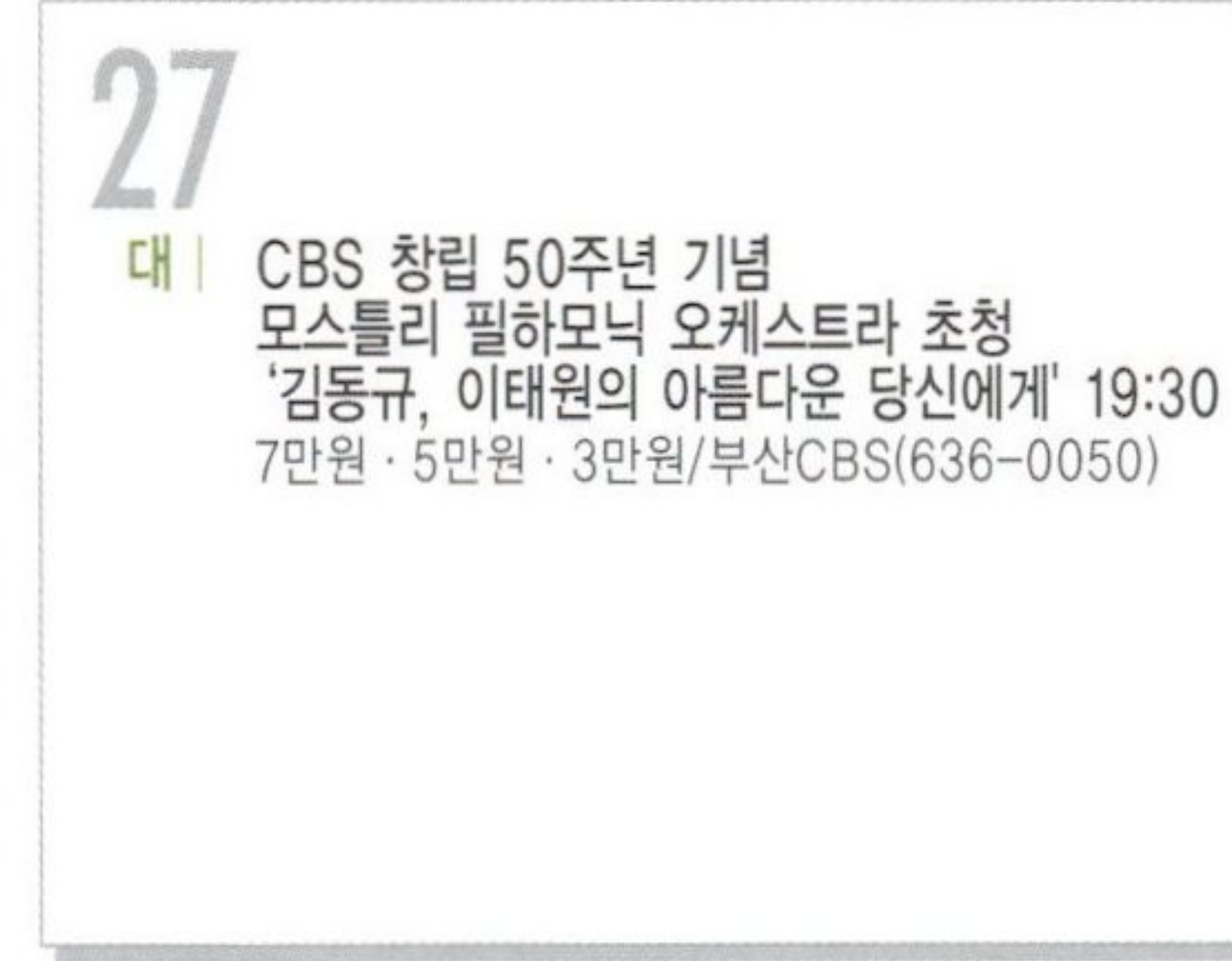
25

대 | 제 10회 간염 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 'Best of the Best' 19:30  
4만원 · 3만원 · 2만원/영앤윙섬(02-720-3933)

중 | 김진홍의 전통춤 18:00  
초대/김진홍 전통춤 연구회(011-841-4882)



26



27

대 | CBS 창립 50주년 기념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김동규, 이태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부산CBS(636-0050)

#### 국제회의장

- ▶ 부산문화회관 제 3기 문화대학  
매주 수요일 오후 2:00  
10월 7일(수) 시와 삶  
10월 14일(수) 생활 속 연극의 힘  
10월 21일(수) 클래식음악을 재미있게 듣는 법  
문의: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 전시실

- ▶ 신라대학교 졸업작품전 - 중전시실  
10월 6일(화)~10월 12일(월)  
신라대학교(999-5425, 010-5267-5511)
- ▶ 제 9회 한국문인화대전 입상작품 전시회  
- 대 · 중전시실  
10월 14일(수)~10월 17일(토)  
최연성(868-5236, 011-864-3698)
- ▶ 2009 부산국제판화제 멀 아트쇼 2009  
'얼굴(face to face)' - 대 · 중전시실  
10월 20일(화)~10월 30일(금)  
부산판화가협회(624-9995, 016-587-0625)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1

중 | 테너 곽성섭 독창회 19:30  
균일 3만원/곽성섭(010-2655-6105)

07

중 | 부산무용콩쿠르 예선 09:00  
KBS(620-7326)

08

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09 웰빙 콘서트 시리즈 IV-말려와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중 | 10월애 가락과 선율의 특별한 만남  
YMCA 오페라 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박현욱(010-8368-2445)  
소 | 정순화 피아노 클래스 정기연주회 19:00  
정순화(016-847-4914)

02

09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 발레단 '돈키호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 부산원로음악가회 제 11회 원로음악회 19:30  
무료/전이동(010-2705-0366)  
소 | 제 5회 김희선 성악클래스 정기연주회 19:00  
김희선(019-391-7556)

03

10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 발레단 '돈키호테' 17:0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 김정원의 춤 다섯 번째이야기 18:00  
2만원 · 1만원/김정원(017-567-8071)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가야금연주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4

21

중 | 제 38회 부산피아노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한은아(010-3051-4945)

15

대 | 부산무용콩쿠르 본선 09:00  
KBS(620-7326)

22

대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중 | 제 38회 부산피아노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한은아(010-3051-4945)

16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토스카' 19:30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노리플라이'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7

중 | 결혼 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Sing Sing아리랑 합창 발표회 19:00  
무료/부산YWCA(441-2225)  
소 | 토요상설무대-카피 밴드 시너지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3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3회 정기연주회 및  
제 64회 UN의 날 기념음악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중 | 부산시 문화상 시상식 16:00  
부산광역시(888-3454)  
소 | 크로스오버 국악그룹 아미비飛오娛  
첫번째 콘서트 'AVIOLIC' 19:30  
균일 6천원/윤승환(010-2524-4380)

24

대 | 제 4회 영화음악플러스 콘서트 19:00  
균일 2만원/부산선진화 포럼(256-7614~5)  
중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6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장은정(017-842-6688)  
소 | 토요상설무대-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8

대 | 피아니스트 김선욱 초청  
제 20회 이건음악회 19:30  
초대/이건산업(032-760-0385)

29

대 |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배은주(010-3133-8026)

30

중 | 부산시립극단 제 36회 정기공연  
'변신-꿈의 기록'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31

중 | 부산시립극단 제 36회 정기공연  
'변신-꿈의 기록' 16:0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토요상설무대-한국전통예술진흥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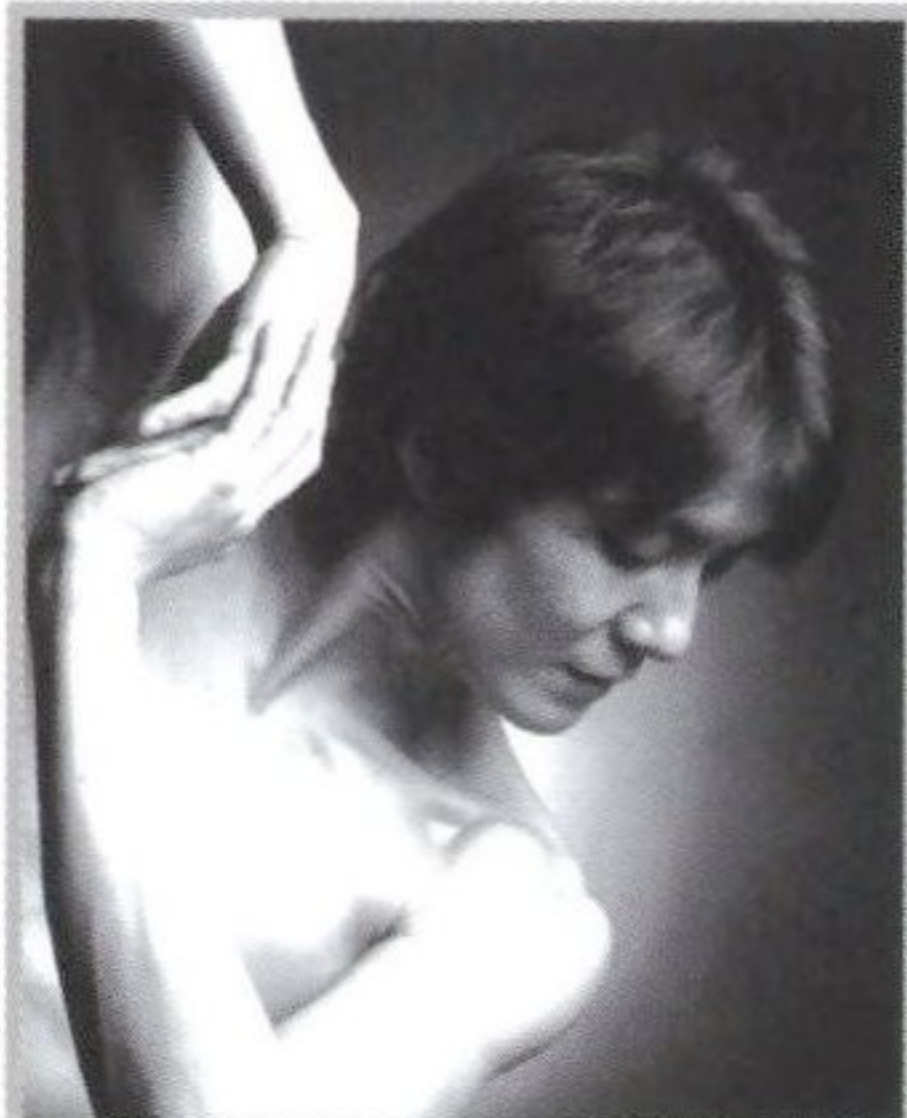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있는 유쾌한 발레

# 돈키호테 DON QUIXOTE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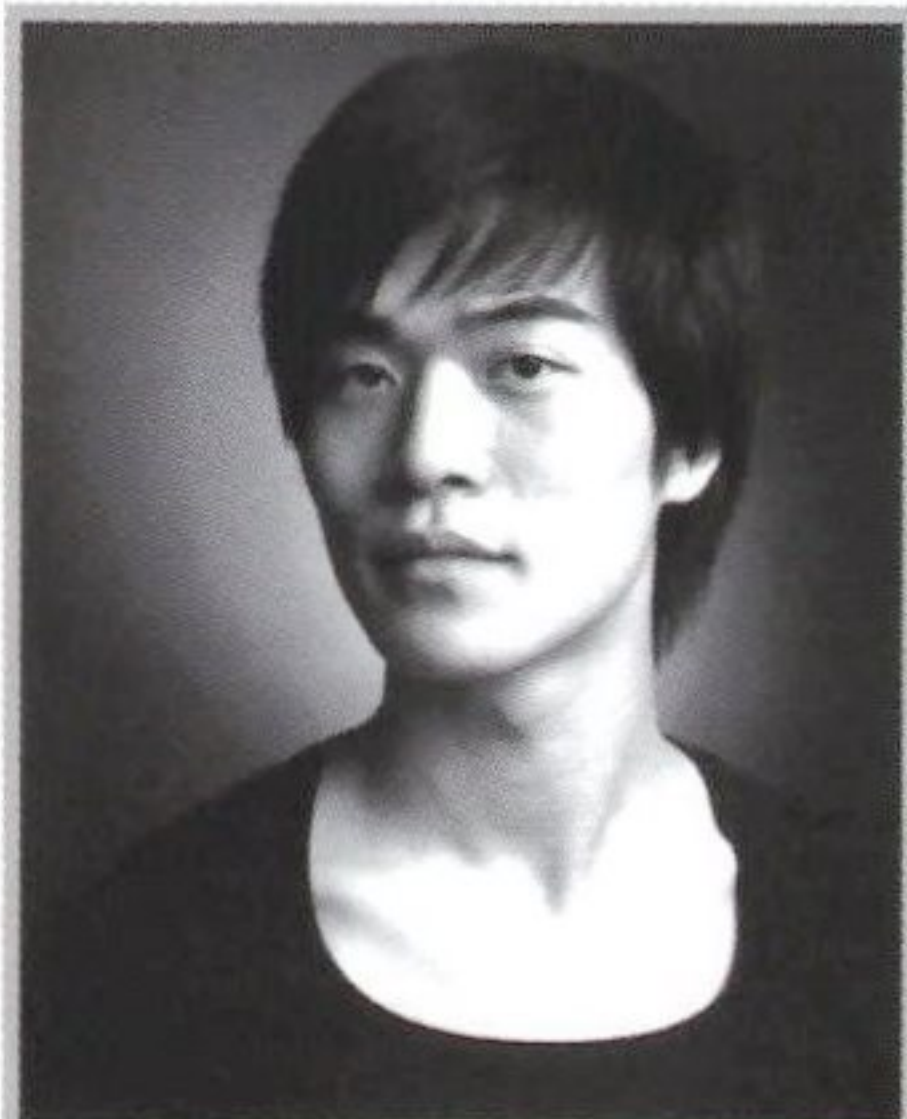
황혜민(10월 9일)



엄재용(10월 9일)



강예나(10월 10일)



이현준(10월 10일)

※ 본 캐스팅은 유니버설발레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9일과 10일,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있는 유쾌한 발레 '돈키호테'가 2009년 가을, 부산 시민들에게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유니버설발레단이 2009년 시즌공연으로 선택, 전국 순회공연중인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원작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1869년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된 이래 전 세계 무대에서 호평 받아왔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97년 마리오스 프티파, 알렉산더 고르스키, 로스티슬라프 자하로프, 올레그 비노그라도프가 안무한 돈키호테를 선보여 발레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장기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발레 '돈키호테'는 다채롭고 재미있는 사건, 변화무쌍한 스토리 전개, 스페인 풍의 춤들이 다양한 볼거리가 더해져 매 공연마다 발레 애호가들을 열광시켰다. 소설의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발레에서는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 두 주인공의 결혼을 도와주는 조연으로 나온다.

'돈키호테'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3막의 결혼식 장면에서 키트리와 바질이 선보이는 그랑 파드되(2인무). 남녀 주역 모두에게 고난이도의 현란한 기교를 요하는 이 춤은 32번의 푸에테(회전동작)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점프 동작이 특히 인상적이다. 그 때문에 발레애호가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명 장면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레 갈라공연에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로 꼽힌다. 그외에도 몽상가 돈키호테가 꿈속의 여인 돌시네아를 만나는 환상적 장면에서 등장하는 앙증맞은 사랑의 메신저 큐피트와 요정의 여왕이 선보이는 아름답고 우아한 춤, 남성미 넘치는 정열적인 투우사의 춤, 이국적 매력이 넘치



는 캐릭터 댄스 플라멩코와 집시의 춤은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가 자랑하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힌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화려한 테크닉을 겸비한 한국 발레 최고의 파트너십 황혜민-엄재용, 객석을 압도하는 무대위의 카리스마 강예나-이현준이 선술집 딸 '키티리'와 이발사 '바질'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2002년 세계 발레스타 초청 대공연과 파리에서 열린 21세기에 푸왈 갈라 공연에 함께 초청되어 공연을 가진 황혜민과 엄재용은 2005년 헝가리 국립발레단이 포르투갈에서 공연한 '돈키호테'에 키티리와 바질로 각각 객원 초청되어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춤을 선보여 해외 발레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청초함과 순수한 열정을 머금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 간판스타 황혜민은 동아무용콩쿠르 일반부 발레 대상, 아시아 퍼시픽 국제 발레콩쿠르 2등상, 뉴욕 국제 발레콩쿠르 동상, 헬싱키 국제 발레콩쿠르 은상, 한국발레협회에서 수여하는 신인상에 이어 프리마발레리나 상을 수상했다. 귀족적인 이미지로 한국인의 체형 한계를 극복한 엄재용은 선화예고 재학 중 워싱턴D.C. 키로프발레아카데미 특별 장학생으로 유학길에 올랐고, 루돌프 누레예프 국제 발레 콩쿠르 Finalist(2000), 파리 국제 무용콩쿠르 시니어 솔로부문

Finalist(2000), 룩셈부르크 국제 무용콩쿠르 특상(2001), 신인무용 콩쿠르 발레 금상(2001)을 수상한 바 있다.

또 다른 '키티리'와 '바질' 강예나-이현준은 절제를 바탕으로 한 강한 테크닉과 맛깔나는 연기,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예나는 한국인 최초로 키로프발레단과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에 입단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04년 바르나국제콩쿠르 주니어 부문 베스트, 2006년 동아 무용 콩쿠르 발레부문 금상에 입상한 바 있는 차세대 발레스타 이현준은 유니버설발레단 입단 1년 만에 수석무용수로 승급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공연에서는 9일은 황혜민-엄재용, 10일은 강예나-이현준이 서로 다른 카트리와 바질로 열연, 최고의 매력을 뽐어낸다.

'돈키호테'는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연 30분 전 유니버설발레단의 문훈숙 단장이 직접 발레 '돈키호테'의 주요관람 포인트를 설명하고 '돈키호테' 공연 중에는 마임동작에 맞춰 그 장면을 설명해주는 자막을 제공한다.

◆ 총소요시간 : 2시간 5분

(1막 40분 | 2막 25분 | 3막 30분 | 15분 인터미션 2회)

### 문훈숙 단장이 들려주는 '돈키호테'의 감상 포인트

“'돈키호테'는 대표적인 희극 발레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몇 가지 마임 동작만 알아도, 이 작품은 정말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어요. 일례로 주요 소품인 부채를 통해 여자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여유 있게 부채질을 하고, 질투가 생길 때는 짜증스럽게 흔들죠. 여인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부채 뒤로 살짝 숨기며 남자를 유혹하기도 하죠. 가난한 이발사 바질이 선술집 딸 키티리에게 구혼할 때 두 손을 모아 왼쪽 심장에 대면 '사랑한다'를 표현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낀 반지를 가리키면 '결혼하자'를 나타내는 마임(mime)이 있어요. 또한, 키티리 아버지 로렌조가 바질을 못마땅하게 여겨 갈라놓는 장면에서 두 손을 치켜들고 성난 모습을 표현하지요. '돈키호테'는 이국적인 춤과 고전 발레의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발레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정열을 느낄 수 있는 플라멩코 춤과 전통 발레 동작으로 구성된 요정들의 춤이 백미입니다.”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09 웰빙콘서트 시리즈 VI 말리와 11시에 만나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동신



해설 김문경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조창후



바리톤 강경원



클라리넷 정우영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하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2009 피날레 무대가 10월 8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지난 4월에 이어 말리 스페셜리스트 김문경의 상세한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난해하기로 유명한 말리의 음악세계와 그의 삶을 조명해 본다. 이번 무대에서는 4월 무대에서도 협연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김선정과 바리톤 강경원, 그리고 테너 조창후와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함께 말리음악여행을 떠난다.

독일의 시인 뢰케르트의 시에 곡을 부친 '뢰케르트 시에 의한 5편의 가곡' 중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는 바리톤 강경원이, 옛 중국시인들의 시를 모은 한스 베르케의 번안시집 '중국의 피리'에서 영감을 얻은 교향곡 '대지의 노래' 중 '청춘에 관하여', '봄에 술 취한 자'는 테너 조창후가, 그의 아내인 알마 말리가 결혼하기 전 작곡한 '5개의 가곡' 중 '부드러운 여름밤', '내 아버지의 정원에서'는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이 들려주며 아내인 알마를 위해 작곡된 교향곡 제 5번 올림다단조 중 제 3부 4악장 '아다지에도'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들려준다. 이밖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작품 492와 모차르트의 유일한 클라리넷 협주곡인 '클라리넷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 중 3악장은 정우영의 클라리넷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해설과 진행을 맡은 국내 최고의 말리 권위자 김문경은 말리의 생애와 교향곡 분석을 집대성한 '구스타프 말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협연자 김선정은 함부르크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 윤이상 오페라 '심청'으로 국내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오텔로' '리골레토' '카르멘', 국립오페라단 '보이첵' '예프게니 오네긴' '살로메'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테너 조창후는 연세대학교와 독일 에센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이탈리아 Roma A.I.D.M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페라 '조선의 요술피리' '사랑의 묘약' '라트라비아타' 등 다수 주역으로 출연해 호소력 짙은 음색과 완벽한 연기력을 선보여왔다.

또 다른 협연자 강경원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디플롬, 최고연주자과정, 마이스터과정을 졸업하고 그 동안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엘리아' 등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주역으로 출연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정우영은 현재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음악감독 겸 지휘자, 해운대 청소년 교향악단 단장 겸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연에 앞서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말리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의 에피소드를 그린 콩트로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 관람료 \_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충근



정명화

동북아 해양수도인 부산과 부산 음악인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포니에타,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120여명으로 편성된 연합오케스트라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가 10월 12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을 만난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는 한국을 넘어 세계음악의 중심도시를 꿈꾸는 부산시민과 부산음악인들의 소망을 담아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대형 연합 오케스트라이다. 일본에서는 10여년 동안 PMF(태평양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펼쳐왔고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Asia Philharmonic Orchestra를 결성,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로 활동하고 있다.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의 이번 무대는 부산 출신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봉을 잡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가 무대에 오른다.

유려한 음악적 카리스마로 각광 받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은 1982년 서울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KBS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하던 중 1985년 국내 최연소 악장의 기록을 세우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스카우트되었고, 이후 1992년까지 부산시

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재직했다.

1990년 고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오충근은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으로 졸업하여 Diploma(G.P.D)를 받았고, 미국 Melrose Symphony Orchestra, Quincy Symphony Orchestra, Boston Conservatory Orchestra 등을 지휘하였다. 귀국 후 2000년부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아온 오충근은 2005년 5월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지휘, 걱정적이면서도 부드럽고, 화려하면서도 정확한 음악을 표현하는 지휘자로 격찬을 받았다.

협연자 정명화는 1971년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등으로 입상하면서 유럽 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67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재단상 수상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이미 많은 상을 수상한 정명화는 1969년 주빈메타 지휘의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데뷔한 후 루돌프 캠페, 안달 도라티, 줄리니 등 명 지휘자들과의 협연으로 정상의 첼리스트로서의 위치를 다져왔다. 기교적인 안정감과 개성 있는 음색으로 많은 첼로 연주자를 제치고 정상에 오른 정명화는 뉴욕 타임즈로부터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라는 극찬을 받았다. 2008년 세계 한인의 날 홍보대사직을 맡아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임을 알린 정명화는 정 트리오와 함께 데카, EMI, 도이치 그라마폰 등을 통해 앨범을 출판했다. 정명화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독주회와 협연 등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5번 마단조 작품 64로 풍성한 가을 소식을 전한다.

▶ 주 최 \_ 부산광역시, KNN

▶ 문 의 \_ KNN(1577-7600)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 Opera in Concert 토스카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기국



바리톤 우주호



베이스 함석헌

지난 6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리 신차오가 오페라 콘서트 '토스카'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연극적 장치를 배제한 오페라 전곡을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한 이번 무대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인형' '로미오와 줄리엣' '라실피드' '돈키호테' '코펠리아' '홍색낭자군' 등 중국 오페라 무대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수석지휘자 리신차오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무대이다.

'라보엠' '나비 부인' 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널리 공연되고 있는 '토스카'는 1890년 경 밀라노에서 프랑스 작가 사르두가 쓴 5막 희극을 본 푸치니가 자코자와 일리카에게 대본을 의뢰하여 완성한 3막 오페라이다. 1900년 1월 14일 로마 콘스탄찌 극장에서 초연된 '토스카'는 음악과 극적구성, 무대효과 면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푸치니를 명인의 반열에 오르게 한 수작으로 꼽힌다.

작품의 시대는 1800년 6월 로마. 정열적인 여가수 토스카와 그의 연인인 자유주의 화가 카바라도시, 그리고 토스카를 짝사랑하는 잔인하고 호색한 경시 총감 스카르피아가 그려가는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이야기가 강렬하고 긴밀한 구성,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개된다.

주요 아리아로는 카바라도시의 '오묘한 조화(Recondi t' armonia)', 스카르피아의 '가라 토스카!(Te deum... Va, Tosca!)', 토스카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Vissi d'arte,

vissi d'amore)', 카바라도시의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 이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리오텔모나코, 이리스아다미 코라테티 국제콩쿠르 1위, 푸치니콩쿠르 2위 등 국제콩쿠르에서 10회 입상 바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이 토스카로, 독일 Deutsche Oper am Rhein Opernstudio, 하겐 시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를 역임한 테너 전병호가 카바라도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루피에르 음악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바리톤 박기국이 안젤로티로, 프란체스코 국제콩쿠르 1위 입상, 비냐스 국제콩쿠르 특별상 등 6개 콩쿠르에 두각을 나타낸 바리톤 우주호가 스카르피아로, 국립오페라단 상근 단원을 역임한 베이스 함석헌이 성당지기로 출연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강은태가 스폴레타, 김태우가 샤로네, 구명금이 간수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 김덕기 교수가 고문으로, 정금련이 오페라 코치로 참가하고 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동래초등학교 성악부(지도/김희정),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현악주자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오페라 콘서트 '토스카' 무대를 빛내준다.

▶ **관람료** \_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B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부산시립합창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작곡가 김동진, 그 아름다운 음악과 합창을 추억하며...

●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지난 7월 31일 타계한 작곡가 김동진 선생을 추억하며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강규의 지휘로 김동진 선생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는 '김동진, 그 아름다운 음악과 합창을 추억하며...'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곡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곡 '가고파' '목련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 아름다운 가곡을 남긴 김동진 선생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송가 등으로 서양음악을 접했다.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니면서 D. R. 말스베리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5학년 때 '봄이 오면' (김동환 작시)을 작곡했다. 숭실전문학교 2학년 때 양주동에게 배운 이은상의 시(詩) '가고파'를 비롯해서 '밭자국' '벚노래' 등을 작곡해 재능을 인정받았다.

한국 가곡의 최고 역작이자 가곡 저변 확대에 기틀을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고파'를 비롯해 '봄이 오면' '수선화' '산유화' '못잊어' '목련화' 등 주옥같은 가곡을 작곡, 국내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김동진 선생은 '내마음' '신창악곡집' 등 작곡집과 '심청전' '춘향전' 등의 가극도 남겼다. 김동진 선생은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국제저작권관리단체



작곡가 故 김동진



지휘자 김강규

연맹 골드메달 등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고파(전, 후편)와 수선화, 목련화, 내 마음,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합창곡으로 재 편곡해 부산시립합창단과 김동진 선생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외에도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전 작곡가들의 정통적인 합창 텍스트로 알려진 'Pater Noster'를 그레고리오 성가, O. di 랫쏘, O. 니콜라이, A. 콘솔라시온 등 다양한 버전으로 구성된 무반주 합창곡, 영국과 미국의 영어권합창 무대, 부산출신 작곡가 최석태의 '오륙도(대구창작합창제 위촉곡)', 백현주의 '두물머리', 장상영의 '송화강 벚노래(대구창작합창제 위촉곡)' 등 합창음악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협연/이은옥(바이올린), 김판수(첼로)
- 반주/이승윤, 이경미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의** \_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3회 정기연주회 및 제 64회 UN의 날 기념음악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

●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오페라 콘서트 '토스카'로 부산음악에 호가들과 만난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10월 23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3회 정기연주회로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 64회를 맞는 UN의 날을 기념,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리 찬원이 협연하는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협주곡 제 1번과 슈트라우스의 환상변주곡 '돈키호테' 부산초연무대로 마련된다.

첫 곡인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협주곡 제 1번 가단조 작품 77'은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작품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작곡 당시 소비에트로부터 서구적 모더니즘에 젖어 형식주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된 쇼스타코비치가 7년

의 공백기간을 거친 후 스탈린 사후에 비로소 발표한

작품이다. 초연은 1995년 10월 29일 레닌그라

드 필하모니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러시아

의 거장 므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

라드 필하모니교향악단과 쇼스타코비치

가 이 곡을 헌정한 세계적인 바이

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

라흐의 협연으로 이뤄졌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을 맡

은 바이올리니스트 리 찬원은

'눈부시게 역동적이고 풍부한

표현력의 엄청난 재능을

지닌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

으며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지고 있다.

기업인 최킨중 씨의 후원

아래 10년간 북경 중앙음악

원에서 린야오지 교수를 사사하고 미국 줄리어드음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도로시 딜레이, 이작 펄만, 강효를 사사한 리 찬완은 6년 연속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도로시 딜레이와 쿠르트 사스만스하우스를 사사하며 신시내티대학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11세 때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 5회 비에나프스키 국제 유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리 찬완은 1998년 아스펜에서 열린 나카미치 바이올린 협주곡 콩쿠르 1위 등 다수 유명콩쿠르를 석권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첸 카이거의 영화 '투게더' OST의 바이올린 독주 부분을 연주해 워싱턴 포스트지로부터 '그가 연주하는 천상의 소리는 영화에 장엄한 청각적 배경을 선사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중국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미국투어에서 뉴욕타임스로부터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곡의 난해함으로 부산에서 처음 소개되는 슈트라우스의 환상변주곡 '돈키호테' 작품 35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으로 솔로 첼로가 돈키호테를, 바이올린 솔로가 어린 돈키호테, 베이스 클라리넷과 테너 튜바가 산초 판자를, 솔로 비올라가 돈키호테의 애마 로시난테를 표현한다. 이 곡은 주인공 돈키호테의 첼로 솔로가 연주회를 이끄면서 상당부분 첼로협주곡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를 맡고 있는 첼리스트 양육진이 첼로 솔로를 연주한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가능 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바이올리니스트 리찬원





**친절한 발레 CEO로 변신한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키로프발레단에서 지젤을 연기, '춤추는 동양의 나비' 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발레리나 문훈숙. 2001년 부상으로 무대를 떠나 CEO로 변신한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이 오는 10월 9일과 10일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부산 발레 애호가들과 만난다. 유쾌하고 정열적인 '돈키호테' 공연을 통해 부산시민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문훈숙 단장. 그와의 유쾌한 만남을 기대하며 e-mail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10년만에 갖는 부산 공연** 유니버설발레단이 부산을 찾은 것은 거의 10년만이에요. 무엇보다 유쾌하고 정열적인 '돈키호테' 공연을 통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 뵙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발레와의 인연** 미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발레를 취미로 배웠어요. 또 한국에 와서는 리틀엔젤스 예술학교(선화예술학교로 명

칭변경)에 입학했는데 예술단은 합창과 한국무용이 전공의 전부였습니다. 애드리언스 선생님이 오시면서 예술학교에 발레부가 생겨 발레를 시작했지요. 달라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 발레의 앞을 내다보며 정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달라스 선생님이 오신지 3년 후 1978년 영국 로열발레단이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 내한공연을 왔고 그 발레단의 지도위원께서 우리 학교에 오디션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 중에서 7명이 오디션을 봐서 7명이 모두 합격했어요. 그 계기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영국 로열발레학교,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를 수학하고, 미국 워싱턴 발레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유니버설 발레단이 창단 공연을 하니 와 달라고 연락이 왔고, 1984년 귀국해서 창단 공연의 주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 후로 발레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1995년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을 맡게 되었어요. 2001년 부상으로 무대를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CEO로 경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문훈숙...** 저는 매일매일 연습을 하다가 받는 지적들을 적어놓는 수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다시 그 수첩을 보며 동작들을 다시 해보면서 머릿속에 익히는 거죠. 차곡 차곡 쌓인 메모들이 저만의 노하우가 되어서, 나중에 후배들에게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아요.

**발레리나로 애착이 가는 작품** 발레리나 문훈숙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께서 ‘지젤’과 ‘심청’을 꼽아주시는데요. ‘지젤’ 못지 않게 애착이 가는 작품이 인도 무희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담은 ‘라비아데르’와 유쾌하고 열정적인 ‘돈키호테’도 정말 매력적이고 아주 좋아합니다.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또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캐릭터가 강한 두 작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2001년 은퇴, 그 후** 무대에 오르기 전의 긴장감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은퇴하고 잠시동안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 소리만 들어도 다시 연습실에서 땀 흘리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어요. 최근 저희 발레단에서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대표작 ‘오네긴’ 공연권을 얻어서 준비하느라 연습실에 가서 지도를 하곤 했는데, 또 다시 무대가 참 그리워 집니다.

**발레리나에서 여성 CEO로** 무대 위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무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직 발레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레를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추진력 있는 리더십** 1995년 처음 단장을 맡았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발레도 하고 있었고 단장으로서의 다른 모습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성격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내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그림자 스타일’이죠. 경영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게다가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걱정이 컸어요. 그래도 다행히 금새 나름의 방식을 찾았어요. 보통의 경영자라면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이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전 그것보다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역할

을 맡기로 했죠. 뒤에서 적극적으로 내조 해주는 CEO, 뛰어난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결점이 되는 역할을 택했습니다.

**새롭게 쓰는 한국발레사** 유니버설발레단이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발레를 알리는데 급급했어요. 대부분 발레를 너무나 생소해하셨어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매회 노력을 하였더니 2007년에는 평균 유료관객이 약 70%, 2008년에는 유료관객이 80%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관객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더욱 좋은 작품,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야겠죠!

요즘 젊은 후배들은 신체적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몸이 너무 길고 예뻐서 아무렇게나 자세를 취해도 아름다운 발레리나들도 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런 만큼 노력과 에너지가 부족해요. 또한 감성보다는 콩쿠르 위주의 테크닉만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안타울 때가 종종 있어요. 또 가르치는 것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팔 다리가 짧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길게 보일까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발레발전을 위해 그들이 발레 자체의 아름다움을 찾는 무용수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죠!

**대중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발레** 무대를 내려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발레’를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발레는 말이 없어서 왠지 부담스러워요”였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공연감상법과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여 2007년 ‘지젤’ 공연에서 공연 시작 30분 전에 제가 작품 속에 나오는 마임과 동작, 줄거리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공연 중에는 대사 형식의 자막을 넣어봤어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어요. 앞으로 가능한 ‘친절한 발레’로 여러분 곁에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발레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 이러한 친절한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 높은 공연이라는 것입니다. 관객이 공연을 봤을 때 만족할 수 있어야 일회성 발걸음이 아니라 다음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유니버설발레단은 10월 부산, 대구, 순천 순회공연에 이어 11월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호두까기 인형’ 24회 공연, 12월 서울에서 12월 31일 까지 ‘호두까기 인형’으로 2009년을 마무리 한다.



# New York, New York

## 맨하탄

워싱턴 기념문

주 종 식 \_ 테너, 워싱턴 한인감리교회 음악감독

지구상에서 가장 바쁘고 치열한 자본주의의 각축장인 뉴욕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난 이렇게 복잡한 뉴욕에선 절대 살 수 없어”라는 사람들과 “I Love New York ! 난 복잡한 뉴욕을 사랑해”라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둘 중에서 ‘아이러브 뉴욕’을 외치는 한 명이 되어 버렸다.

서울 못지않게 복잡한 뉴욕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무단 횡단을 하며 오른손엔 커피를 들고 향긋한 커피 향을 흘리며 갈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곳을 방문하며 관찰한 결과, 진정한 뉴요커는 횡단보도에서

가장 먼저 건너가는 사람인 것 같다. 신기하게도 큰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발을 떼어 한 두 걸음 걷기 시작하면 몇 초 후 신호가 바뀐다. 그걸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한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줄지어 따라 가는데, 참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풍경이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본 맨하탄 시내의 풍경을 글로 표현하자면 눈으로는 컬러풀함이 반짝하며, 소리로는 난타의 공연을 듣는 듯 하다. 택시들, 일명 옐로캡(뉴욕의 택시는 거의 다 노란색이다)이 차도에 줄지어 서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옷차림으로 여기저기에서 빠르게 길을 건너며 전진하고 있다. 난 그 순간 뮤지엄에서 작품을 보듯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내가 지금 저 작품 안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는 얼른 옷을 차려 입고 내가 바라보던 풍경 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는 옷을 추스리고 딱히 갈 곳도 없는 나 또한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빨리 걷기 시작한다. 얼마나 걸었을까, 걸으면서 각양각색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지나치고, 꽃집, 베이커리, 길거리에서 파는形形色색의 과일들, 프랫즐(밀가루 반죽을 가늘게 밀어서 하트 모양으로 구운 빵)을 파는 노점상, 영화에서만 보던 맨홀뚜껑에서 올라오는 연기까지, 내 눈은 온통 신기함에 빠져 정신없이 움직이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에 담기 급급하다. 내가 지금 어떤 선상에 있는 줄도 모르며 정신이 팔렸다는 말처럼 난 뉴욕의 풍경에 흘러 이쪽저쪽 끌려 다녔다.

우리가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가로로 된 스트리트와 세로로 된 에비뉴, 대각선인 브로드웨이로 나뉘어져 블럭 블럭 각각의 길거리가 매력적인 도시, 뮤지컬 난타 소리와 같은 복잡함 속에서 걸으면서 많은 것을 보며 많은 것을 상상하고 느끼게 하는 이 곳이 바로 뉴욕 맨하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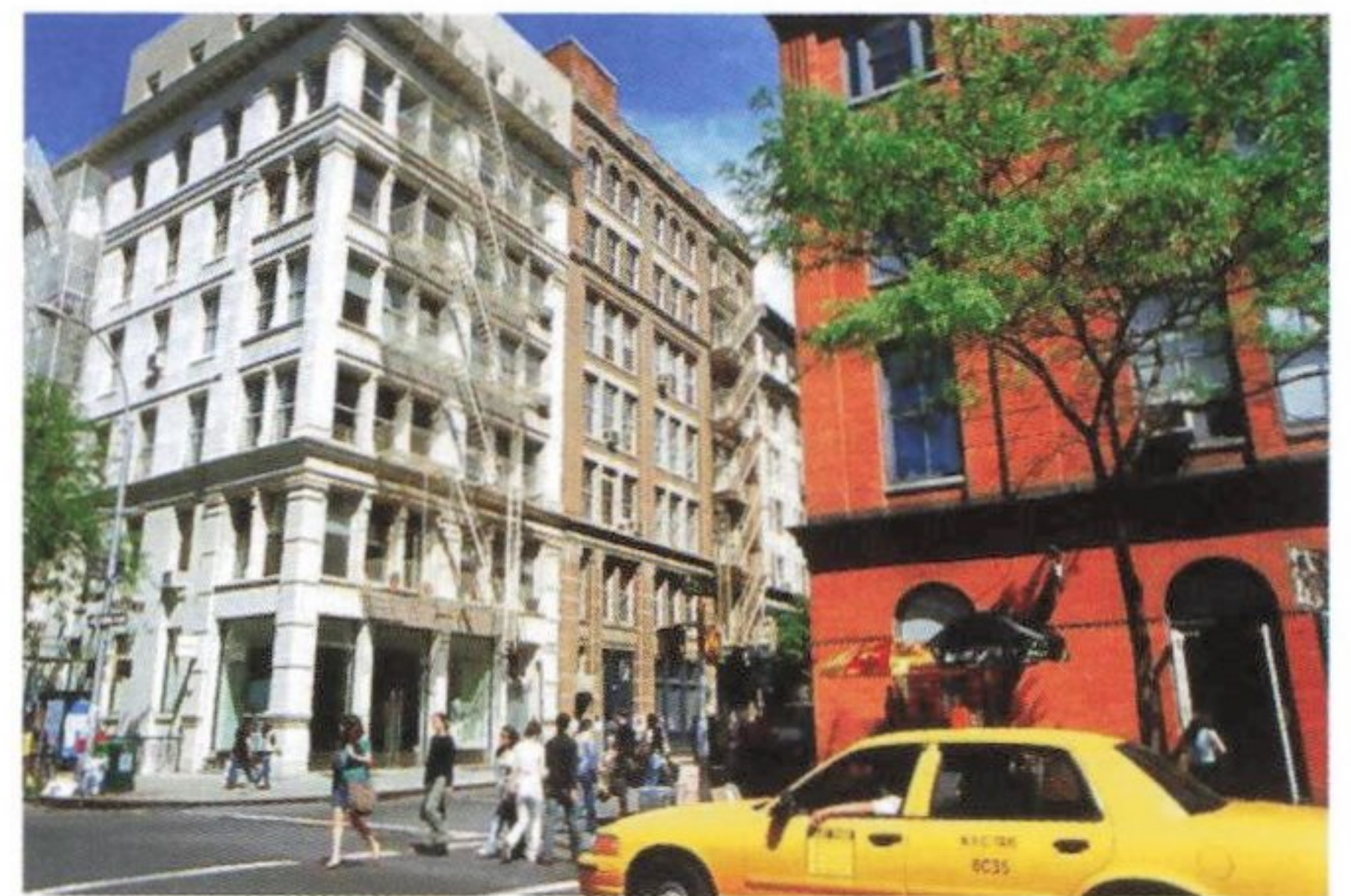
뉴욕의 날씨는 참 변덕스럽다. 아침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바뀌고 해가 조금씩 빛을 비추며 맑고 아름다운 하늘로 변신하기도 한다.

아,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상식!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긴팔 가디건과 우산은 필수품이다. 말로만 들었던 런던만큼이나 비가 많이 오고 또 갑자기 햇빛이 짹짹 비추는 도시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으니, 진정한 뉴요커들, 뉴욕 토박이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고 다닌다는 것이다. 날씨가 금방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며 걷는데, 그 걷는 모습까지도 난 반해 버렸다.

해가 뜨고 점심이 되니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관광객을 위한 2층 버스 그레이라인이 길을 오고 가고, 말을 탄 경찰들이 관광객들의 카메라 세레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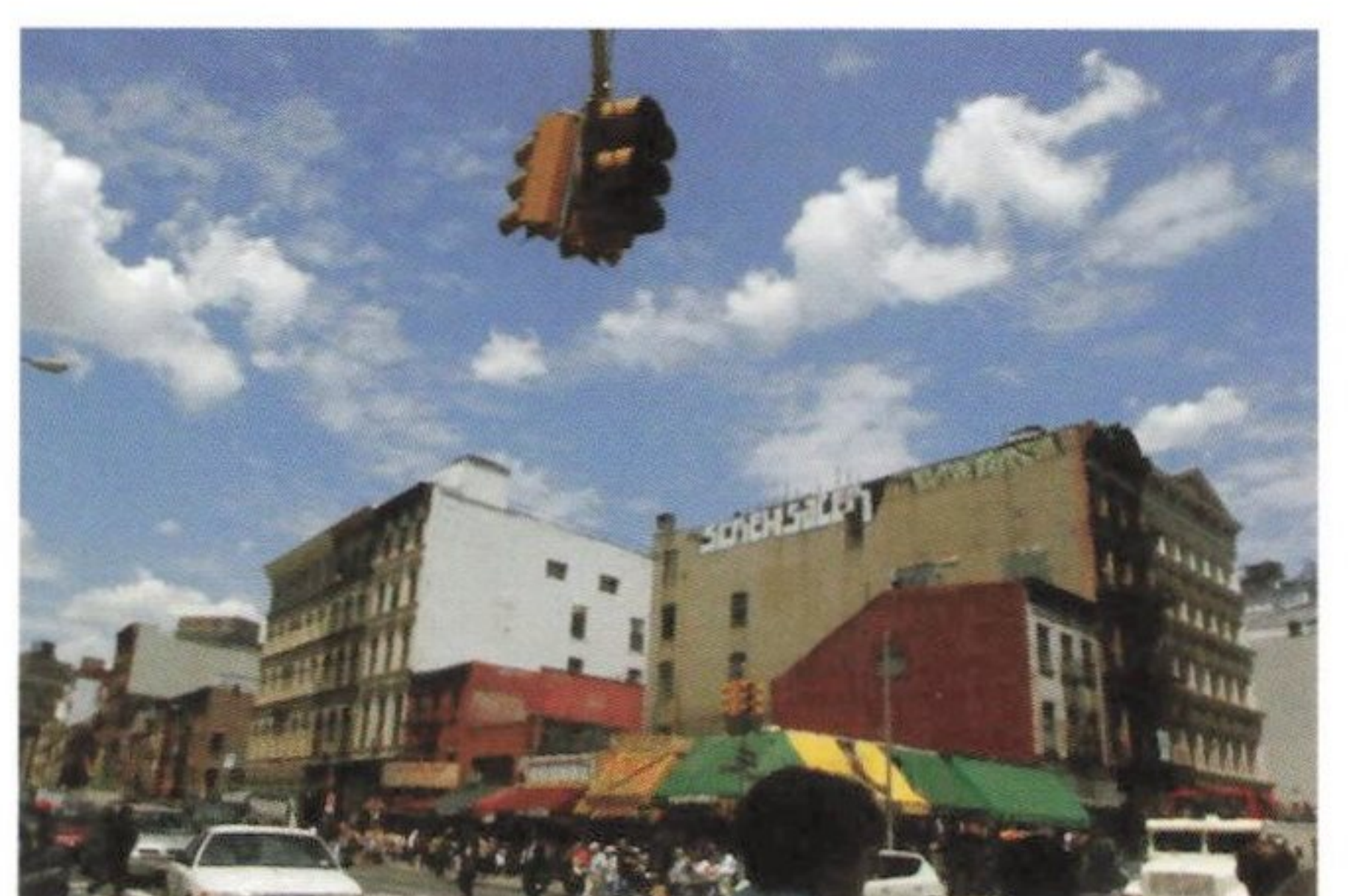
뉴욕의 기마경관



소호 거리



소호 거리



소호 거리



워싱턴 100주년기념아치

주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뉴욕을 돌아보아야 한다면 이 그레이 라인을 추천하고 싶다. 이층이 뺨 뚫린 그레이 라인 버스에 앉으면 맨하탄 도심이 유리에 걸리지 않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 업타운 다운타운으로 갈라져 둘 중에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으며, 둘 다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내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릴 수도 있다.



botiques

천으로 된 간판들이 바람에 하늘거리며 반기는 이곳은 너무나도 친숙한 South of Houston. 약자 SOHO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망고, 유니클로 등 크레이티브한 옷이 많은 샵에서부터 개인 디자이너들의 아담한 샵들, 길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아저씨, 미소를 띄며 비누방울을 날리는 흑인 아저씨, 그리고 각각 개성을 가진 스타일리쉬한 멋쟁이들까지 예술의 집합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이겠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영화 '귀여운 여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에드워드'가 '비비안'이 살았던 동네에 찾아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낡은 사다리들이 건물 벽에 붙어있는 풍경이었다.

소호 길을 따라 업타운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니 뉴욕대학교 스쿨버스가 보이며 대학 건물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워싱턴스퀘어 공원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만 흘러갈 것 같던 맨하탄의 느낌과는 정 반대로 따스한 햇살 아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내가 '아이러브뉴욕'을 외치는 첫 번째 매력이다. 복잡한 도시 안에서 경적을 울리며 썹하고 지나가는 차 소리, 고속으로 달리는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뚜벅뚜벅 발소리와 핸드폰의 요란한 통화소리 등과 함께 생활 하다가 워싱턴스퀘어 공원

근처에 오면 빨리 돌아가는 필름이 갑자기 슬로우 화면으로 전환된다. 마치 음소거를 누른 느낌처럼 조용함과 아늑함이 느껴지고 온갖 새들의 지저귀고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다람쥐가 신기하기까지 하다.

이곳에서는 분위기를 있게 책을 읽을 수도 있으며, 혼자만의 공상, 명상에 빠질 수도 있다. 맨하탄이라는 조그마한 섬

에서 정 반대인 두 가지의 느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특히 이곳의 많은 공원들 중에서도 워싱턴 스퀘어는 특히 영화 '어거스트러쉬'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보이는 분수대와 워싱턴 대통령 취임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개선문이 워싱턴스퀘어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워싱턴스퀘어에 대해 조금 더 설명 하자면 1700년대 후반까지는 공동묘지로 사용되었으며 한때는 결투장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1819년까지는 공개 교수형 장소로 쓰였던 곳이라고 하는데 서북쪽 구석에는 그때 교수형 줄을 매었던 참나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주말이면 거리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는 낭만적인 예술 공간으로 변모한다.

한 없이 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뉴욕, 뉴욕 안에서도 맨하탄이라는 작은 섬 안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느끼니 내가 꿈꾸던 상상의 나라에 여행을 온 것처럼 마음 속에 무언가 뿌듯함과 따뜻함이 자리를 잡는다.



맨하탄 워싱턴스퀘어 공원은 주말 거리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낭만적인 예술공간으로 변모한다.(사진은 거리예술가의 작품)

# 말러와 신(新)빈악파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아놀트 쇤베르크와 그의 제자 알반 베르크, 안톤 베베른을 묶어서 흔히 신(新)빈악파라 한다. 신빈악파라 함은 오스트리아의 빈을 거점으로 한 고전파 시대의 '3인방', 즉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짝을 이루는 20세기의 새로운 빈악파라는 뜻이다.

고전파의 빈악파는 오늘날 클래식 음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신빈악파는 그렇지 못하다. 날카로운 불협화음과 악기들의 괴상한 음색,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이상한 음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그들의 난해한 음악은 전통의 단절과 음악의 종말을 느끼게 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기수들이 열혈 말러리안이었다고 하면 독일, 오스트리아의 음악 전통과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더 밀착되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쇤베르크는 말러 교향곡 7번 공연을 보고 그 감동을 작곡자에게 편지로 전했다. "어떤 악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냐고요? 모두요! 처음 듣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고 주요성부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난해함의 극치로 평가되는 말러 7번을 처음 듣자마자 사랑에 빠질 수 있다니 과연 쇤베르크답다. 말러는 비록 신음악의 혁명아가 만든 괴상한 음악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기회를 통해 쇤베르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표했다.

말러가 서거하자 쇤베르크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1913년 프라하에서 열린 말러 추모 2주기 기념행사에서 "여러 말 할 것 없이 말러가 위대한 인간이자 위대한 예술가였음을 확고하게 믿습니다라는 한 마디 말로 족할 것 같습니다"라는 연설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신빈악파와 말러와의 음악적 연계성은 개별적으로 그 양

상이 사뭇 다르다. 말러와의 친밀한 유대에도 불구하고 쇤베르크의 음악 속에 말러적인 요소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베르크와 베베른의 음악에서는 말러에게서 많은 자양분을 공급 받았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안톤 베베른

12음에 낭만적인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베르크는 말러에게서 '풍요와 낭만'을 배웠다. 말러의 지휘봉을 몰래 훔칠 정도로 광팬이었던 그는 '리틀 말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러와 작곡기법이 유사하다. 베르크가 가장 좋아했던 말러의 교향곡은 거대한 편성에다가 파국과 몰락의 구조가 확실한 교향곡 6번, 9번이었다.

한편 베베른은 말러에게서 '섬세함과 절약'을 배웠다. 냉기 어린 음렬로 완전한 신음악을 창조했던 베베른이 가장 좋아했던 말러의 곡은 실내악적인 악기편성과 선적 대위법을 보이는 '대지의 노래'였다. 그는 말러의 부인인 알마를 통해 이 곡의 악보를 접하고 감동했으며, 스승 쇤베르크에게도 그 감격을 알린 바 있다.

말러와 신빈악파를 묶어서 연구해볼 수록 '말러는 신음악을 위한 길을 닦은 사람이었다'라는 음악학자 콘스탄틴 플로러스의 견해에 수긍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음악사적으로 신빈악파를 말러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새로운 시대를 예언한 고독한 천재 그리고 신빈악파의 음악을 함께 들어볼 것을 권해본다.

# 비제(G.Bizet)의 카르멘(Carmen)

김 홍 승 \_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비제(G.Bizet)

음악극이 점차 오페라로 틀을 잡아 가던 시기,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각 각 특성에 맞게 음악극을 만들고 발전 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프랑스의 서정비극, 독일의 징슈필, 영국의 마스크 등등...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오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되었고 18세기 초에는 서유럽 거의 모든 나라로 보급이 되었

다. 이렇게 오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이탈리아 오페라는 현재 까지도 다른 어느 나라의 오페라보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

하지만 1875년,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할만한 작품이 나왔다. 하지만 이 작품은 너무 사실적이고 비도덕적이었다. 게다가 음악은 형식이 섞여 당시 가수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결국 이 오페라는 초연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후에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작품이 되었다. 물론 지금까지도.

초연에 실패한 오페라가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물론 그렇다. 그 작품은 바로 '카르멘' 이기 때문이다.

'카르멘' 은 총 4막이며 1875년 3월 3일 파리의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프로스페르 메리메(P.Mérimé)의 소설 '카르멘(Carmen)' 을 원작으로 앙리 메이악(H.Meilhac)과 뤼도빅 알레비(L.Halévy)가 대본을 작성하였다.

- ▶ 카르멘(Carmen): 담배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인물.
- ▶ 돈 호세(Don José): 군인 하사. 카르멘을 보고 반하여 사랑하

게 된다.

- ▶ 미카엘라(Micaëla): 돈 호세 고향의 아가씨. 약혼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돈 호세를 사랑하는 여인.
- ▶ 에스카미요(Escamillo): 인기 투우사. 카르멘을 보고 반한 또 다른 남자.
- ▶ 프라스키타(Frasquita), 메르세데스(Mercedès): 집시. 카르멘의 친구이다.
- ▶ 단카이로(Dancaire), 레멘다도(Remendado): 밀수꾼.
- ▶ 주니가(Zuniga): 돈 호세가 속해있는 부대의 대장.

## 1막 세빌리아의 광장

한적한 세빌리아 광장에서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임무 교대시간. 모랄레스 하사가 돈 호세에게 미카엘라가 올 것을 말해주고 간다. 이때 담배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나온다. 젊은이들은 그 유명한 카르멘을 보고자 모여든다. 관심 가지는 다른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관심 없는 듯 서있는 돈 호세에게 카르멘은 꽃을 던진다. 마침 미카엘라가 찾아오고 고향생각에 그리워한다. 미카엘라가 떠나고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거리, 주니가의 명령으로 공장안에서 소란의 주인공을 데리고 나온다. 카르멘, 그녀였다. 소란을 일으킨 죄로 감옥으로 가게 된 그녀는 호세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호세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실수인 척 넘어지며 그녀를 풀어주게 된다.

## 2막 릴라스 파스티야의 주점

주점에서 주니가와 카르멘이 대화하고 있다. 그녀를 놓친 죄로 돈 호세는 감옥으로 갔다. 그런 호세가 오늘 풀려났다는 소식을 주

# G. Bizet

## Carmen

니가가 전해주고 카르멘은 즐거워한다. 그러다 이번 투우사 시합에서 승리한 에스카미요가 카르멘을 보고 맘에 들어 하나 매몰차게 보낸다. 그때 밀수꾼들이 등장하여 카르멘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 말하지만 카르멘은 돈 호세를 사랑한다며 떠날 수 없다 한다. 그때 돈 호세가 찾아오고 그녀는 그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한다. 하지만 이내 귀영 나팔 소리 들리고 돌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돈 호세는 그녀의 뜻대로 밀수에 가담하기로 한다.

### 3막 세빌리아 근처의 산 속

밀수업자들이 짐을 운반하고 있을 때 카르멘과 그녀의 친구들은 카드 점을 치고 있다. 아무리해도 '죽음'으로 나오는 결과에 카르멘은 놀란다. 세관의 눈을 돌리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호세는 혼자남아 망을 보고 있을 때 에스카미요가 나타나 사랑하는 그녀 카르멘을 찾는다 말한다. 이내 싸움이 일고 카르멘이 나타나 말린다. 소동이 잠잠해질 쯤 미카엘라가 돈 호세를 찾아와 어머니의 위독함을 알리고 그는 카르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는 떠난다.

### 4막 세빌리아 투우장 밖

에스카미요와 카르멘이 행렬 속에 끼여 행진하고 있다. 벌써 마음이 변한 카르멘은 에스카미요와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때 그녀의 친구들이 카르멘에게로 와 돈 호세가 주변에 있으니 조심하라 알려주지만 카르멘은 흘려 넘긴다. 돈 호세는 카르멘에게 찾아와 다시 돌아올 것을 애원하지만 반지마저 던지며 저항하는 카르멘을 본 돈 호세는 그녀를 붙잡고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카르멘이 초연에 실패했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비제는 '카르멘'을 위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



비제의 '카르멘'은 초연 당시 주인공이 애인에게 살해당하고, 공연 중 여성 합창단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 주인공이 애인에게 살해당하고, 공연 중 여성 합창단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점 등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음악적인 부분도 그 시대에 유행했던 바그너 파의 쪽도 아니었거니와 또 초연을 올리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수많은 수정작업을 해 나갔다고 한다. 초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반응을 본 비제는 낙담하여 새벽까지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일화가 있다.

이후 많은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아야했던 비제는 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료 작곡가들의 평은 달랐는데 그들은 극찬에 극찬을 더해 비제에게 '카르멘'이 걸작이라 찬사를 보냈다. 시간이 지나 비평가들도 하나 둘 '카르멘'이 걸작임을 인정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비제는 초연을 하고 3개월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풍자군 도미에가 그린 19세기 프랑스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트랑스노병의 거리, 석판화, 1834.  
(노동자시위가 진압된 후 트랑스노병 한 가정의 모습, 빛 속에 널브러진 남자와 그 밑에 깔린 어린아이)

서양의 저널리즘은 근대 신문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절대왕정 하에서 생겨난 근대 신문은 검열제와 싸우며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였다. 또 당시 프랑스 인구의 2/3가 문맹상태였기 때문에 신문의 시사만평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서민들의 뇌리에 분명하게 각인되었으며, 인기도 높았다. 저절로 슬며시 웃음 짓게 만드는 위트 넘치는 풍자만평! 이것이야말로 한 컷 만평이 지닌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무기일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판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도미에는 이러한 '시사만평의 대부'로 불린다.

오노레 도미에(Honore Daumier, 1808~1879)는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마르세유 출신의 사실주의 화가, 판화가인 동시에 사회비평가, 풍자가였다. 빈곤 속에서 성장했던 까닭에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공증사무실 사환, 서점 점원생활을 거친 후 뒤늦게

야 미술에 입문하게 된다. 14세 때 부친의 친구 르노아르(화가, 고고학자)에게서 잠깐 그림을 배우고, 아카데미 '쉬스'에서 인체대상 등 화가수업을 하다 1825년 출판업자이자 석판화가인 벨리아르에게서 견습 생활을 통해 석판화를 배워 생계수단으로 삼게 된다.

그의 부친은 유리공의 가업을 이었지만 시인으로서의 원대한 꿈을 버릴 수 없어 파리로 와서 루이 18세를 알현했지만 단지 2주일간의 총애에 그치면서 정신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도미에는 줄곧 공화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7월 혁명에도 참여하였다.

1830년 도미에가<카리카튀르>지 만평기고가로 데뷔했던 시절은 신문과 잡지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무렵으로 마흔 살에 접어들면서 만평가로서 확실한 명성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계급의 타락한 실상을 그림에 담아 자본주의 도약기의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하는 시니컬한 작가였다. 1832년, 당시 국왕 루이 필립을 만평으로 두 차례 비판하면서 두 달 간 투옥되고, 넉 달간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했지만, 석방된 후에는 여전히 풍자만평을 통해 권력과 기득권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였다. 1835년<카리카튀르>지가 발행이 금지된 이후에는 주로 <샤리바리>지에서 40년 이상 고정기고를 통해 19세기 프랑스인들의 삶의 편린(片鱗)을 휴머니스틱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그러나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도미에는 평생 석판화 4천여 점, 목판화 1천여 점, 유화 250여 점, 소묘와 수채화 200여 점, 조각 65점을 남겼다. 특히 시사문제를 다룬 천여 점의 석판화는 루이 필립왕정(1836~1848)의 풍속과 풍자를 다룬 것으로 40여개의 주제를 시리즈로 해서 정계, 법조계의 모습 그리고 파리장들의 보편적인 일상과 다양한 모습을 풍자하였





무도회를 위한 일탈-푸쉬케와 큐피트, 석판화, 1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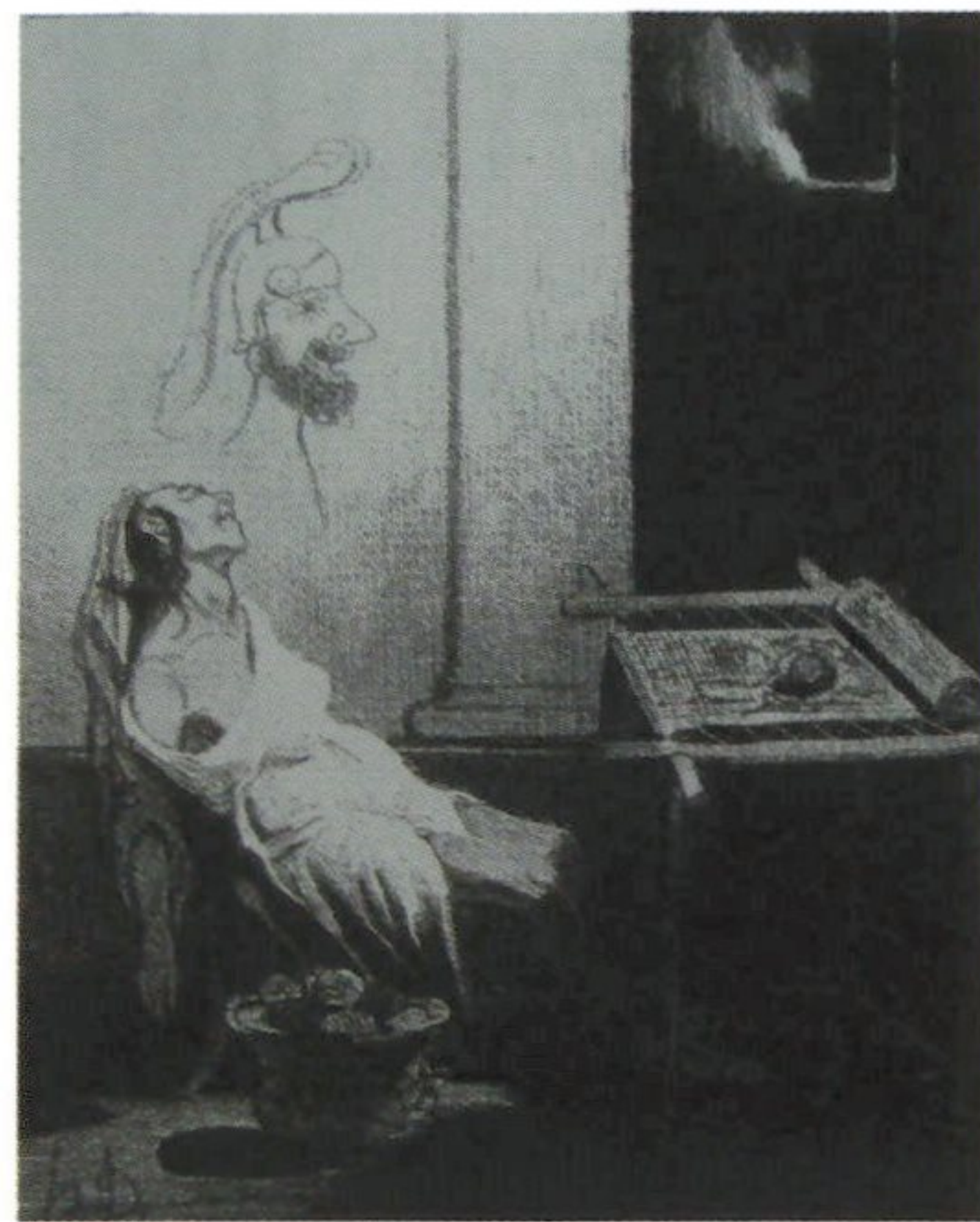
다. 그중 <부부의 생활> <목욕하는 사람들> <파리 정서> <인생의 좋은 날들> <여성주의자> <셋방 사람과 집주인> <잘난 체하는 여인들> 등의 시리즈는 인기리에 연재되어 이른 아침 신문 구독자들의 애환을 달렸다.

주요작품으로는 <공화국> <3등 열차> <수프> <돈키호테의 연작들> 등을 들 수 있으며,

신랄하게 배금주의를 비판한 사기꾼 <로베르 마케르 101 이야기>는 그의 대표적 석판화로 국왕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그리고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변호사를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으로 그렸는데, 자신의 사환시절과 투옥의 경험이 바탕이 된 법률가를 소재로 한 석판화 시리즈(39점)는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다.

사실 석판화는 작가의 그림을 다시 판으로 만들어야 하는 동판화, 목판화와는 달리 작가가 직접 석판에 그려 바로 인쇄로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이 신문의 속보성과 가장 잘 들어맞았으며, 동판화에 비해 재료비가 싸고 큰판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삽화를 장기 연재될 수 있게 했다.

도미에는 삽화 이외에 큰 석판화를 제작하여 수집가나 미술관의 관심을 끌었으며, 삽화에도 작품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그림만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따로 설명문을 넣지 않았다. 연필이나 목탄으로 그린 것 같은 그만의 독특한 석판화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들레르는 그의 에세이에서 “예술가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실제세



페넬로페의 밤, 석판화, 1842. (페넬로페:오디세우스의 아내)

계를 장식이나 군더더기 없이 그려내는 도미에야말로 모던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도미에는 평생 가난에 찌들었다. 언제나 돈을 빌리고, 못 갚아 압류를 당하기를 반복했으며, 그의 화실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북적되었지만 그가 인정받고 싶어했던 화단은 냉담했다.

어했던 화단은 냉담했다.

62세(1870년)에 좌익계 파리 코뮌의 일원이 되었으며, 인상주의 기법을 창안해 마네, 모네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자신은 새로운 미학을 적용하는데 소홀하였다. 1878년 위고를 비롯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개인전이 열려, ‘도미에 회화에 대한 발견’이 당시 비평에서 다루어지면서 저널리스트로서가 아닌 고야, 렘브란트 같은 위대한 화가로서 평가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망 100주년을 계기로 현대에 와서 새로운 미술사적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미에!

“사람들이여 위대한 예술가이자 위대한 시민, 선인(善人) 도미에 여기에 잠들다”라는 그의 묘비명은 격동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의 다각적 삶을 최고의 호소력으로 표현한 완성도 높은 그의 작품과 삶을 대변하고 있다.



<카리카튀르>지 기고만평 1839 청력/향기를 맡다/관측/손대다/남편은 큰소리로 읽고, 아내는 저음으로

## 멕시코 II

# 볼레로(Bolero)와 란체라(Ranchera)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볼레로(Bolero)’는 멕시코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낭만적으로 표현된 음악이다. 볼레로는 멕시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음악이며, 사랑의 기쁨과 슬픔 외에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라틴 볼레로의 시작은 쿠바에서였다. 유럽의 춤곡이었던 볼레로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쿠바로 전해졌지만,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으로 리듬과 양식이 바뀌면서 전혀 새로운 음악으로 변모했다. 그것이 멕시코로 전해져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멕시코의 볼레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쿠바의 볼레로가 리듬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멕시코의 볼레로는 멜로디에 강한 멕시코 사람들에 의해 보다 선율적이고 낭만적인 매력을 지니게 되었다. 전통적인 색채를 지닌 쿠바와 멕시코의 다른 음악들과 비교하면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어 ‘라틴권의 발라드 음악’으로 이해해도 무방한 대중적인 스타일의 음악이다. 이 음악이 멕시코에서는 국민 작곡가로 불리는 아구스틴 라라(Augustin Lara)나 베사메무초의 작곡가인 콘수엘로 벨라스게스(Consuelo Velasquez), 그리고 아르만도 만싸네로(Armando Manzanero) 등 뛰어난 작곡가들에 의해 가장 중요한 대중음악으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5, 60년대를 지나는 동안에는 로스 판초스를 비롯한 남성 트리오 그룹들에 의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멕시코 사람들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음악으로 ‘란체라(Ranchera)’를 들 수 있다. 낭만적이고 밝은 감성을 지닌 다른 음악들과는 달리 란체라는 향수와 염세적인 감성이 지배하는 음악이다. 농민의 춤곡에서 비롯된 민속음악의 하나인 란체라는 볼레로와는 다른 감성으로 사랑의 아픔과 향수를 담고 있다. 주로 고달픈 인생과 외로움, 사랑의 배신 등을 노래하는데 마치 포르투갈의 파두처럼 감정의 밑바닥까지 쏟아내며 노래하는 음악으로 마지막 음을 길

게 끌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다 실제로 가수의 흐느낌이 노래에 담기기도 한다. 란체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수가



멕시코 음악계의 전설적인 인물 차벨라 바르가스(Chavela Vargas)다. 멕시코의 여류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인생을 담아 낸 영화 ‘Frida’를 본 사람이라면, 스크린 속에 등장했던 백발의 늙은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그가 바로 차벨라 바르가스이다. 그는 1919년 생으로 이제 90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음반과 무대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멕시코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차벨라 바르가스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굵고 거친 목소리로 인생의 회한과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다. 50년대 초반 서른이 넘은 나이에 노래를 시작한 그는 란체라 음악의 거장인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Jose Alfredo Jimenez)와 순회공연을 이어가며 60년대에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커다란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엄청난 양의 술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며 음악계를 떠나 있기도 했었지만, 90년대 초반 다시 음반을 발표하면서 고령의 나이에도 특유의 절절한 창법으로 감동을 전해오고 있다. 깊게 가라앉은 듯한 중성적인 그의 목소리는 우울함에 찌든 절망감으로 때론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흐느끼는 듯한 울부짖음으로 비장한 감성을 드러내며 그 어떤 가수의 노래보다도 강렬한 호소력으로 다가 온다. 워낙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 팝음악 속에서 많은 부분을 접했던 멕시코의 음악. 하지만 차벨라 바르가스의 노래만큼은 장르에 대한 기호를 떠나 특별한 감동을 만날 수 있는 음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나이를 잊게 하는 뜨거운 예술열정 부산실버예술단



숨겨진 끼를 펼치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들, 전국 최초로 탄생된 부산실버예술단에는 나이를 잊고 사는 어르신 200여명의 뜨거운 예술열정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실버예술단은 지난 2005년 5월 창단기념공연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실버예술단 탄생에는 지금 단장으로 있는 황영근 씨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부산비둘기노인대학을 오랫동안 이끌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그는 평소 예술활동이야말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그 즐거움을 우리이웃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뜻을 같이하는 주위사람들과 의기투합해 부산실버예술단을 만들었다.

현재 부산실버예술단에는 60대 이상 어르신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7, 80대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도 그 열정만큼은 20대 청년 못지않다. 그들의 숨겨진 끼도 다양해 합창과 전통무용, 스포츠댄스, 아코디언 연주, 가야금병창 등 분야가 다양하기만 하다.

부산실버예술단은 창단 후 지금까지 120여차례가 넘는 무대에 서왔다. 지난 2007년부터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지하철 연산역과 서면역에서 정기적으로 '지하철 예술무대'에 오르고 있다. 3년째 접어들면서부터는 부산실버예술단을 응원하는 고정팬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공연이 무르익으면 관객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열띤 무대가 펼쳐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재래시장박람회, 실버취업박람회, 자갈치문화관광축제에 서기도 서기도 한 부산실버예술단은 10월에만도 정기연주회(14일)와 지하철 예술무대(15일), 노인예술제(21일), 소망요양병원 방문음악회(31일) 등 공연일정이 뻘뻘하게 잡혀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소망요양병원처럼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현재 부산실버예술단 무용단 회장으로 있는 김귀진 씨(77세)는 동백실버무용단에서 활동하다 부산실버예술단 창단멤버로 활동중이다. 스스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라고 생각하는 그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는 매주 두 번 있는 연습시간도 부족하다며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면 무대에서 내려올 때 가장 뿌듯하다.

70세 넘은 나이에 무용을 시작한 조정자 씨(78세). 부부가 함께 스포츠댄스를 배우다 남편과 사별한 후 고전무용에 새롭게 도전한 조정자 씨는 지금 부산실버예술단 무용단 지도를 맡고 있는 강성례 씨를 만나면서 부산실버예술단과 인연을 맺었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몸도 마음도 젊어져 병원갈 일이 없어졌다는 그는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들이 예술단 활동을 반긴다고.

“우리사회도 어느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깊은데요, 예술활동이야말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상설무대를 열 수 있는 부산실버예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는 황영근 부산실버예술단 단장.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산실버예술단 단원들은 어디든 그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다.(글, 사진/정복엽)

■문의/부산실버예술단 단장 황영근(635-5734, 010-5646-7317)

## 영화와 음악이 있는 즐거운 10월

- 10월 8일~16일 70개국 355편 상영, 제 14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9일~10일 요트경기장 거대 클럽 변신, '다이너마이트 축제'
- 10월 9일 오픈시네마의 절정 '러브 PIFF 파티'
- 10월 10일 1박 2일간의 스탠딩 콘서트 '시네마틱 러브'
- 10월 24일 문정수, 이장호, 강석우 등이 펼치는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남포동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장진 감독, 장동건 주연의 '굿모닝 프레지던트'를 시작으로 70개국 355편의 영화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제 14회 부산영화제는 초청작

과 그 규모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영화매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동안 새로운 아시아영화, 소외된 아시아영화 발굴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올해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방글라데시, 네팔 등 소외된 지역의 수작들과 미래 아시아영화의 주역이 될 새로운 재능을 발굴,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비아시아권의 젊은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소개하며, 비아시아권의 새로운 시네아스트 발굴을 목표로 하는 '플래시 포워드상' 섹션을 신설해 아시아(뉴 커런츠)는 물론 비아시아권 신인 감독 발굴을 위한 경쟁부문을 갖추고 범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 매김해나갈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영화제인 만큼 월드프리미어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역시 144편으로 역대 최다이다. 이중 월드프리미어가 98편(장편 72편, 단편 26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가 46편(장편 41편, 단편 5편)인데 뉴 커런츠 상영작과 플래시 포워드 상영작 전편이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이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각인된 대통령과 정치에 대한 우화이자 기존의 한국영화가 다루지 못했던 영역을 사뭇히 뛰어넘을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막작으로는 첸 쿠오푸, 가오 천수가 공동 감독한 전쟁 심리 스릴러 '바람의 소리'가 선정되었다.

해외 유명 영화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도 부산국제영화제의 매력. 이번 영화제에는 뉴 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장 자크 베넥스 감독을 비롯해 '작전명 발키리'의 브라이언 싱어 감독, '피시 탱크'의 안드레아 아넬드 감독, 정치영화 'Z'로 유명한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등이 영화제 기간 중 부산을 찾고 갈라 프리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된 '나는 비와 함께 간다'의 트란 안 흥 감독과 할리우드 스타 조시 하트넷, 한국계 미국 여배우 문 블러드굿, 영국 여배우 킬다 스윈튼 등이 PIFF의 레드카펫을 밟는다. 부산영화제 단골손님인 중국의 지아장커 감독,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 홍콩의 프루트 첸 감독, 일본 배우 겸 감독 야쿠쇼 고지, 한국계 중국 록 가수 최건 등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다양한 음악이벤트도 펼쳐지는데 이번

영화제 기간 중 개, 폐막식을 제외한 7일 동안 부산국제영화제의 야외 상영장에서는 오픈시네마 상영 전에 다양한 컨셉의 공연들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온 가족이 함께 10월 가을 하늘 별빛을 바라보며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영화와 음악의 만남인 '시네마틱 러브'는 지난 일년의 공백을 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관객과 게스트가 자유로운 형식의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에서 유일한 관객 중심의 파티로 오픈시네마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난 10월 24일에는 1996년 부산시장 재임 당시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든 것을 인연으로 영화 사랑을 펼쳐온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2003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 음악을 선사해온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영화인들을 초청, 영화를



돋보이게 하는 영화음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올해는 2003년 첫 무대부터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 무대를 빛내준 이장호 감독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두언, 탤런트 이덕화, 영화배우 강석우, 가수 전영록,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 소프라노 배수진 등이 주옥같은 영화음악들을 들려준다.

## 문정수 전 부산시장,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 개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에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열정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시장 재직시절인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든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2003년부터 그의 영화 사랑을 담은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를 기획, 매년 가을 부산시민들에게 영화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문정수 전 부산시장의 영화사랑은 칠순의 나이에도 식을 줄 모른다.

공연기획에서부터 섭외, 사회, 노래, 1인 4역을 맡아 주위를 놀라게 하는 문정수 전 시장은 구수한 진행과 뛰어난 노래로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에게 매년 큰 박수를 받아왔다. 지난해 세 번째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에서는 좌석을 잡지 못한 관객들이 통로에 앉았을 정도를 열기가 대단했다.

"1996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해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부산시민들이 단순한 영화 사랑에 그치지 않고 영화음악, 영화미술,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함께 즐긴다면 부산이 문화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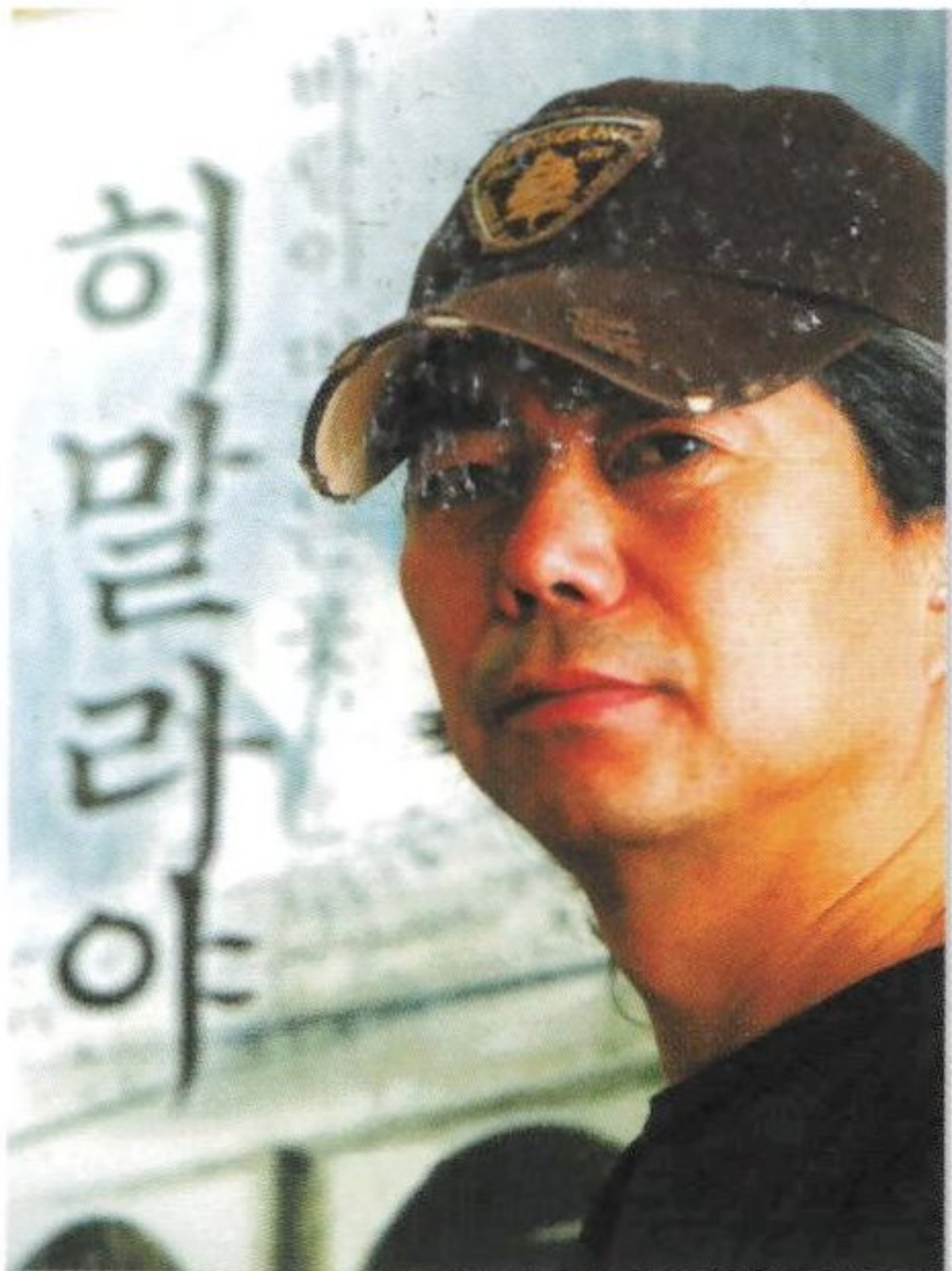
지난해 공연에서 '문 리버'(Moon River) '오템 리브즈'(Autumn leaves) '마이 웨이'(My way)를 열창한 문정수 전 시장은 올해 음악회에서는 영화 '모정'의 주제가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하고 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영화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주제곡인 '문 리버'가 널리 불려지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오랜 여운을 줍니다. 영화는 영화음악을 살리고, 영화음악은 영화를 살리는 것이지요."

영화음악뿐 아니라 시나리오, 의상, 필름, 촬영, 그래픽작업 등 영화 관련 모든 예술을 상품화해야 부산이 진정한 영성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은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를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 전수일, 그의 영화가 머무는 곳

김희진 \_ 영화감독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전수일 감독의 여섯 번째 영화이자 배우 최민식이 4년의 공백을 깨고 출연한 작품이다. 영화는 삭막하고 바람만이 불어오는 히말라야 고원 지대를 찾아 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대기발령을 받은 주인공은 동생 공장에 근무하다 죽은 네팔 노동자의 유골함을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네팔로 향한다. 히말라야를 오르기 시작하자 그에겐 고산증이 찾아오고

막상 마주한 네팔 노동자 가족에겐 그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다. 네팔인들과의 생활이 시작되고 그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에 동화되어 가던 중 백마 한 마리를 찾아가던 그는 사고를 당한다. 다행히 네팔 여인의 보살핌으로 기력을 회복하지만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부인의 망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히말라야로부터 되돌아온다.

전수일 감독의 영화는 일종의 로드무비로 분류할 수 있다. 그의 모든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은 길을 걷거나 어딘가로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옛 연인의 흔적 또는 기억을 찾아 배회하는 〈내 안에 우는 바람〉, 여자 친구의 약혼자 행세를 해주기 위해 떠난 여행의 과정이 중심에 놓인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 자살 안내인에게 죽음을 의뢰한 이들의 여행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속초에서 자신의 옛 고향집을 찾아 헤매는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탄광 소녀가 탄광 지역을 배회하는 이미지로 가득한 〈검은 땅의 소녀와〉, 그리고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에선 히말라야로 주인공을 데려간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여행은 그의 거주지(부산)를 배회하거나 또는 고향을 찾아가거나(속초),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찾아 온 여행의 경로(강원도/산악 지역)를 반복적으로 오간다. 각 작품의 세부를 살펴보면 여행지는 더 많아지지만 특히 위의 세 곳은 그의 작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 일단 이 장소들은 전수일 감독의 개인적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속초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그의 이력과 실향민 가족인 그가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강원도의 흔적들, 그리고 파리에서 유학한 그의 경력으로 비롯되는 외로움과 우수 등 감독의 개인적 성향이 영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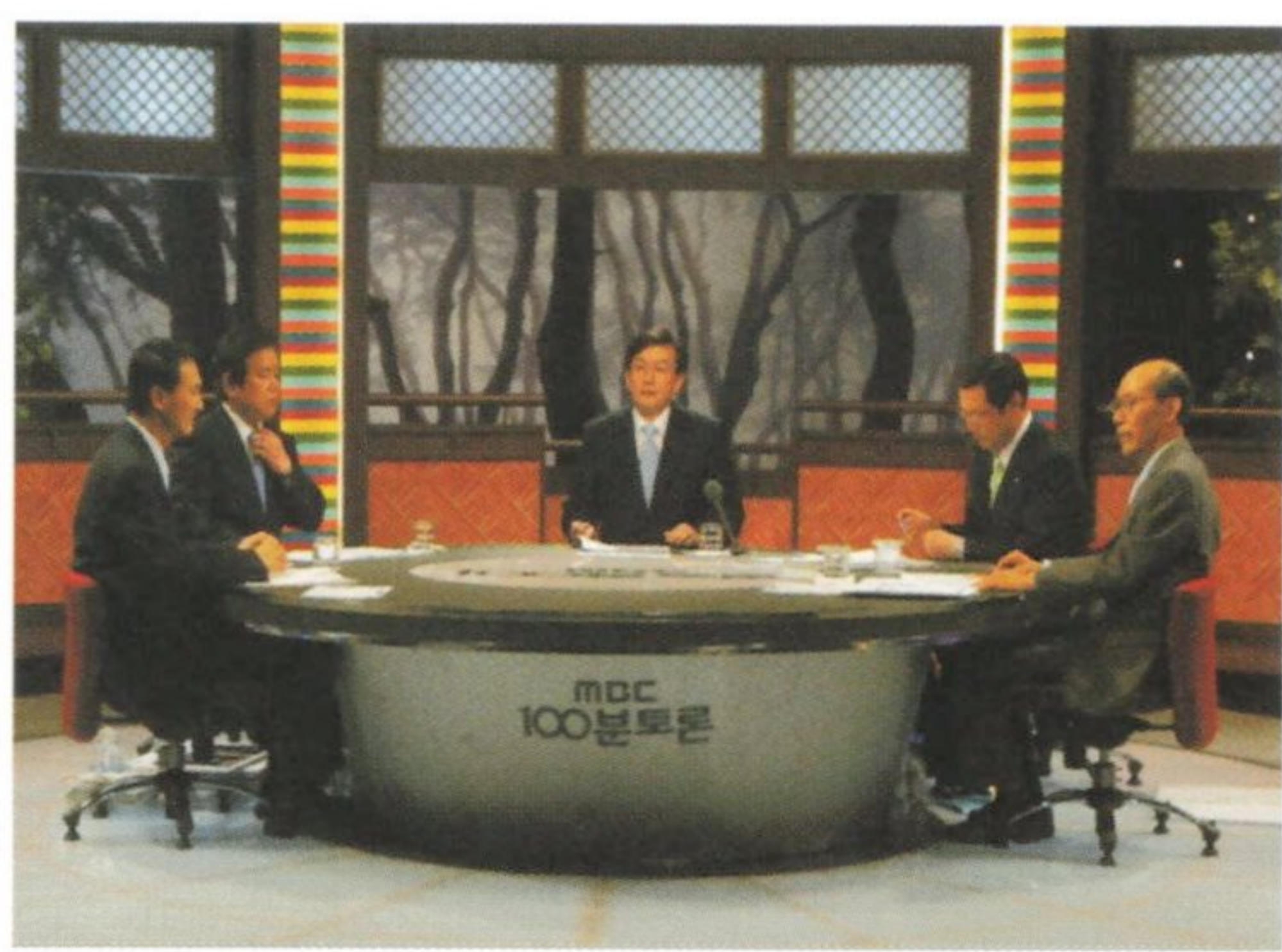
특히 그의 영화에서 반복되어 보여지는 물과 눈, 그리고 폐허의 이미지는 모든 영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계절인 겨울의 차가움과 함께 결빙되어 보여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현실 속에서 외롭고 방황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들은 근원적인 이미지인 물과 눈(또는 얼음)의 공간을 배회하며 자신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갈등을 겪는다. 더불어 탄광 또는 공장, 길거리의 냉마 일과 같은 밑바닥 노동의 현장과 함께 있다. 결국 영화 속 주인공은 스스로 침잠된 의식을 가지면서 밑바닥 삶 속에 위치 지어져서 자신의 처지를 물과 눈의 이미지로 상징화 한다.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 역시 이런 이미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전수일 감독의 영화는 현대 대중에게 그리 녹록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일단 등장인물들의 부유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 역시 낯설고 친근하지 않다. 그는 영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한 측면, 이를테면 마음이 공허하고 분명한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의 상황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 이야기 보다 이미지가 중심에 놓인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의 영화가 만약 히말라야의 산봉우리를 넘어 영혼을 치유하는 바람이 머무는 곳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면 그가 제시하는 인물과 공간, 그리고 이미지가 지금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적 삶의 한 부분이 아닐지 사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수일 감독이 영화를 통해 삶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대신 그는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위안을 받기 보단 스크린 저 너머의 바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도록 종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객은 아직 그의 영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지역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남 인 용 \_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지역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제작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부산 지역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여론형성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부산 KBS의 '일요진단(일, 아침 8시 10분-9시)' 과 부산 MBC의 '시사포커스(일요일, 아침 8시 10분-9시 25분)' 는 일요일 아침시간에 방영되고 있다. 방송시간대가 중복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반면, 서울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KBS1의 '생방송 심야토론(토요일, 밤 11시 10분-12시 50분)', MBC의 '100분 토론(목요일, 밤 12시 10분-1시 50분)', SBS의 '시사토론(금요일, 밤 12시 5분-1시 35분)' 은 심야 시간에 방영된다. 서로 다른 요일에 방송되어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시청자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여론형성 기능이 미약한 이유는 방송시간 때문만이 아니다. 부산 지역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논쟁의 여지가 적은 주제에 대해 토론자들이 각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상호 공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부산 KBS1 '일요진단' 의 '수도권 환자유출, 막을 수 없나?(9월 13일)' 와 부산 MBC '시사포커스' 의 '잊혀진 땅, 간도 되찾기 운동(9월 13일)' 은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좋은 주제이다. 서울의 경우 MBC '100분 토론' 의 주제는 '친서민정책, 효과 있나?(9월 10일)', SBS '시사토론' 의 주제는 '2PM 박재범, 인터넷

여론재판 논란(9월 11일)', KBS1 '생방송 심야토론' 의 주제는 '세종시 논란, 해법은 없나?(9월 12일)' 등으로 논쟁이 뜨거운 주제들이었다.

물론 서울 지역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흥미진진한 가장 큰 이유는 토론자들이 대개 특정 정당 소속이거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인 대결구도를 띠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를 눈앞에 둔 이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명실상부한 정치적인 대결구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여론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 세력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MBC '100분토론' 의 손석희와 같은 스타 진행자와 토론자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말솜씨 또한 경쟁력의 한 요인이다. 부산 지역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알려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토론자들은 대학의 강의처럼 장시간 혼자 발언함으로써 주제의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되어 화면의 움직임이 없고 토론을 단순하게 중계하는 형식이어서 지루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원 개인이 갖는 문제라기보다 지역방송의 미비한 제작여건 때문에 발생한다. 지역방송의 시설개선과 인력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이 필요하다. '먼 데 무당이 용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 인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부산이라고 손석희 같은 스타 진행자가 될 자원이 없겠는가? 스타 진행자를 키워내기 위한 방송사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각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 민족문학의 큰별 요산 김정환 선생을 기리는 요산문학관



평생을 대쪽같은 지조와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민족문학의 큰별’ 요산 김정환 선생. 선생의 치열했던 삶과 문학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산문학관이다.

지난 2006년 11월 개관한 요산문학관은 선생이 태어나 스무해가 넘도록 살았던 남산동 생가 옆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요산문학관에는 요산 선생의 유품이 전시

된 전시실과 도서관, 관람객을 위한 북카페, 다목적홀, 창작실 등이 들어서있다.

생가를 가로질러 문학관 앞에 서면 요산 선생의 흉상이 관람객들을 먼저 맞는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요산 선생의 이 흉상은 지난해



10월 요산 김정환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요산기념사업회와 지역 문인들이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문학관 2층에 자리한 전시실에는 요산 선생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선생의 육필원고와 소설집, 평론집, 수필, 시집 등 각종 작품집과 평소 선생이 즐겨 읽던 책과 사진, 그리고 생전의 모습과 육성이 담긴 동영상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특히 작품을 위해 직접 만든 사투리 한글사전과 산과 들의 나무, 꽃 이름을 직접 정리해 그린 식물도감 등은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중요한 자료로, 항상 성실한 관찰과 조사, 과학적 태도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빈틈없는 문장을 구사했던 선생의 생전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전시실 입구 벽면에는 요산 선생의 생애를 년도별로 정리한 연보와 사진이 걸려 있다. 맞은편 벽면에는 선생의 주요 작품과 그 작품 속 배경이 된 지역이 화보로 꾸며져 있다. 가난한 삶의 고통을 그려낸 ‘사하촌’의 배경이 된 범어사와 ‘모래톱 이야기’의 낙동강, ‘수라도’의 주무대였던 양산군 원동면 화제리 전경을 통해 작품 속 주요장면을 생생히 떠올려 볼 수도 있다.

전시실 바로 옆에는 13,000여권의 장서가 비치된 도서관이 자리해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 작가들과 출판사가 간행한 작품들은 별도로 특별코너를 마련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고 있는데,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와 부산, 경남지역 작가들의 작품은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문학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통유리로 시야가 탁 트인 문학관 1층 북카페에서도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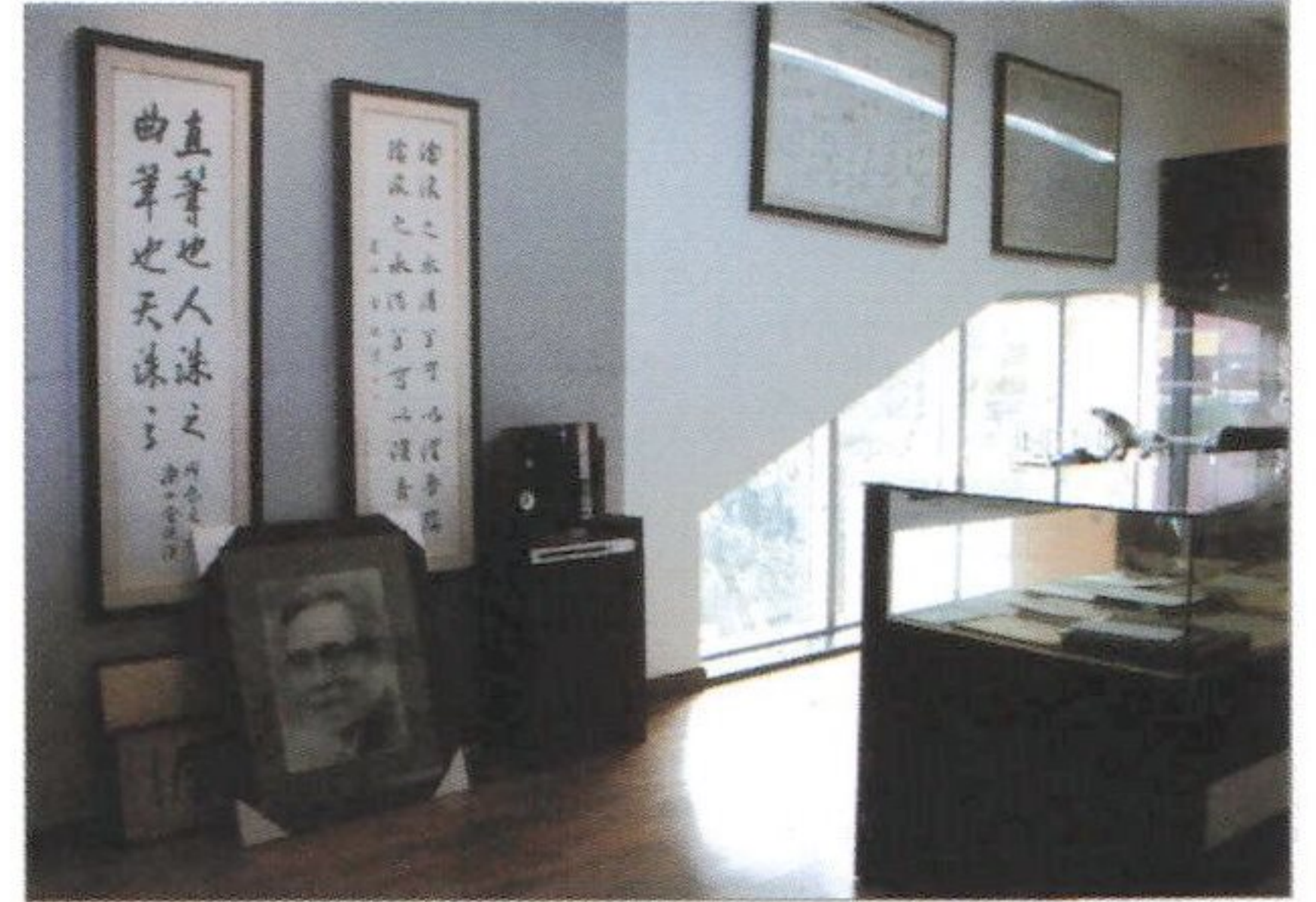
3층에 자리한 창작실은 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가에 마련된 집필실까지 총 12곳의 창작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냉난방시설과 취사, 취침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 곳을 이용하는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지하 1층에는 100여 좌석과 음향, 조명시설이 갖춰진 강당이 있어 지역예술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행사 및 강연회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다.

문학관 옆에 자리한 요산생가는 지난 2003년 6월 복원된 부산 유일의 문학인 생가로, 문학관 건립 이전부터 선생의 자취를 찾고자 하는 문인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잦았다. 이 곳에는 요산 선생의 사촌동생인 김재환 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집안에 전해져오는 선생에 대한 생생한 일화도 들을 수 있다.

요산문학관에서는 그동안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문학강좌, 청소년문예창작교실, 요산문학기행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져왔다. 10월에는 요산 김정한 선생을 기리는 요산문학제가 요산문학관과 생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2009 요산문학제는 '요산정신,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10월 30일 요산문학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요산문학제 기념콘서트(10월 31일), 요산문학기행(11월 1일), 요산 시화전 및 사진전(11월 2일-7일), 청소년, 시민백일장(11월 7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상인 요산문학상 시상 외에도 재능있는 작가를 선정, 요산창작기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글, 사진/정복엽)



■ 관람시간/매주 월~화요일 오전 9:00~오후 6:00(단, 11월~2월은 오후 5:00까지, 월·공휴일 휴관)

■ 입장료/무료

■ 문의/요산문학관(515-1655, www.yosan.co.kr)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테너 곽성섭 독창회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태리 국립음악원을 만점졸업하고 귀국, 마에스트로 곽승과 20여회 협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고음 성악가 곽성섭의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과 음역이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오페라 라 파보리타의 'Spinto gentil'를 비롯해 벨리니 '청교도' 중 'A te o cara', 롯시니 '스타뱃 마터' 중 'Cujus Animam', 한국민요 등을 들려준다.

· 반주/최여진

· 반주/최여진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곽성섭(010-2655-6105)

##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음악회 코람데오 솔리스트 '셀렉트 하이든'

10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출신 음악인들로 구성된 코람데오 솔리스트가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기념, 하이든의 명곡으로 꾸미는 무대.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빈 고전파의 황금시대를 이룩

한 하이든은 108곡의 교향곡, 84곡의 4중주곡, 4개의 오라토리오, 34개의 가곡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

### 프로그램

하이든/사계 HobX XI:3 '시몬의 아리아' '한네의 아리아' '루카스의 아리아', 플루트협주곡, 천지창조 HobX XI:2 '가브리엘의 아리아' '우리엘의 아리아' 등 수곡

- 지휘/박성은 · 연주/부산시티오케스트라
- 소프라노/공경자, 김수현, 김현주
- 테너/이승우, 조윤환 · 베이스/김태영
- 특별출연/강혜덕(피아노), 허종영(바리톤), 정성찬(플루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코람데오 솔리스트(866-3919)

## YMCA오페라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애 가락과 선율의 특별한 만남

10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난 5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YMCA오페라합창단이 YMCA 창립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09 웰빙 콘서트 시리즈 IV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해 오전 시간에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2009 피날레 무대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2010 말러 탄생 150주년, 2011년 말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국내 최고의 말러 권위자 김문경의 해설과 영상, 자료를 곁들여 작곡가 말러 음악과 삶을 되돌아본다. 공연에 앞서 부산시립극단이 '말러의 여인들'을 콩트로 재현, 말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지휘 이동신

해설 김문경

### 프로그램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작품 492

말러/ '뤼케르트 시에 의한 5편의 가곡' 중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말러/교향곡 제 5번 올림다단조 중 제 3부 제 4악장(아다지에도, 매우 느리게) 알마 말러/5개의 가곡 중 '부드러운 여름 밤' '내 아버지의 정원에서'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해설 및 진행/김문경
- 협연/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조창후, 바리톤 강경원, 클라리넷 정우영
- 특별출연/부산시립극단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Don Quixote)'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고전 발레 가운데 가장 유쾌한 발레로 손꼽히는 '돈키호테' 부산무대.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원작소설로 1869년 볼쇼이극장에서 세계 초연된 이래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다.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의 결혼 해프닝을 둘러싼 유쾌한 희극발레로 소설의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발레에서는 두 주인공의 결혼을 도와주는 조연으로 나온다.

- 음악/루드비히 민쿠스
- 안무/마리우스 프티파, 알렉산더 고르스키,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로스티슬라프 자하로프
- 연출/나탈리아 스피치나
- 무대/알렉세이 포포프

※ 주역커플 황혜민, 엄재용(10월 9일) | 강예나, 이현준(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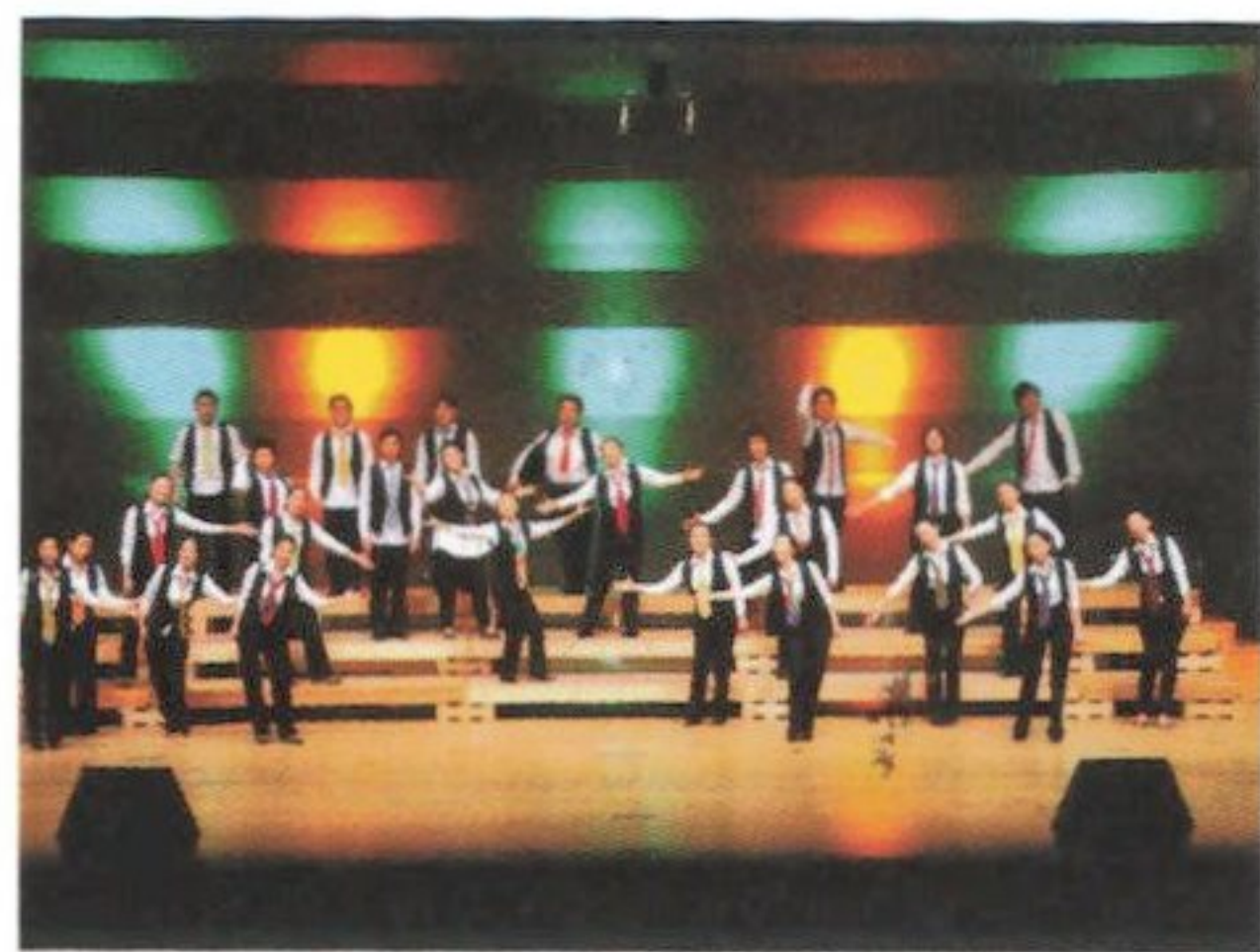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64주년을 기념, 회원들과 함께하는 제 1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김명규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서덕출 시인의 5편의 동요에 의한 합창모음곡을 시작으로 우리의 가락을 멋들어지게 표현한 한국민요축전, 우리 귀에 익숙한 러시아음악 등을 들려준다.

· 지휘/김명규 · 소프라노/김현숙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현욱(010-8368-2445)

## 부산원로음악가회 제 11회 원로음악회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음악계를 이끌어온 원로음악인들로 구성된 부산원로음악가회 회원들과 후배 음악인들이 들려주는 제 11회 원로음악회.

원로음악가회 회원인 작곡가 김국진, 김종태, 테너 박형태, 소프라노 김문희, 피아니스트 고정화가 후배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갖는다.

### 프로그램

김종태/가을의 길목에서, 해운대

모차르트/바순콘체트로 내림나장조

김국진/피아노를 위한 담시곡 중 '승무' 작품 311 등 수곡

### 연주

밀레니엄 현악 4중주(바이올린 이미하, 정덕원, 비올라 구영숙, 첼로 김희은), 고정화, 유영욱, 이현주, 김혜원(이상 피아노), 김문희, 신용희(이상 소프라노), 김동욱(바이올린), 박형태(테너)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원로음악가회(808-0366, 010-2705-0366)

## 김정원의 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춤소리 예술단 악(樂)과 소리(哥)가 함께 하는 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특별연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 음악인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신포니에타,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 120여명으로 편성된 연합오케스트라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가 들려주는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2005년 5월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지휘, 격정적이면서도 부드럽고, 화려하면서도 정확한 음악을 표현하는 지휘자로 격찬 받은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고 1969년 주빈메타가 지휘한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데뷔한 후 루돌프 캠페, 안달 도라티, 줄리니 등의 명 지휘자들과의 협연으로 정상의 첼리스트로서의 위치를 다져온 첼리스트 정명화가 협연한다.

### 프로그램

번스타인/칸디드 서곡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정명화(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관람료 무료

■ 문의 KNN(1577-7600)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토스카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페라 콘서트 '토스카'.

연극적 장치를 배제한 오페라 전곡을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한 이번 무대는 적은 비용으로 오페라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날 '라보엠', '나비 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널리 공연되고 있는 '토스카'는 1890년 경 밀라노에서 프랑스 작가 사르두가 쓴 5막 희극을 본 푸치니가 오페라화 할 것을 결심하여 자코자와 일리카에게 대본을 의뢰하여 완성한 3막 오페라이다.

· 지휘 및 연출/리 신차오

· 고문/김덕기

· 오페라 코치/정금련

· 소프라노/김유섬(토스카, 창원대학교 교수), 이지애(목동, 동래초등학교 3학년)

· 테너/전병호(카바라도시), 강은태(스플레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바리톤/우주호(스카르피아), 박기국(안젤로티), 김태우(샤로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베이스/함석현(성당지기), 구명금(간수,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합창/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동래초등학교 성악부(지도/김희정)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전국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고 춤소리예술단 대표로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김정원과 춤소리예술단이 펼치는 우리 춤 한마당.

**프로그램**

- 1장 무(巫)-살풀이, 무당춤, 지전춤, 신칼대신무
- 2장 무(舞)-승무, 태평무, 동래학춤, 진주교방굿거리춤
- 3장 무(無)-판소리, 장구춤, 진도북춤, 소고춤
- 특별출연/김진홍(부산시무형문화재 14호 준보유자), 유금선(부산시무형문화재 제 3호보유자), 이성훈(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보유자 후보), 김태형(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보유자 후보)

**연주**

박종호(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중고제 수궁가 전수조교), 최성진(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강봉천(장고), 이성준(대금), 이재혁(피리), 배린(아쟁), 신재현(아쟁), 오은영(가야금), 최의철(타악)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 의 김정원(017-567-8071)

## 최은주 피아노 독주회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 고등음악원 피아노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해온 피아니스트 최은주 독주회.

최은주는 무지카 비바트리오 멤버, 오퍼스앙상블 리더,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 스크리아빈/소나타 작품 6 제 1번
- 쇼팽/발라드 작품 52
-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작품 14 제 2번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최은주(011-592-5697)

## 2009 대학합창 페스티벌

10월 12일-13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들려주는 2009 대학합창페스티벌로 올해는 동아대학교와 신라대학교에 재학중인 음악도들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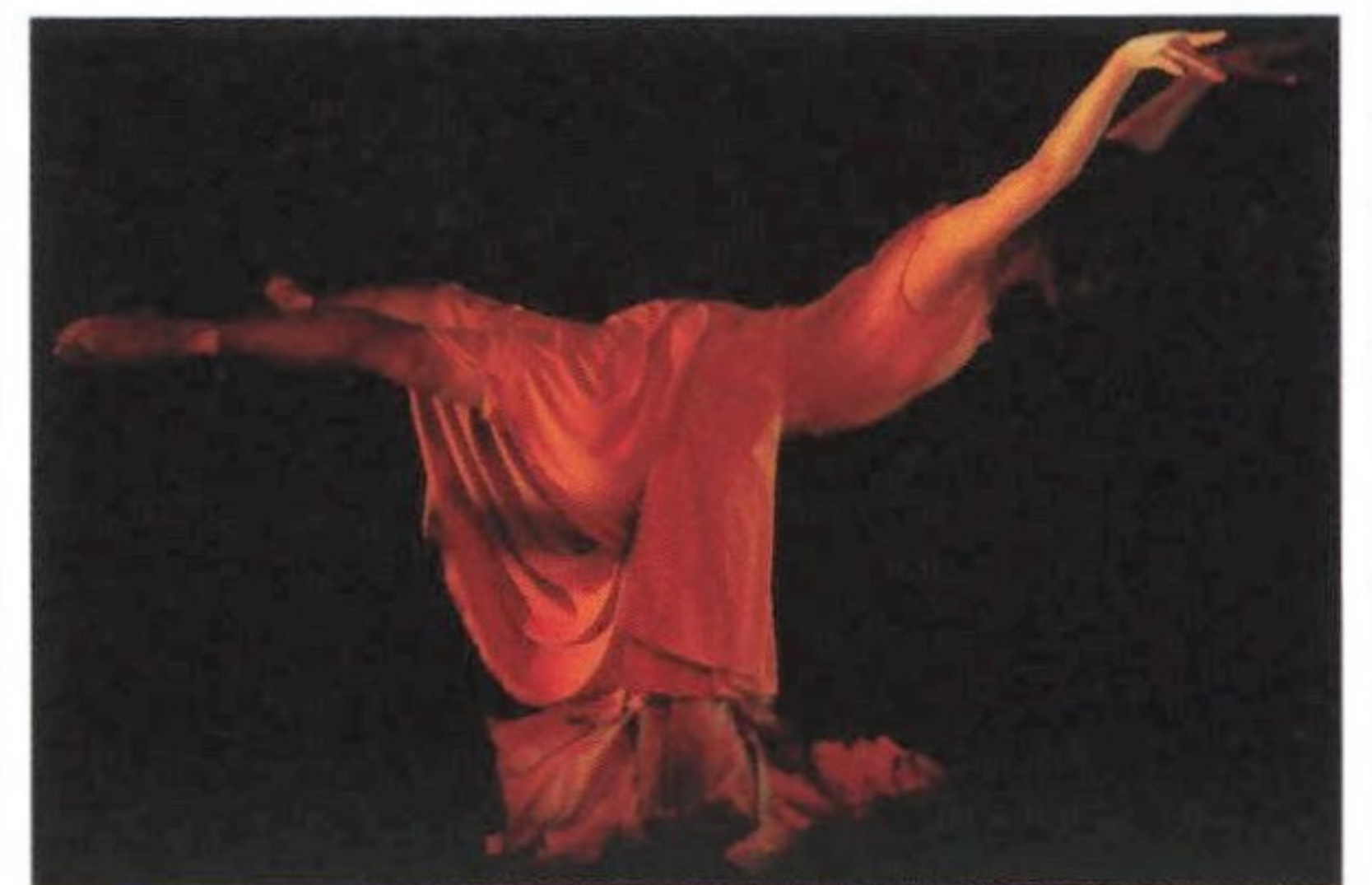
12일(월) 동아대학교(지휘/ 김명규)

## 2009 김옥련 창작발레 이상의 '날개'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대극장

자신의 문학작품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작가 이상의 대표작을 발레 무대로 옮긴 2009 김옥련 창작발레 이상 '날개'.

한 인간의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된 암울한 일상을 그린 '날개'는 아무런 희망도 비판적 자각도 없는 무기력한 주인공과 좁은 방으로 표상 되는 비정상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발레라는 장르를 빌어 표현해 낸다.



유니버설 발레단 단원, 루마니아 국립발레단 객원단원, 크루즈오페라발레단 객원단원, 키로프발레단 단원, 국립발레단 수석단원을 거쳐 현재 <이원국 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출신의 발레리노 이원국이 오랜만에 부산 발레 애호가들과 만난다.

- 안무/김옥련 · 연출·대본/유상홍
- 음악/박철홍 · 영상/김상화, 이상구
- 조연출/이동용 · 무대미술/황경호

**출연**

이원국, 김옥련, 이동용, 이세진, 안유리, 최연순, 이용진, 김부영, 김수현, 강동환, 김유진, 조은비, 문혜지, 이인화, 남형호, 이진희(낭송), 강성우(낭송), 송용창(아코디언 연주)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 문 의 김옥련발레단(626-9486)

## 2009 이사오 사사키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 9 WITH YOU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애잔하고 서정적인 선율, 도회적이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사오 사사키 전국투어 콘서트 'WITH YOU'.

이사오 사사키는 세 살 때부터 바이올린, 플루트, 기타 등의 클래식 교육을 받고 19세 때부터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시작하여 안스쿨을 거쳐 프리랜서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던 중 1978년 부터 재즈 본고장 뉴욕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1년 3월 첫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10회가 넘는 내한공연을 매년 성황리에 마친 이사오 사사키는 클래식과 재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피아노로 나타낼 수 있는 섬세한 터치와 다양한 표현력과 바이올린, 얼후, 베이스, 퍼커션 등을 잘 활용한 서정적이고 로맨틱한 음악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무대는 최근 단편영화 연출, 소설 출간, 전시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선보인 연기자 구혜선이 팬과 아티스트의 사이를 넘어 사제지간으로 함께 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Sky Walker, Moon River, Sweet Breeze, A letter of song, 별, 오빠생각, 반달, 과수원길, 아름다운 만남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A석 33,000원
- 문 의 스톱프 뮤직(02-2658-3546, www.stompmusic.com)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김기영(편곡)/서덕출시인의 다섯편의 동요에 의한 합창모음곡 눈꽃송이  
한국민요/한강수타령, 경북궁타령 등

13일(화) 신라대학교(지휘/ 박광하)

하이든/천지창조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제 20회 대학무용제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지역 대학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제 20회 대학무용제.

부산대학교의 '校舞'의 의미를 담은 'PNU, the Premier!'를 비롯해 생명의 흔적 그루터기에 대한 단상 동아대학교 '그루터기로부터', '라 바야데르' 중 2막 솔라와 감자띠의 결혼식 장면 등 다양한 군무를 재구성한 경성대학교의 'La Bayadère', 카르멘의 매력과 정열을 이미지화한 부산대학교 'The way of Carmen', '찰나'에 대한 단상을 춤으로 표현해낸 신라대학교 '찰나 刹那... a moment' 등이 펼쳐진다.

13일 부산문화회관 공연에 이어 16일(금) 오후 4:00 신라대학교(공학관 101호)에서 '무용예술을 위한 안무 구성 탐구'를 주제로한 심포지움이 함께 열린다.

작품

### ■ 부산대학교 'PNU, the Premier!'

· 안무/주수광(부산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부산발레연구회 대표)  
· 출연/김정숙, 소정민, 윤은정, 박종위, 김한나, 노옥미, 백향은, 손금희, 송지혜, 임정인, 홍상은, 강수민, 김경민, 김민지, 윤희진 외

### ■ 동아대학교 '그루터기로부터'

· 안무/김은이(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짓무용단 예술감독)  
· 출연/박연정, 이해숙, 김나라, 여영민, 최혜리, 박천심, 배소정, 장경복, 권현주, 지미경, 김혜원, 김아영, 류지수, 박희은, 윤소라 외

### ■ 경성대학교 'La Bayadère 2막(결혼식 장면 중에서)'

· 안무/Marius Petipa  
· 재구성/신정희(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그랑발레단 예술감독)  
· 출연/이세진, 최연순, 서지연, 정미경, 백순선, 김유진, 조은비, 김서은, 김수현, 김민지, 김수연, 박소라, 김선혜, 김유리, 문정희 외

### ■ 부산대학교 'The way of Carmen'

· 안무/정귀인(부산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부산현대무용단 단장)

### ■ 신라대학교 '찰나 刹那... a moment'

· 안무/정신혜(신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정신혜무용단 예술감독)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이상영(011-859-5162)

## 부산시립합창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작곡가 김동진, 그 아름다운 음악과 합창을 추억하며...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의 서정을 담은 부산시립합창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강규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무대는 정통적인 합창 텍스트로 알려진 'Pater Noster'를 그레고리오 성가, O. di 랏소, O. 니콜라이, A. 콘솔라 시온 등 다양한 버전으로 듣는 전통합창무대와 지난 7월 타계한 김동진 선생을 그리며 그가 남긴 가고파 전·후편과 '목련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 등을 합창곡으로 재 편곡해 들려준다.

프로그램

Pater Noster(주의 기도)/Pater Noster(Gregorian), Pater Noster(O. di Lasso), Pater Noster(O.Nicolai), Pater Noster(A.D.Consolacion)

영국& 미국합창/로몬드 호수, 여름의 마지막 장미, 잠

우리 창작곡/자갈치의 아침(최석태 곡), 송화강 뱃노래(장상영 곡), 두물머리(백현주 곡)

김동진/수선화, 목련화, 내 마음,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가고파(전, 후편)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협연/이은옥(바이올린), 김판수(첼로) · 반주/이승윤, 이경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3회 정기연주회 및 제 64회 UN의 날 기념음악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6월 취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수석지휘자 리신차오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리 찬원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3회 정기연주회 및 제 64회 UN의 날 기념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리 찬원

은 리신차오가 지휘하는 중국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2006년 미국 투어에 참가, 당시 뉴욕타임스로부터 '최고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 '훌륭한 저녁시간을 선사할 리찬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기회'라는 평을 받았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작품 77

R.슈트라우스/환상 변주곡 '돈 키호테' 작품 35

· 지휘/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바이올린/리 찬원 · 첼로/양욱진(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리찬원

첼로 양욱진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두 번째 무대 '노리플라이'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9월 11일 슈퍼스타 이한철 콘서트를 시작으로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고품격 라이브 쇼 '하늘 아래 그 콘서트'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노리플라이(No Reply).

건반과 보컬의 권순관, 기타와 프로그래밍의 정욱재로 구성된 '노리플라이(No Reply)'는 2006년 제 17회 유재하가요제 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에 등장, 탄탄한 기본기와 남다른 감성을 가진 그룹으로 사랑받고 있다.

컴필레이션음반 '강아지이야기', '남과 여...그리고 이야기'에 참여하고 지난해 싱글 앨범 '고백하는 날'을 발표한 노리플라이는 유려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정규 음반 한 장 없이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난 6월 정규 1집 'ROAD' 발매 후 서울에서 열린 첫 단독 공연은 티켓 오픈 이틀 만에 매진을 기록했고, 8월 '그대 걸던 길'로 싸이월드의 음악 애호가들이 선정하는 '이달의 탐음매니아상'을 역대 최다득표로 수상해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 결혼이민여성들과 부산YWCA합창단이 함께하는 'Sing Sing 아리랑' 합창발표회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합창과 멘토링을 통하여 그동안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해온 부산 YWCA합창단이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해온 그동안의 연습시간을 되돌아보며 가족과 지역사회 친구

들을 위해 들려주는 'Sing Sing 아리랑' 합창발표회.

### 프로그램

사물놀이, 보리피리, 저 달빛이 내 마음이에요(중국노래), 베트남 봉춤, 동영상(YWCA 소개), 백조(발레리나), 축제와 꽃과 아가씨(플라멩고), 헝가리 무곡(발레리노), 시편8편(플룻), 이스라엘아 주님께 의탁하라(사물놀이)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YWCA합창단(441-2225)

## 제 10회 간염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Best of the Best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대한간학회, 글로벌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들려주는 제 10회 간염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0년을 이어진 공연에 대한 애정과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이번 무대는 'Best of the Best' 무대로, 음악감독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비롯해 그동안 '희망콘서트'에서 함께해 온 프랑스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바이용, 지난해 친근하고 활력 넘치는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은 히코타로 아자키가 지휘하는 클래식 플레이어즈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 어느 때 보다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 프로그램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멜로디' 작품42 제 3번,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왈츠-스케르초' 작품 34,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 1번 내림나단조 작품 23, 모음곡 4번 '모차르티아나' 중 '미뉴엣' 등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의 영앤임섬(02-720-3933)



## CBS 창립 50주년 기념 '김동규, 이태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클래식과 팝,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며 최고의 활약을 펼쳐온 김동규, 이태원과 영화 '왕의 남자' OST, 관현악 CCM 앨범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온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CBS 창립 50주년 기념무대.

화려한 입담과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CBS 라디오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진행자로 사랑받고 있는 김동규와 뮤지컬 명성황후, 맘마미아와 대장금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잡은 이태원이 오페라 아리아, 대중적인 재즈, 뮤지컬 넘버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바그너/탄호이저 서곡  
브람스/교향곡 제 4번 마단조 작품 98  
팔보/과파리아  
I've got ryhme, New your New York, Winner takes it all,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Fly me to the moon,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수곡

- 지휘 및 해설/박상현
- 연주/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문의 CBS(636-0050)



김동규

이태원

##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6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7:00 대극장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60주년을 기념, 동아대학교 출신 동문 가족들과 함께 마련하는 창립 6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동아대학교 출신 음악인들로 구성된 동아 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그라나다, 베르디 오페라 모음곡 등 예술음악과 동아대학교 출신 가수 현철, 이상우가 출연, 가요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 총예술감독/박철홍
- 연출/양우석
- 지휘/이동신
- 연주/동아 필 오케스트라
- 성악가/테너 이홍득, 바리톤 박대용 외
- 가수/현철, 이상우 외
- 연주/크로스노트, 챔트리오
- 합창/꿈유빌로합창단 여성단원

■ 관람료 초대

■ 문 의 동아대학교 총동문회(243-4004~5)

##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작곡가 정원상 '부산 연가의 밤'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작곡가 정원상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 음악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해온 소프라노 신정순과 바리톤 고봉수가 들려주는 작곡가 정원상 '부산 연가의 밤'.

신정순은 이태리 Gianni Poggi 장학금 콩쿠르 우승 및 특별상,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 Vigliano Viva 1등상,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 'Citta di Racconigi',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 'Orvieto' 등에 입상한 바 있다. M&M 성악연구회회장,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봉수는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 'Lario in Musica' 1등상, 이태리 국제 성악 콩쿠르 'F. Schubert' (오페라 부문) 3등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사물놀이(정선기 詩), 낙엽(조지훈詩), 고행(심영섭 詩), 물운대(김규태 詩), 을숙도의 봄(김 정자 詩), 사랑은(조병화 詩), 동래야 류(하현식 詩), 오륙도(고두동 詩), 내고향 태종대(김창근詩) 등 수곡

· 피아노/서양지

■ 관람료 초대

■ 문 의 M&M 성악 연구회(010-4434-6605)

##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선욱 초청 제 20회 이견음악회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최고의 호른 연주자 데이비드 졸리, 유럽의 금관 5중주단 하모닉 브라스, 영국의 현악 4중주 그룹 더 스미스 콰르테 등 그 동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외 실력과 뮤지션을 발굴, '이견음악회'를 통해 국내 음악애호가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향연을 선사한 시스템창호 전문기업 이견창호에서 이견음악회 20주년을 기념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선욱 초청연주회.



2004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시니어 부문 1위, 2005년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에 이어 2006년 18세의 나이에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김선욱은 국내파 피아니스트로 2007년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했다.

10월 22일 서울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 순회 연주회를 갖는다.

### 프로그램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48번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6번

쇼팽/ 바르카롤, 피아노 소나타 58번 등 수곡

■ 관람료 초대(초대권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www.eagon.com](http://www.eagon.com)로 신청, 추첨을 통해 배포)

■ 문 의 이견산업(032-760-0385)

## 부산시립극단 제 36회 정기공연 변신-꿈의 기록

10월 30일-11월 1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불확실한 현대인의 삶,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불안한 의식과 구원의 꿈 등을 명료한 언어로 형상화한 카프카의 '변신'을 새롭게 재해석한 부산시립극단 제 36회 정기공연 '변신-꿈의 기록'.

이성과 감성을 넘나들며 부조리한 시선으로 인간의 외로움과 현대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번 무대는 카프카의 '변신'을 1995년 연극 텍스트 '사랑의 힘으로'와 2003년 희곡



'꿈의 기록'으로 각각 재구성한 이윤택의 재구성본과 원작 카프카의 '변신'을 원안으로 연출가 구현철이 파격에 가까운 해석과 독특한 실험정신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 원안/카프카 '변신'
- 재구성, 작/이윤택
- 연출/구현철
- 안무/강희정
- 음악감독/이세호
- 무대미술/백철호
- 조명디자인/김범기

### 출연

유성주(K), 이현주(어머니), 염지선(누이), 이혁우(의사), 김은희(애인), 황창기(매니저), 박찬영(아버지), 이돈희(K2)

■ 관람료 균일 1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 2009 동서커피클래식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처음 열린 아름다운 음악과 커피의 향연 '2009 동서커피클래식' 부산무대.

최승한이 지휘하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알로이시오'의 수석 연주자,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하석배, 바리톤 최중우 등이 오페라 아리아 하이라이트를 들려준다.

· 해설/음악평론가 장일범

- 관람료 초대
- 문 의 (주)크레디아(02-741-1521)  
프레임(02-3210-9604)

## 제 38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0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피아노가 표현하는 다양한 음색, 피아노 듀오의 매력을 전해주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정기연주회.

첫날 장효진, 조혜영, 김은희, 이성애, 장진이, 차미령이 연주하는 솔로 무대에 이어 둘째날에는 임효진과 최민경, 강유민과 이문숙, 김영지와 이진성의 듀오, 배수정, 강지영, 서양지, 정수연 4중주 무대가 마련된다.

21일(수)-Solo의 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K.457

리스트/ '순례의 해' 중에서 '에스트장의 분수'

프로코피예프/피아노 소나타 제 3번 등 수곡

· 연주/장효진, 조혜영, 김은희, 이성애, 장진이, 차미령

22일(목)-Duo의 밤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페트루슈카

아렌스키/실루엣

번스타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 등 수곡

연주

임효진 & 최민경, 강유민 & 이문숙, 김영지 & 이진성,  
배수정 & 강지영 & 서양지 & 정수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한은아(010-3051-4945)

## 크로스오버 국악그룹 我아飛비娛 오 첫 번째 콘서트 'AVIOLIC'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지극히 전통적인 색깔을 지닌 크로스오버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2007년 결성된 크로스오버 국악그룹 '我아飛비娛'의 첫 번째 콘서트 'AVIOLIC'.

2008 제 1회 대학국악제, 2008 21C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입상하고 올해 2009년 제 1회 아트밸리 국악실내악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我아飛비娛는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음악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국악 팀과는 차별화를 두고 한국적인 느낌과 전통의 색깔을 살린 아비오의 자작곡만을 연주하고 있다.

프로그램

낭객, 느낌, 극락같은, 바람이 그림에게 들려주는 노래, 상사회, 야상풍류, 노란가을, 훨훨, 외쳐라

출연

윤승환(대표 & 타악), 김성겸(피리 & 태평소), 김은경(대금 & 소금), 김지혜(보컬), 조영애(가야금), 김나영(해금), 박재현(타악), 송다솔(거문고), 이종현(베이스 & 어쿠스틱 기타), 최민영(신디사이저), 서예진, 안병용(랩)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我아飛비娛(010-2595-6700)

##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정수

강석우

전영록

1996년 부산시장 재임당시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든 것을 인연으로 영화 사랑을 펼쳐온 문정수 전 부산시장과 국회의원 정두언, 영화감독 이장호, 탤런트 이덕화, 강석우, 가수 전영록,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 소프라노 배수진, 자니 브라더스 등이 함께 펼치는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

## 2009 부산국제판화제 '얼굴(face to face)'

10월20일~10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전시실, 국제회의실



박대조-무엇을위하여 1000x1090  
C-print(08년)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부산국제판화제가 2009년에는 '멀 아트쇼 2009'로 전시명칭을 바꾸고 판화, 사진, 영상, 입체, 설치 등 복수미술인 멀티플 아트의 총체적인 내용을 수용하는 전시회로 새롭게 탄생된다.

독일, 대만, 루마니아, 미국, 북한, 스위스, 영국 등 20 개국 150여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멀 아트쇼 2009'는 '얼굴(face to face)'을 주제로 하는 본 전시와 장 샤토강 외 50여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중국현대판화전' 특별전과 인기연예인들의 소통을 테마로 한 '얼굴' 사진 작품전 '얼굴, 소통의 시간'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 행사가 진행된다.

그 외 부산국제멀아트 미술상, '판화, 멀티플 아트, 그리고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관람객들이 직접 촬영하고 찍은 UCC 이미지와 사진, 판화 콘테스트,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얼굴을 선정, 영상으로 상영하는 '현대 미술속의 얼굴들'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 문 의 부산국제판화제 운영위원회(624-9995)



올해로 4회를 맞는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는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주옥같은 영화음악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마이웨이, 희망, 꽃밭에서, 라 포로마, 바람되어 다시 오마, 애심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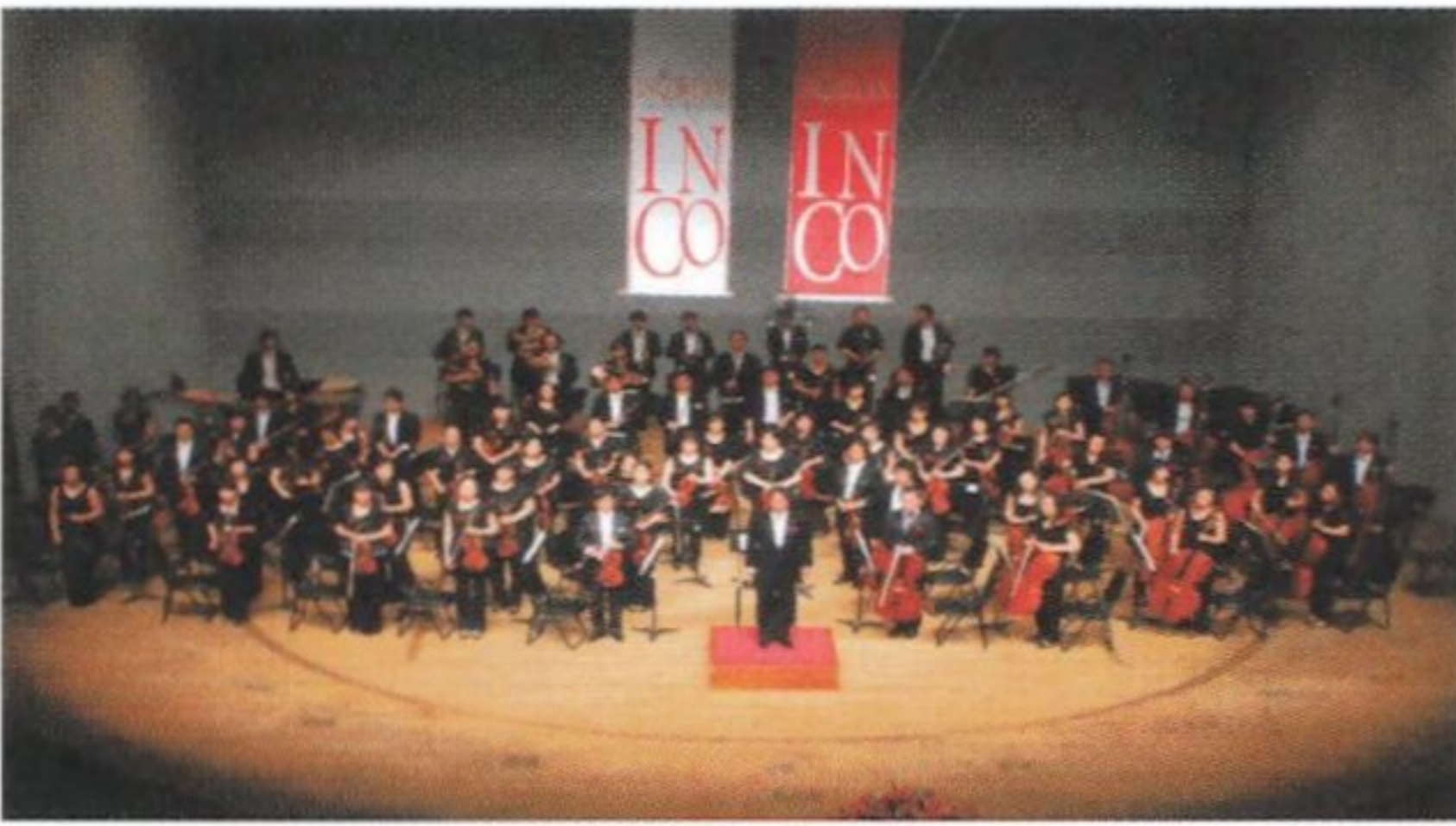
· 연주/팝인라이프 빅밴드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부산선진화 포럼(256-7614~4)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6회 정기연주회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도시락 보내기 등의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 온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브람스/심포니 4번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첼리스트 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장은정(017-842-6688)

## 김진홍의 춤, 인연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준보유자로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김진홍 선생과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선생의 전 가족들이 한 무

대에 올라 예인가족의 면모를 보여준다.

### 프로그램

동래한량춤, 살풀이춤, 승무, 입춤, 무당춤, 지전춤, 오고무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갑용(011-841-4882)

##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2002년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 군 여성합창단협의회 창립 이후 매년 1회 연합창단을 구성, 다양한 합창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은 지난해 휘센 합창 페스티벌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가곡/도라지꽃(박지훈 곡), 그대 그리워(김동환 곡), 오솔길에서(이수인 곡)

종교곡/아베마리아(카치니 곡), 시편 96편(이현철 곡)

가요/어머나, 비 오는날 수채화, 보이지 않는 사랑 등

· 지휘/윤정운 · 반주/이현주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배은주(010-3133-8026)

##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30회 정기 연주회(부제 : 한·일 교류음악회)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이태리에서 음악 수업을 한 부산의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제 30회 정기연주회.

1987년 창단 이후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를 연구 해온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올해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 강학윤, 배웅철, 전해란 등과 일본 성악가들이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비롯한 유명 오페라중창을 들려준다.

· 반주/김해 오케스트라(지휘/윤상운)

■ 문의 김태형(010-2339-1973)

## 이기녕 작곡발표회

11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울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작곡과, 인디애나 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기녕의 작곡발표회.

제 3회 한국 전자음악협회 주최 컴퓨터음악대회 1

위(2000), Yueh-Fei 국제작곡대회 2위(2000)(미국, 시카고)에 입상한 바 있는 이기녕은 그동안 플로리다 전자음악페스티벌, 제 6회 산타페 국제페스티벌, 미국 전자음악협회 주최 정기연주회, 서울 국제 컴퓨터 음악제 2004, 대구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 프로그램

move!(피아노)(2009), 찬바람이 불 때(피아노)(2009), 주의 모든 세계(피아노)(2007), song of songs(피아노-스트링-노래) (2007), 주기도문(피아노-스트링-노래)(2003)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기녕(010-2210-0900)

#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A~100A)

### 음악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 ■3일

평조희상 중 '염불·타령·군악', 포구락, 태평무, 실내악 '축제', 동부민요, 강강술래, 판굿과 북춤 등

##### ■10일

염양춘, 춘앵전, 대금산조 제주, 평시조 '청산리', 가인전목단, 실내악 '가을의 기억', 학춤, 풍년가, 新사철가

##### ■17일

함녕지곡, 향발무, 남도잡가 '화초사거리', 입춤, 기악 합주 '푸살', 해금협주곡 '추상', 부채춤, 사물놀이

##### ■24일

도드리,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무산향, 태평소와 아쟁병주, 검무, 10현금 '비현', 호적 장고춤 등

##### ■31일

수롱음, 판소리(남도국악원), 현악중주 '침향무', 피리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 최승희류 검무, 진도북춤 등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오페르피스트(Opus Feast) 정기연주회 하이든 서거 200주년,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10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권혜령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오페르피스트가 하이든 서거 200주년과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 연주/권혜령, 김화소, 김지언, 허혜정, 박태희(이상

피아노), 이진화, 박광식(이상 바이올린), 김진연, 전수정(이상 첼로)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오페르피스트(010-8893-7829)

####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6일 박지용 아쟁 독주회



전남대학교 국악과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으로 있는 박지용의 아쟁 독주회.

##### 프로그램

박종선류 아쟁산조, '심청가' 중 '추월만정', 서용석

류 대금산조병주, 시나위 합주

##### ■13일 박희정 거문고 독주회

한양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활동중인 박희정 거문고 독주회.

##### ■20일 SoU1 EdGe 말하러 가는 길

국립부산국악원 단원들의 연주로 들려주는 가곡 한마당.

· 연주/이진희(장구), 김상혁(단소), 정상훈(대금), 박혜신(거문고), 박은희(해금), 박은영(성악), 김창경(피리), 권나래(가야금), 이희재(성악, 객원출연)

##### ■27일 김남순 가야금 독주회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 가야금연주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김남순 가야금 독주회.

##### 프로그램

중광지곡 중 '하현도드리·염불·타령',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6일 제 16회 한국음악작곡가회 정기연주회

작곡가 태미, 김성희, 문현애, 김성광, 육수근, 김국

진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음악작곡가회의 16번째 정기작곡발표회.

· 피아노/서숙지, 양미향

##### ■13일 오현정의 'Harmony of Passion'

동아대학교와 독일 뷔르츠부르크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티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오현정과 부산시티앙상블이 함께하는 무대.

##### 프로그램

이사이/솔로소나타 작품 27 제 4번

몬티/차르다시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 8번 다단조 작품 110 등

##### ■20일 7인 음악회 '여인의 사랑'

소프라노 박은미, 이정윤, 전선화, 심정경, 김현애, 바리톤 박용민, 테너 김승희가 유명 오페라 아리아 및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27일 마니피캇 오르간 반주단 연주회

1990년 부산가톨릭음악원 최영희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마니피캇 오르간 반주단의 제 6회 바흐 오르간 페스티벌.

· 지도교수/최영희(부산가톨릭음악원 교수)

· 출연/이정은, 최은주, 정수경, 제유민, 전안득, 박경옥 이용미

· 해설/장진규

■ 관람료 일반 10,000원 청소년 5,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7일 삼 오카리나앙상블 창단연주회

오카리나 연주자 한상훈, 권혁, 강동열, 김영은, 윤경자, 김원희, 김영선, 이석화, 장수임, 김수현, 박종근으로 결성된 삼 오카리나앙상블 창단연주회.

· 지휘/박종근 · 찬조출연/오카리나 소리마루

##### ■14일 김화실 오보에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드레스덴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마산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오보이스트 김화실 독주회.

##### 프로그램

헨델/오보에 협주곡 제 3번

그로브레즈/사라반드와 알레그로 등 수곡

· 피아노/최지은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 특별출연/류재환(오보에), 박지연(오보에), 박주연(비올라)

## ■ 21일 최광섭 클라리넷 독주회



가톨릭대학교 음악과와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음악원, 외동 국립음악학교, 빌 다브리 국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베누스토 윈드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최광섭 독주회.

· 특별출연/백재진(바이올린, 동의대학교 교수)

· 피아노/이은정

## ■ 28일 제 19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성악전공 동문들로 구성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가 들려주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 출연/김양자, 김경희, 서정아, 박소영, 장은영, 옥혜나, 윤지영(소프라노), 정종철, 김철수, 엄현섭, 양승엽(테너), 하병욱, 조현수, 이철훈(바리톤)

· 피아노/이경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2009 부산성악아카데미 하반기 정기 연주회 스페인 가곡과 '사르수엘라 로만사의 밤'

10월 8일 목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8년 유럽과 미국, 러시아에서 유학한 부산의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성악아카데미가 마련하는 2009 하반기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의 오페라인 '사르수엘라' 중 아리아를 뜻하는 '로만사'를 들려준다.

· 출연/박현정, 전영무, 박은미, 이민정, 이흥득, 이민, 이한성, 김화정, 양승엽, 김길수, 안상철

· 피아노/김인재, 박미은, 이소영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안상철(010-2400-5271)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일상설공연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 8일 현악이 흐르는 가을의 향기



가을 서정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꾸며지는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

### ■ 15일 누드 사운드 유닛 버스킹 2009

인디밴드 '누드 사운드 유닛'이 출연, 자작곡 및 팝송, 대중가요를 들려준다.

### ■ 29일 최낙용과 함께하는 색소폰앙상블

색소폰연주자 최낙용의 정통재즈음악으로 마련되는 색소폰앙상블 콘서트.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우정은 바이올린 연주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지역 최초의 사진전문미술관인 고은사진미술관이 매월 마련하는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10월에는 연세대학교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우정은 연주회로 마련된다.

###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가을'

비탈리/사콘느

모차르트/소나타 마단조 KV.300 등 수곡

· 피아노/양기훈

■ 관람료 초대(사전예약)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작, 편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인 윤효간은 그동안 탱고, 락,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레퍼토리에 피아노, 아코디언, 락밴드와 현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해왔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시민회관(630-5200)

## 김호정 첼로 독주회 순회공연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책사랑54년** 대형서점 지하1층~지상5층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과장아님)

국산/외국산 최상품 지구본 취급

▶ 국산: 소·중·대·초대형·위성·지세·행정 20% 할인  
▶ 외국산: 세계 매출 최고 독일스텔라노바 소·중·대·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문 지명 선물 최고(교구용)

지도의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

★ 정부발행지도 지정판매처!

▶ 1:3000도 판매 각처의 사용 용도에 맞게 주문하는 크기로 연결코팅해 드림

▶ 관내도, 금융기관, 부동산업, 각업소 참고도면

▶ 건설, 유통업, 택배, 기타 각업체 필요부분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도면 확대축소

★ 전국시·도별, 전국교통관광, 국내외 관광객자

대형액자지도, 지구본 매장관람환영!

**초지일관 · 양심경영**

◎ 해사도서전문 취급 및 출판 ◎ 전국 최고의 종합지도센터

Since 1955

**문우당서점**

남북을 자랑사실 정미는 94년 11월  
인터넷주소: www.munbook.co.kr  
전화: 021-241-5555(내선)  
팩스: 02-241-5197 (02-02-2132)  
부산광역시 중구 남대문로 41-1-1

각종일부안내

15 해사도서  
기술 전문서적,  
국정교과서

29 각종지도  
각종외국어서적,  
각종사전

중간음 국산지구본,  
수입지구본, 소·중·대형

18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 예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쾰른 국립음대, 독일 쾰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김호정 독주회.  
김호정은 2000년 귀국 후 코리아심포니 수석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 프로그램

그리그/첼로소나타 가단조 작품 36  
스트라우스/첼로소나타 바장조 작품 6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코리아엔터테인먼트(02-3775-388)

##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 20회 정기연주회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9년 부산의 초·중등 교사들로 결성된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의 20번째 정기연주회.

창단 20주년을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역대 단원들이 함께하는 합동연주와 20주년 기념 영상상영회가 펼쳐진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숙희(016-839-0653)

## 제 2회 부산시티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8년 창단 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쳐온 부산시티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지휘/박성은(상임지휘자)

· 협연/정보연, 김지현, 박지인(이상 바이올린), 주하은(성악)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성은(010-4569-5400)

## 해운대소리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7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해운대 해맞이축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협연무대, 부산합창제,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해운대소리합창단 6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김진영 · 피아노/김주영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영선(010-2564-4743)

## 부산거문고악회 창단연주회 거문고 遊絃놀고 大絃치고 청! 靑! 靑!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대학교 권은영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거문고연주자와 부산대학교 국악과 재학생들로 결성된 부산거문고악회 창단연주회.

### 프로그램

황병기/거문고 이중주 '침향무'  
정대석/거문고, 가야금 이중주를 위한 '달무리'

이은경/청·靑·淸(위촉초연)  
김용실/출강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거문고악회(510-2941)

## 부산리코더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6년 12월 창단 후 유명연주자 초청연주회 및 마스터클래스, 창단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코더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해온 부산리코더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임종환

- 관람료 초대
- 문의 강희숙(016-562-6561)

## 클라리넷 · 비올라 · 피아노와 함께하는 독일 이야기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비올리스트 김인혜, 피아니스트 유성용의 앙상블로 들려주는 독일 이야기.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과 브루흐, 라이네케의 작품을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의 이색 앙상블로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인혜(010-7939-4444)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 KCO String Quartet 제 3회 정기연주회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안지윤, 비올리스트 윤진원, 첼리스트 정재윤으로 결성된 KCO String Quartet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 4중주 다단조 D.703 '죽음과 소녀'  
 보르딘/현악 4중주 제 2번 라장조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 협연/정성흡(피아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2009 생활음악축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역 아마추어 연주단체들이 참여하는 2009 생활음악축제.

생활음악축제는 아마추어 연주단체들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부산음악인구의 저변확대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 출연/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대금동호회 '대맑은소리', 부산교육대학교평생교육원 음악치료사모임, 부산원음합창단, 우리소리두드림, 오카리나동호회 '흙피리'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갑석(010-4551-0623)

## 플랜더스 리코더콰르텟 초청연주회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9년 세계적 권위의 고음악페스티벌인 브뤼게 고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1,500여회가 넘는 무대에 서온 플랜더스 리코더 콰르텟 초청연주회.

'리코더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1400년대 음악을 시작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작곡가들의 연주곡과 우리나라 가요와 동요를 편곡해 들려준다.

· 찬조출연/부산리코더앙상블,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 관람료 균일 50,000원  
 (청소년,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 문의 리코디아(02-2692-7945)

## 부산신포니에타 제 67회 정기연주회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임현식

윤수영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으로, 연 4차례의 정기 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신포니에타의 67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니노 로타/현을 위한 협주곡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드보르작/세레나데 작품 22 등  
 · 지휘/임현식 · 협연/윤수영(바이올린)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 문의 김영희(010-8519-0448)

## The 12th MiOT Concert 우리시대음악, 어제와 오늘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Music in Our Time)의 창작 무대.

'우리시대음악,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세계2차대전 이후 음악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는 창작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스티브 라이쉬/손벽치기(한국초연)  
 강순희/판타지아  
 베리오/Sequenza III, 여성 목소리(한국초연)  
 데이비드 스키/신크로니즘 제 9번(한국초연) 등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녹음홀 · 연주홀

## GloVil Art Hall



부산대학교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빌아트홀 공동주최

### 제8회 글로빌전국음악콩쿨

특별시상 : 부산대총장상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빌아트홀관장상(장학금 100만원)

일시 : 10월 10일(토)  
 부문 : 피아노 작곡 성악 관현악 실내악 실용음악 국악  
 대상 : 유·초·중·고(재학생 포함) · 대학생 · 일반  
 접수 : 10월 6일까지 인터넷, 우편, FAX 접수  
 과제곡 : 자유곡 1곡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Tel.051-505-5995 Fax.051-505-593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 연주/최낙수(플루트), 노영훈(오보에), 홍병희(클라리넷), 윤재준(바순), 김선화(피아노), 박진, 백현경, 조영숙, 임승빈(바이올린), 김상철(비올라), 박준현(첼로), 배수진(소프라노), 경성대학교 작곡가 학생그룹(손벽합주)

- 관람료 초대
- 문의 강순희(018-566-1584)

## 브릴란트 앙상블 제 9회 정기연주회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Brilliant Ensemble

브릴란트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String Trio  
Instruments: Violin, Viola, Cello  
Johnny, Illegno, Cho, Si



2009. 10. 20.(화) P.M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현, 비올리스트 송고은, 첼리스트 김기도로 결성된 브릴란트 앙상블의 9번째 정기연주회.

브릴란트앙상블은 1994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부산음악협회 실내악축제,

MBC목요일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실내악의 매력을 선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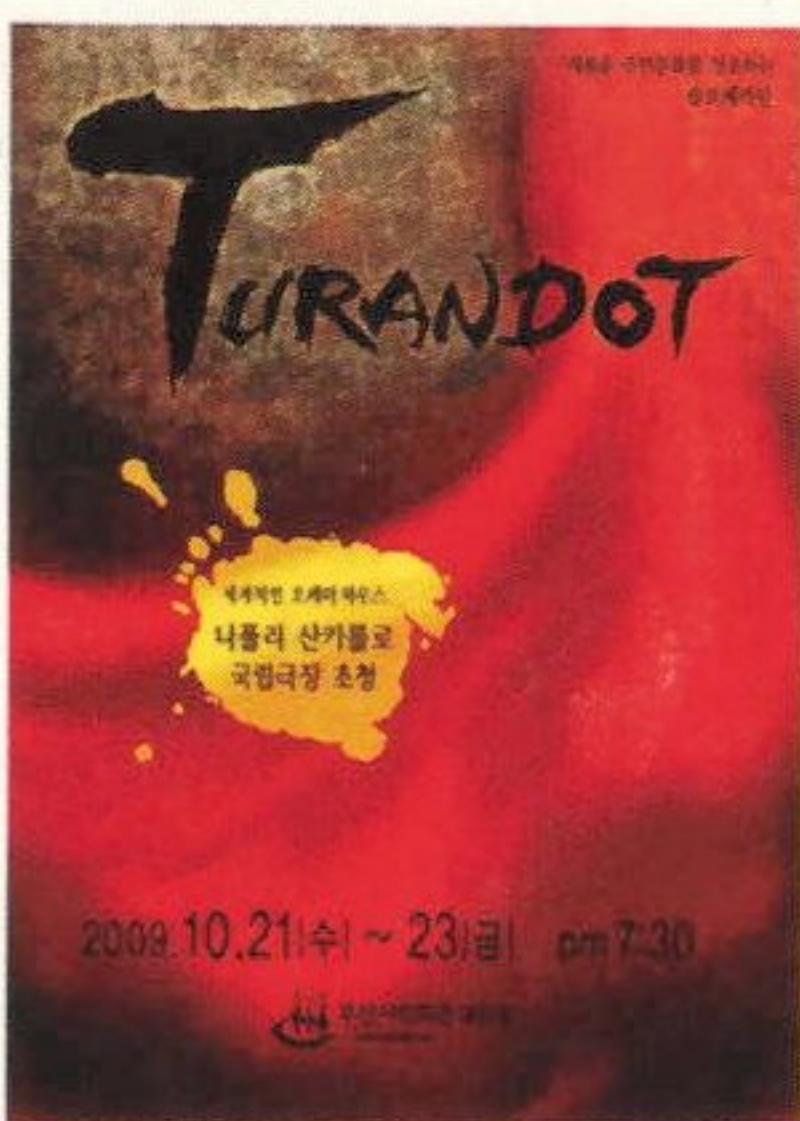
### 프로그램

베토벤/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8 라장조  
도흐나니/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10 다장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성현(011-595-6060)

## 나폴리 산카를로 국립극장 초청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10월 21일-23일 수-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인 나폴리 산카를로 국립극장 초청으로 무대에 올리는 오페라 '투란도트'.

현존하는 '칼라프'의 전설 테너 니콜라 마르티누치와 라스칼라 극장의 빛나는 소프라노 루치아 마차리아, 유럽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첼마 스티몰라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출연, 이태리 정통 오페라의 감동을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잔니 탄구치(나폴리 산카를로 국립극장장)

· 지휘/마르첼로 모타델리 · 연출/안토니오 데 루치아  
· 출연/루치아 마차리아, 서경숙(투란도트), 니콜라 마르티누치, 김지호(칼라프), 김은희, 첼마 스티몰라, 김경희(류) 외

- 관람료 VIP 250,000원 · VIP 200,000원  
R석 150,000원 ·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C석 30,000원

■ 문의 솔로페라단(1544-937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제 33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09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유경조

기량이 우수한 청소년들을 발굴해 연주무대를 제공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 프로그램

조원행/해금협주곡 '상생'  
정동희/25현가야금협주곡 '찬기파랑가'

이화동/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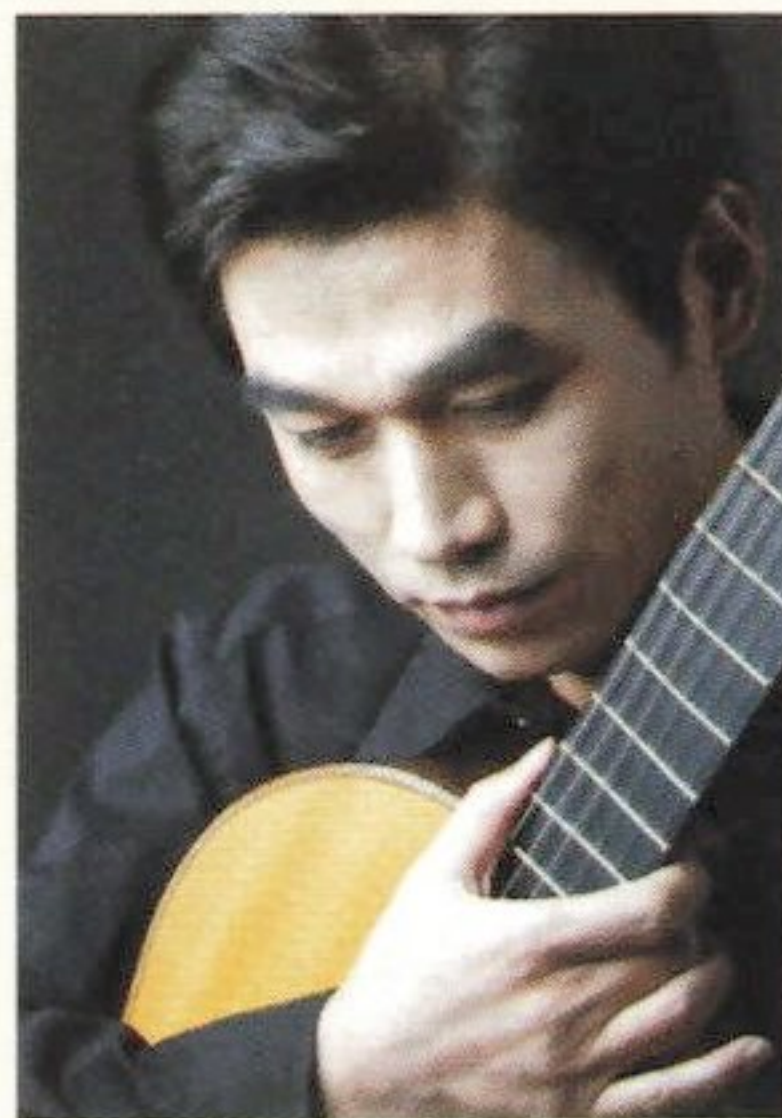
김희조(편곡)/준항가 중 '사랑가' 등 수곡

· 지휘/유경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출연/강민정(해금, 부산대 4년), 정수유(25현가야금, 부산대 3년), 손한별(대금, 부산대 4년), 박현주(가야금병창, 동국대 졸업), 최요셉(태평소, 부산대 4년), 최정욱(모듬북, 부산대 1년), 이경희(모듬북, 경성대 3년)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 박인성 클래식기타 초청독주회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빌아트홀



스페인 마드리드 시립음악원과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로스꼬레이노스 단원으로 활동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인성 초청 독주회.

박인성은 2003년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주최 실

내악콩쿠르에서 3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 부산색소폰합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8년 3월 창단 이후 창단연주회와 온천천 아티스트공연, 천마재활원 위문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온 부산색소폰합주단 두 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정흥기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재열(010-2568-8193)

## 슬기둥 부산콘서트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시민회관 대극장



전통음악의 현대적 작업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주도해온 슬기둥의 부산콘서트.

슬기둥은 1985년 창단 후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독창적인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출연/이준호, 정길선, 류은정, 김설아, 윤형욱, 이수정, 서수복, 계성원, 한충은, 김은경, 김경아, 홍동기, 권성택, 조상준, 오해연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시민회관(630-5200)

### 어울림국악연주회 제 15회 정기연주회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 최초의 민간 국악공연 연구단체로 출발한 어울림국악연구회가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관현악 합주 '염불, 타령', 관악합주 '함녕지곡', 대금독주 '상령산', 거문고산조 제주, 단소·양금 병주 '타령', 가야금 제주 '민요모음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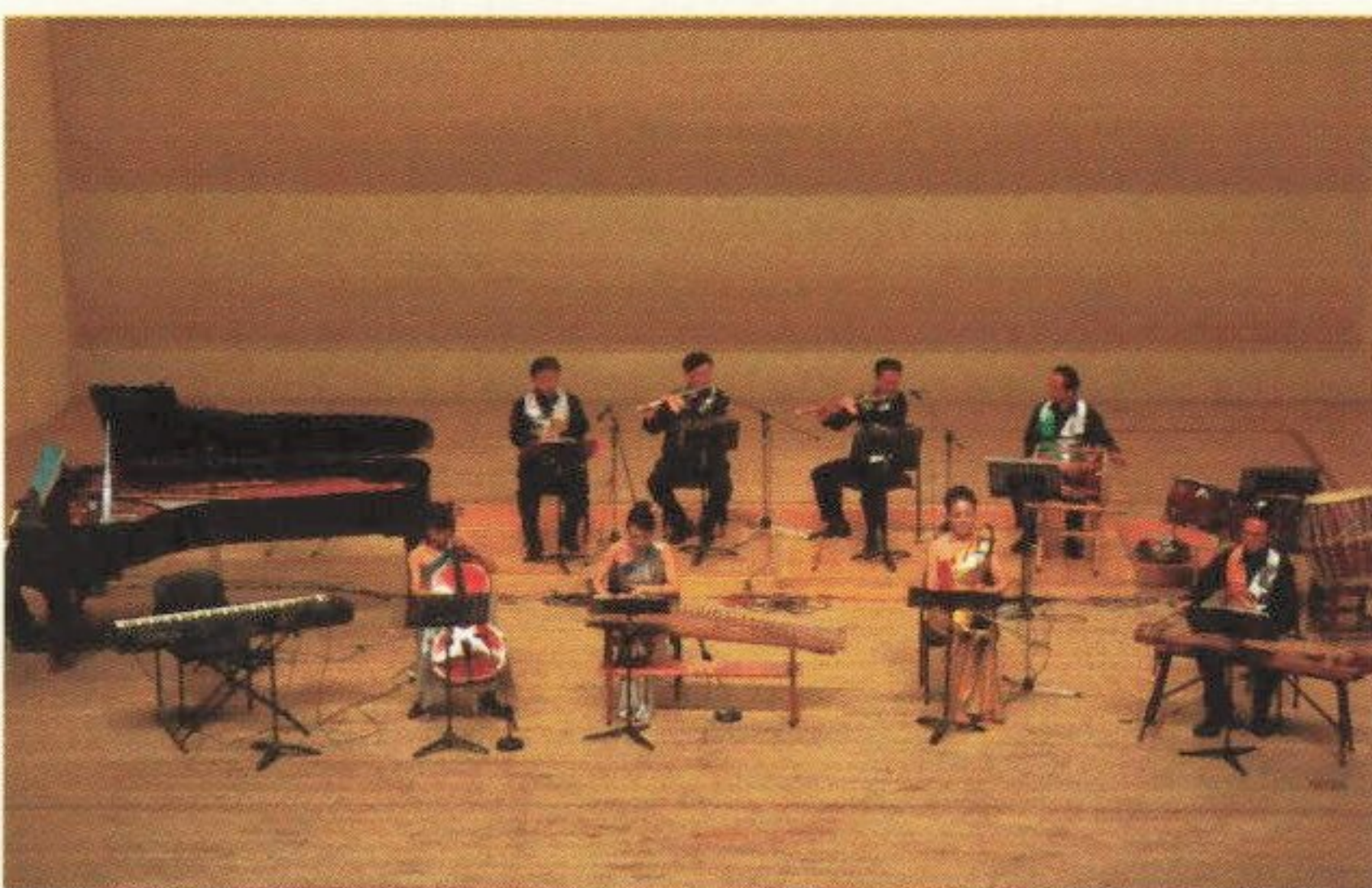
■ 관람료 무료

■ 문의 어울림국악연구회(467-7975)

### 2009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음악에 뿌리를 두고 예술장르를 넘나들거나 월드뮤직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퓨전시나위 예타래의 우리음악 느끼기.

#### 프로그램

김동조/사물놀이와 합주를 위한 광시곡 '오륙도'

조익래/변주곡 '엄마야 누나야'

정세윤/아카펠라 '한오백년'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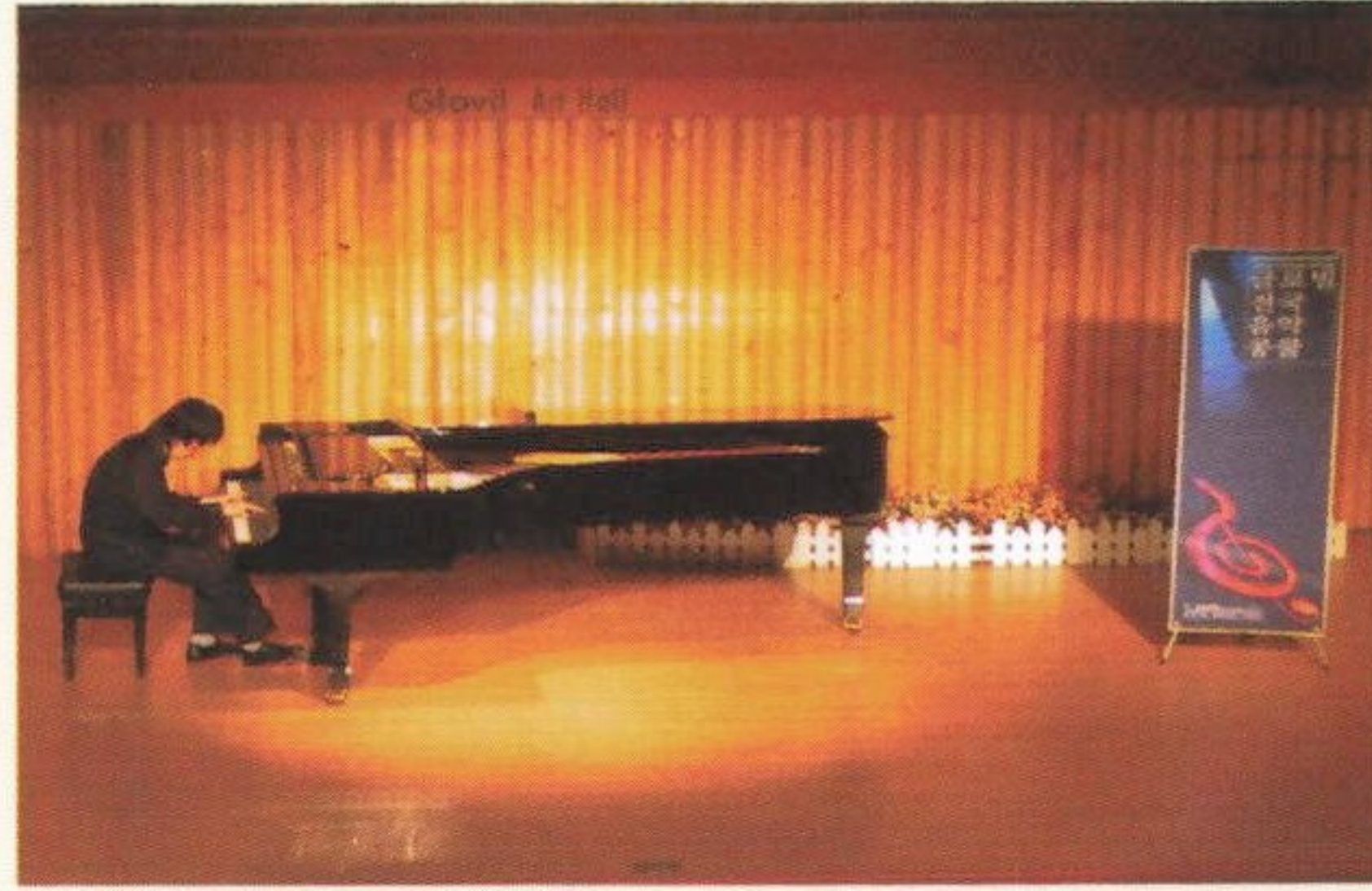
■ 관람료 일반 10,000원, 학생 15,000원

■ 문의 조익래(010-9878-7942)

### 제 8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 연주회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10월 10일 개최하는 제 8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한 우수 연주자들이 펼치는 축하음악회.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테너 정거화 다섯 번째 독창회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중앙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롯시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정거화 다섯 번째 독창회.

정거화는 그동안 4차례 독창회와 부부음악회,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 오페라 주역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곡과 토스티, 슈베르트, 카푸아, 레온카발로의 '세레나데',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 피아노/차미소란(동아대 교수) · 해설/김윤선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거화(011-854-6178)

### 제 8회 효산국악제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발족된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가 격년제로 마련하는 효산국악제.

올해는 무형문화재 지정 20주년과 회장 신명숙 선생의 칠순을 기념해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독주와 이종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주제에 의한 25현가야금 이종주(지원석 곡), 신명숙 회장의 칠순을 기념해 작곡된 창작곡 '스승의 은혜(백규진 곡)'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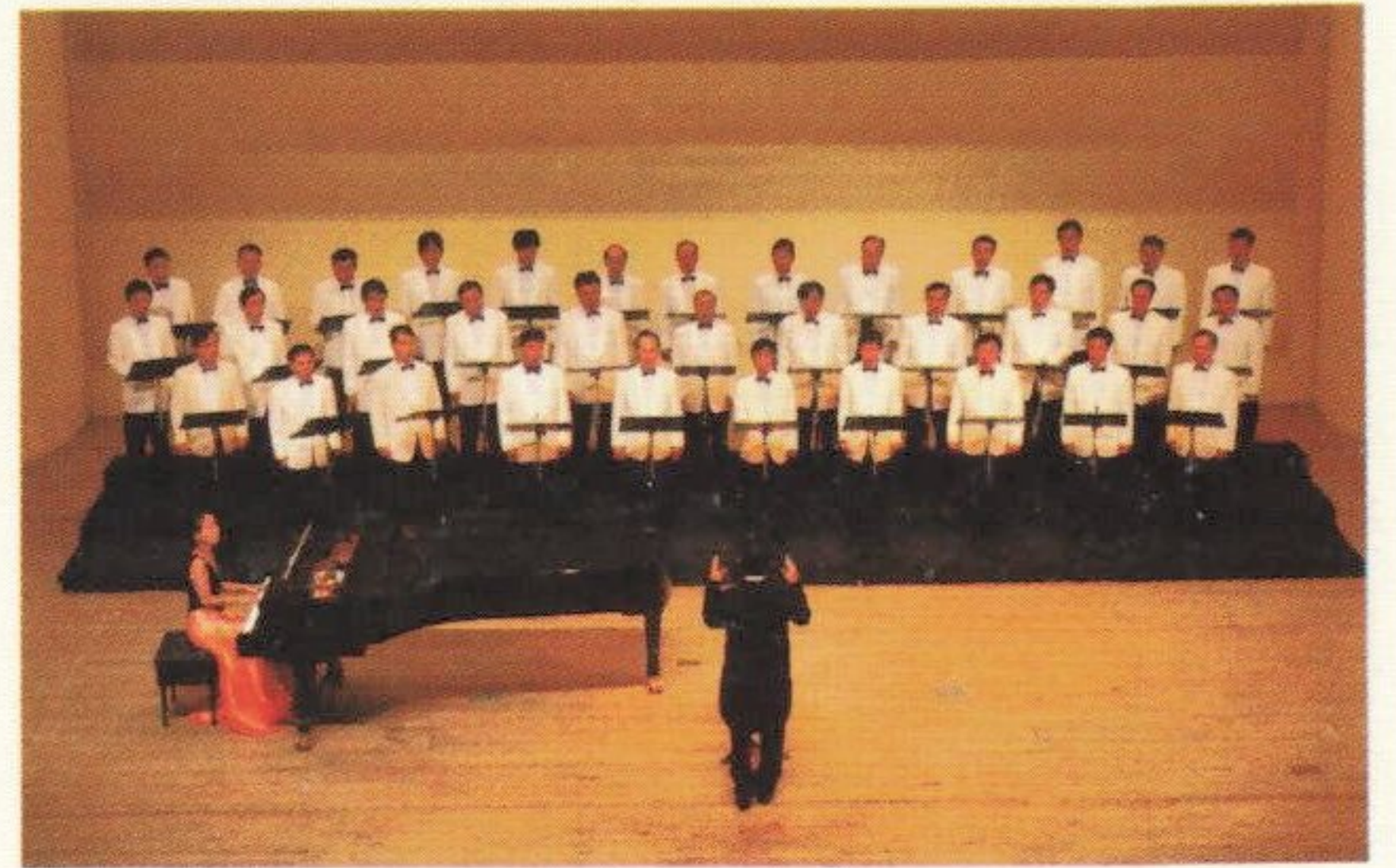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지영(010-9234-9638)

### 부산남성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가을 · 그리움 · 사랑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8년 초등교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부산남성합창단의 6번째 정기연주회. 가을, 그리움, 사랑을 테마로 한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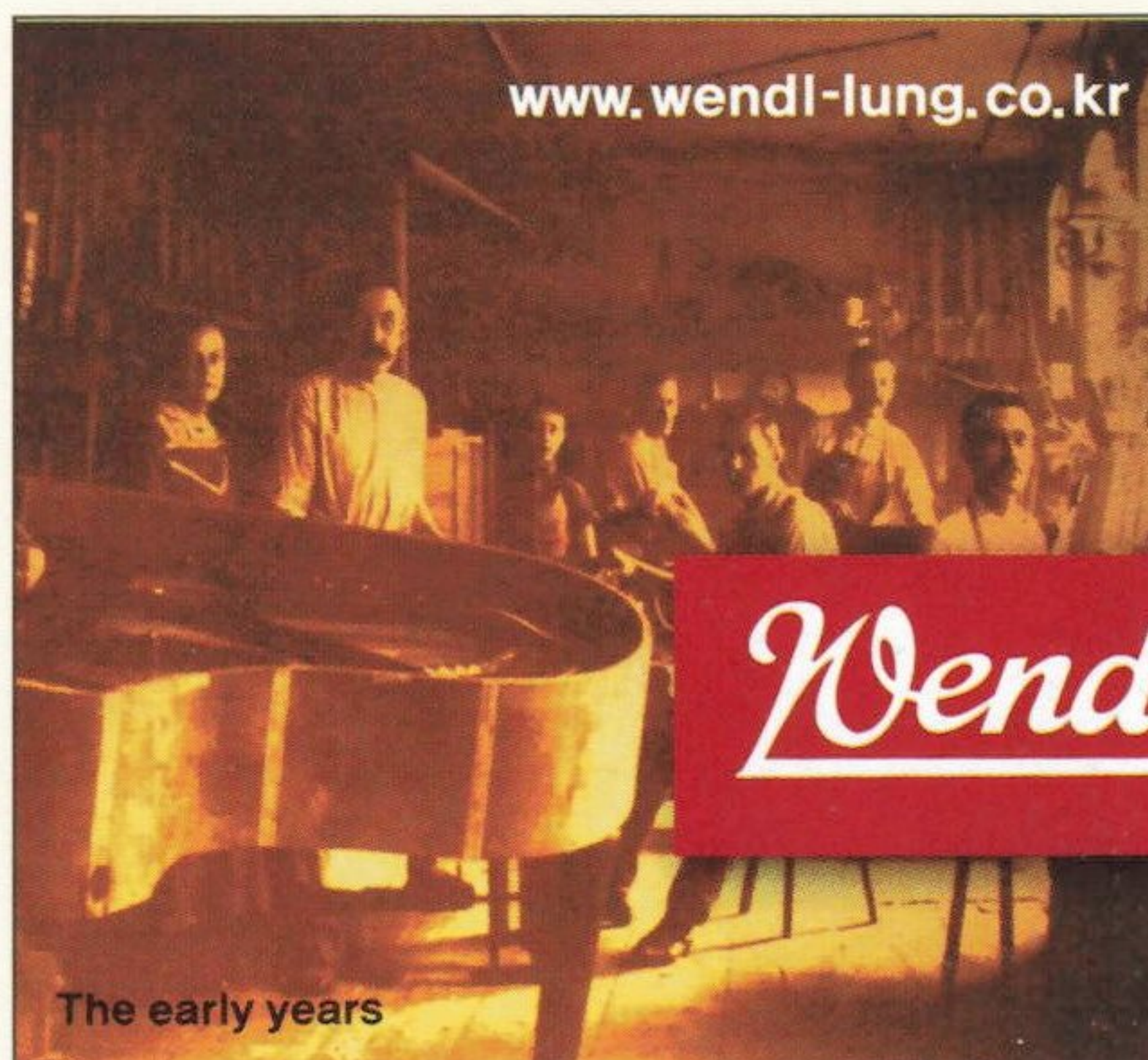
· 지휘/강영원 · 피아노/김선희

■ 관람료 초대

■ 문의 총무 조순식(011-562-8285)

### 제 28회 부산관악제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대극장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부산지역 6개 고등학교 관악부와 일본 나가사키현 가미쓰시마 고등학교 관악부가 출연하는 제 28회 부산관악제.

### 출연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지휘/안창섭),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지휘/고일봉), 동의공업고등학교(지휘/김태호), 동주여자고등학교(지휘/송기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지휘/변해주), 예원정보여자고등학교(지휘/하귀천), 가미쓰시마고등학교(지휘/Makabe Asuka)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3,000원
- 문의 전이동(010-2705-0366)

## 팬하모닉 · 부산오카리나클럽 소리:숲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팬하모닉      부산오카리나클럽

부산의 대표적인 오카리나동호회인 부산오카리나클럽과 팬플룻동호회인 팬하모닉이 함께하는 연합무대. 자연의 소리를 닮은 오카리나와 팬플룻의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신근우(010-9691-0070)

## 연극

### 창작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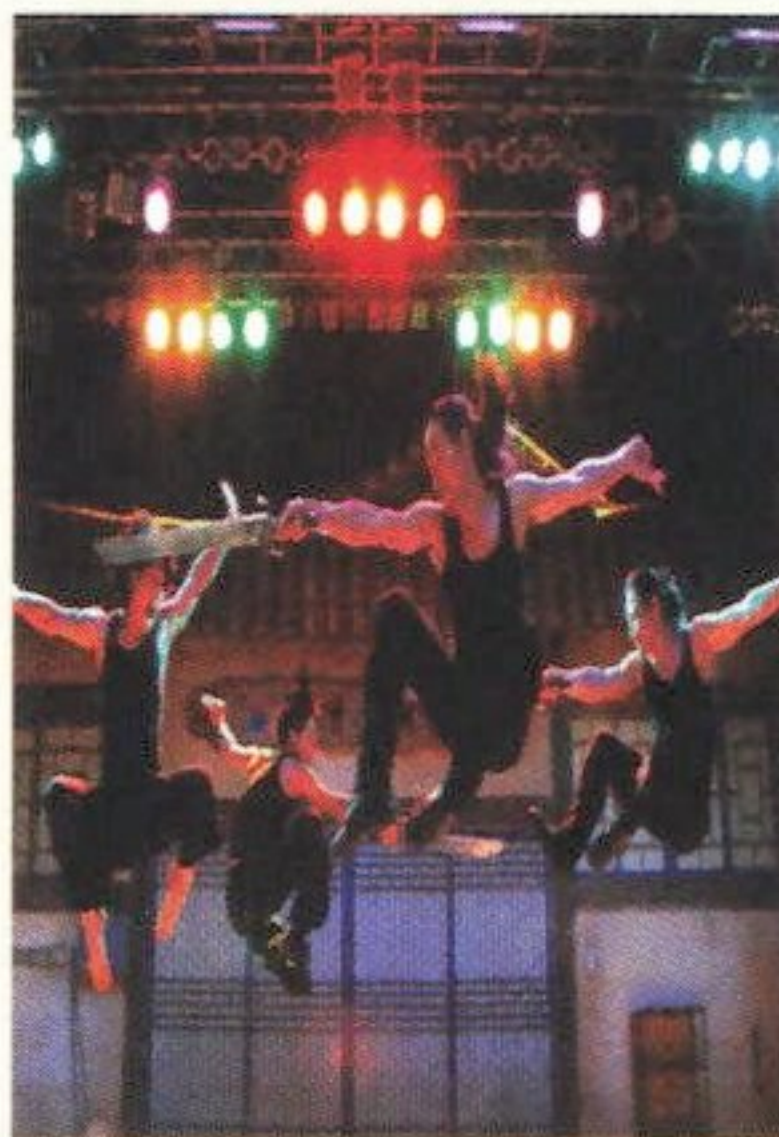
9월 3일(목)~10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10/2일 오후 6:00공연, ※월요일, 10/3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인 엄마와 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2009 점프 부산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 · 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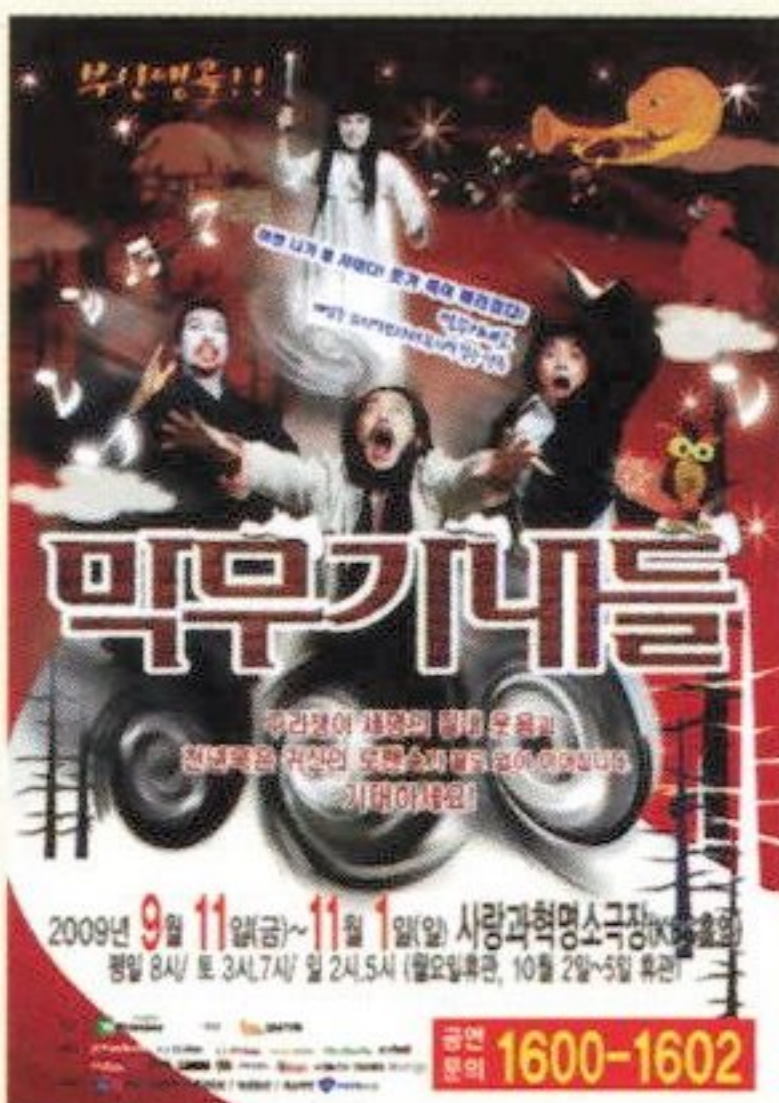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 코믹연극 막무가내들

9월 11일(금)-1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10월 2일~5일 휴관)  
사랑과혁명소극장



처녀귀신과 처녀귀신을 짝사랑하는 저승사자, 우연히 처녀귀신을 만난 말단 사채업자와 그리고 퇴마사, 한밤중 흥가에 마주친 4명의 주인공들이 펼쳐는 한바탕 소동극.

- 작/이주용 · 연출/오승수
- 출연/신승용, 최재섭, 김은희, 황인보, 이창훈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9월 18일(금)-10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7:00  
(월요일 공연없음) 두드림소극장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는 몽타주 화가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형사, 주인공의 상처 주변을 맴도는 천재 프로그래머인 친오빠, 그리고 세기의 연쇄살인범이 펼쳐는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 작, 연출/김세환
- 출연/김장훈, 김준영, 신현규, 김가에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드라마팩토리(904-7957)

### 연극 환상동화

9월 25일(금)-10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10/2일 오후 6:00공연, ※월요일, 10/3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무용과 음악, 마임,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창작극 '환상동화'.

사랑, 전쟁, 예술을 상징하는 세 명의 광대가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

- 작, 연출/김동연
- 출연/성종완, 이현철, 송삼동, 문경태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

9월 26일(토)-10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서민 가정의 삶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들여다보는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

- 작/박근형
- 연출/김만중
- 출연/이현식, 김진욱, 홍승이, 김하영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 낭만빌라 윈더우먼 프로젝트

10월 1일(목)-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공휴일 오후  
4:00 (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낭만빌라에 사는 여성  
들의 좌충우돌 헤프닝을  
통해 동시대 여성들의 결  
혼과 사랑, 인생을 유쾌한  
시선으로 그린 코미극.

·작, 연출/심문섭  
·출연/정애경, 양효윤, 박  
정아, 고민류, 유하  
나, 강수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868-5955)

## 연극 시월연가

10월 9일(금)-15일(목)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일터소극장



한국현대사의 굵은 획을 그은 부마민주항쟁의 정  
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작 '시월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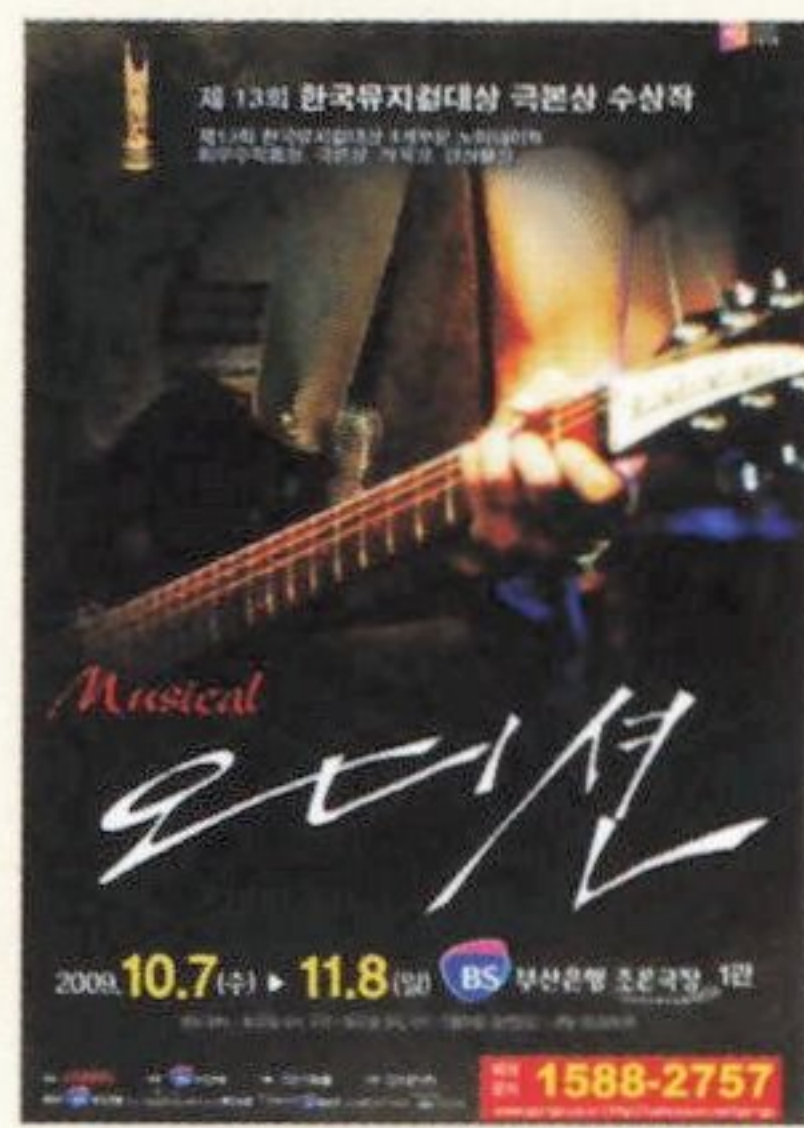
·각색 및 연출/김기영  
·출연/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초등학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예매시 20% 할인)
-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www.ilter.or.kr)

## 뮤지컬 오디션

10월 7일(금)-11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BS부산은행 조은극장1관

2007년 초연당시 한국뮤지컬대상 4개 부문 노미  
네이트, 극본상 수상을 통해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창작뮤지컬 '오  
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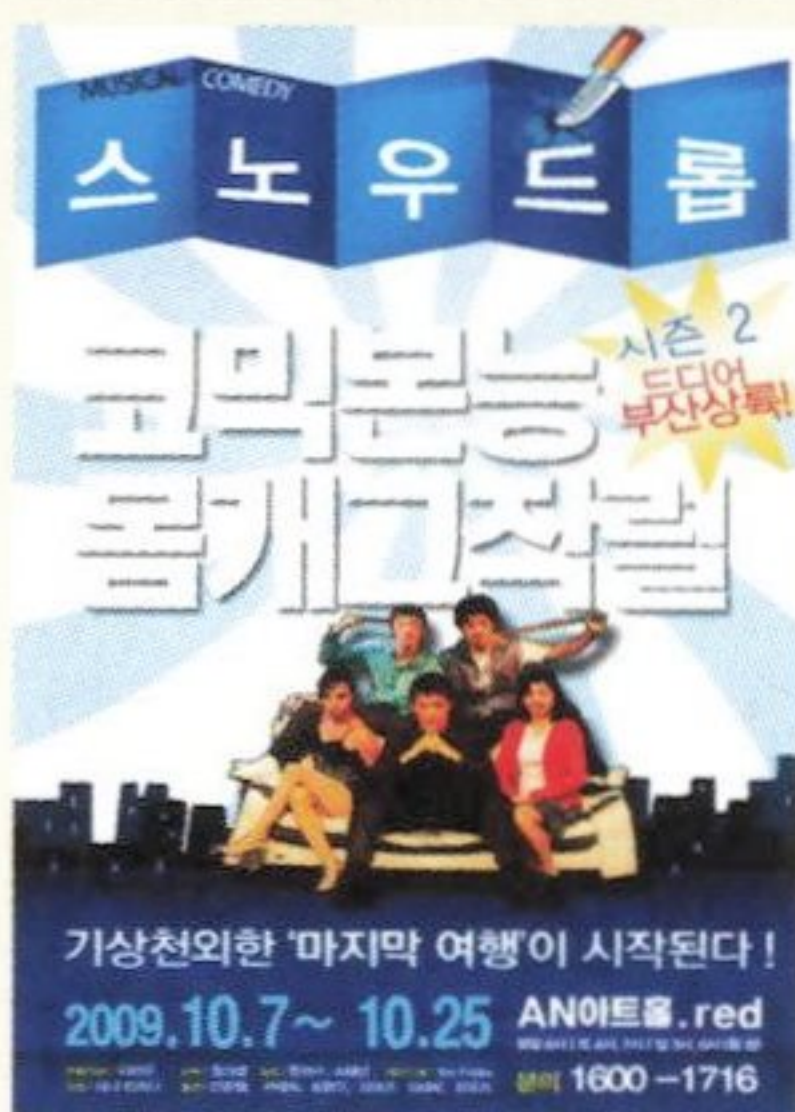
젊은 뮤지션의 꿈을 향한  
고군분투기가 폭발적인 라  
이브무대와 함께 펼쳐진다.

·작, 연출/박용전  
·출연/허규, 이영윤, 김승  
환, 정찬희, 정수훈, 강초롱

- 관람료 균일 40,000원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뮤직코미디 스노우드롭 시즌2 마지막 여행

10월 7일(수)-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나  
범죄를 저지른 은행강도  
일당과 막무가내 개념상실  
인질이 펼쳐는 좌충우돌  
폭소코미디극 '스노우드롭  
시즌2-마지막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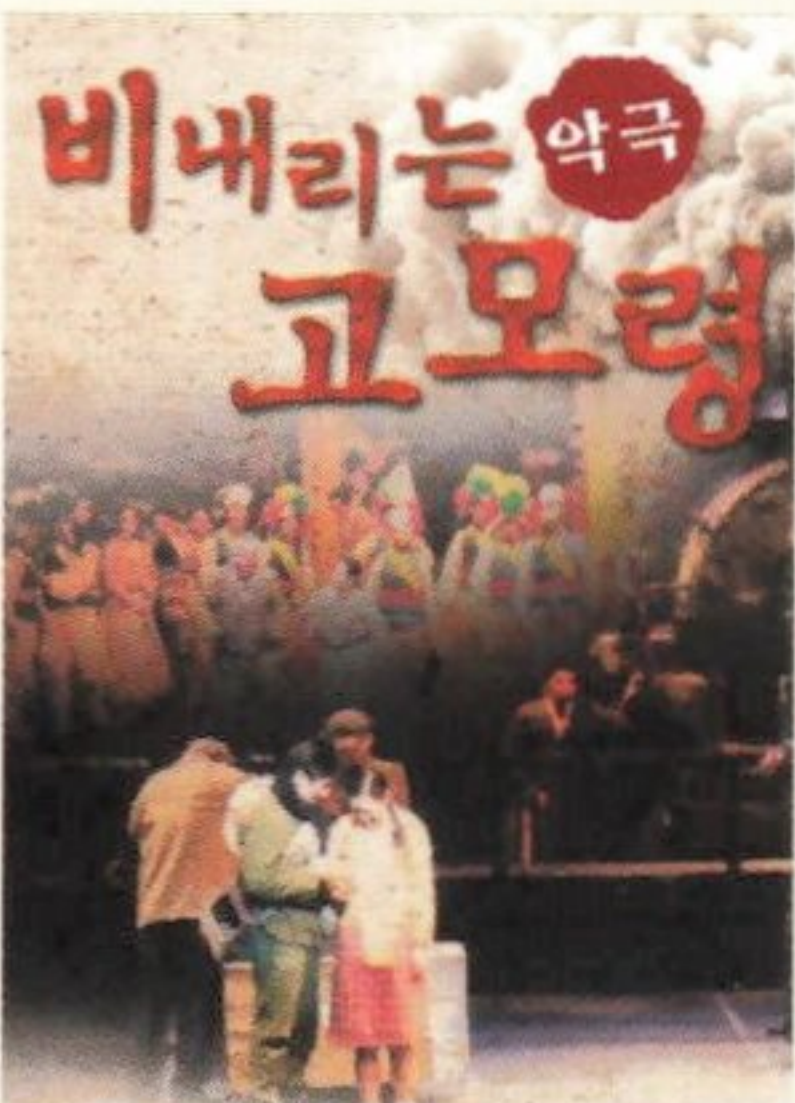
·작, 연출/이상곤  
·안무/정가영

·출연/안준형, 차재희, 최형우, 김대곤, 김태희, 김국성

- 관람료 균일 40,000원
- 문 의 미니컴퍼니(1600-1716)

## 악극 비내리는 고모령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1일 일  
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평생 가난과 서러움의  
열룩진 삶을 살았으나 결  
코 참된 어머니의 길을 잃  
지 않았던 주인공 순애의  
애절한 삶이 흘러간 옛 가  
요와 함께 펼쳐지는 악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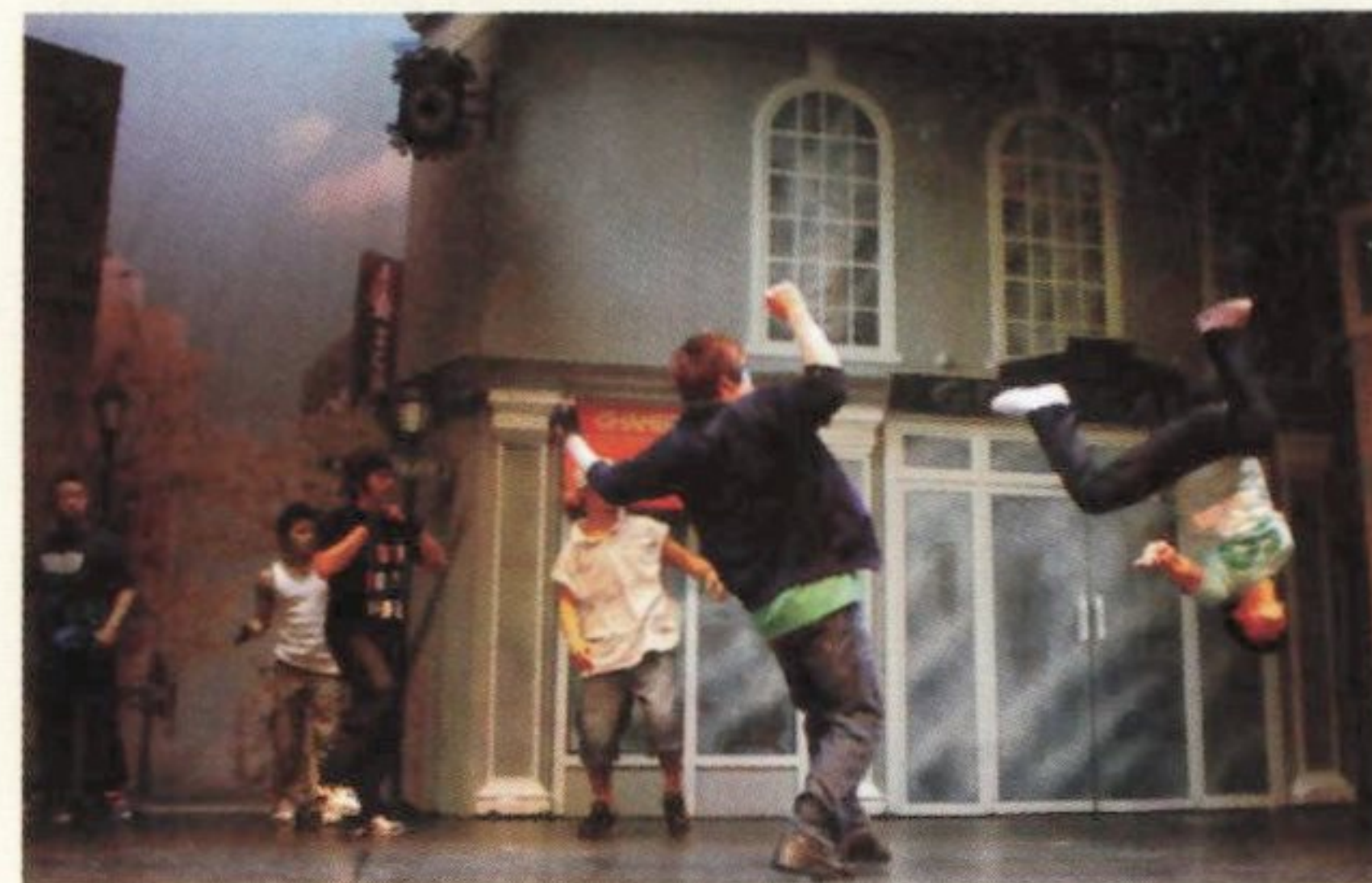
·연출/김정숙  
·출연/박인환, 최주봉, 양

재성, 김진태, 박승태, 주수정, 정찬우 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문 의 팝부산(741-3255)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18일 일요일 오후 3:00, 7:00 KBS부산홀



프리마돈나를 꿈꾸던 발레리나가 우연히 비보이를  
만나면서 사랑하게 되고 비보이로 동화되어 가는 과  
정을 그린 년버벌 퍼포먼스.

독일 '배틀 오버 더 이어'에서 우승한 익스트림 크  
루가 출연, 현란한 비보이댄스를 선보인다.

- 관람료 VIP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A석 33,000원
- 문 의 (주)발품미디어(624-2204)

## 연극열전 늘근도둑이야기 부산공연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8일 일  
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매 공연마다 시대를 반영한 빠있는 웃음으로 관객  
의 공감을 얻어온 시사코미디극 '늘근도둑이야기'  
2009년 무대로, 용산화재 참사사건, 박연차 게이트,  
북한 핵실험 등 최근 시사현안을 작품속에 녹여내 시  
사풍자코미디의 진수를 선보인다.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5,000원
- 문 의 숨엔터테인먼트(1588-8477)

## 극단 도깨비 울동네 합창단 시즌2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22일 오후  
3: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TV방송을 통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울동네합창



단이 또다른 세상인 사이버세상을 만나면서 겪게되는 헤프닝을 그린 연극 '울동네합창단 시즌2'.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입장동화 뮤지컬 콩쥐야~왜 그래?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20, 11:30  
22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 오후 3:00  
시민회관 소극장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새롭게 각색, 주인공인 콩쥐와 팥쥐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는 색다른 형식의 가족뮤지컬.

- 극작/이상준 · 연출/조승욱
- 관람료 균일 15,000원(오전 단체관람 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공연기획사 예가(02-741-0720)

## 제 22회 전국민족극한마당

10월 22일(목)-25일(일)  
부산민주공원, 일터소극장

'전통의 현재화'를 추구해온 (사)민족극운동협회가 펼치는 공연예술축제 '제 22회 전국민족극한마당'.

개막작인 일터소극장의 '시월연가'를 비롯해 공식 참가작과 초청작, 자유참가작 등 창작극 공연과 역대 민족극운동협회 1, 2세대를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학술심포지움, 작품토론회, 어린이마당극교실, 전통연희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관람료 초대(예약필수)
- 문 의 극단 자갈치(515-7314)

## 가족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병문안을 가게된 빨간모자 소녀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 연출/윤혜진
- 출연/조민경, 심지석, 최은경, 조영실, 오세진 외
-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 연극 뉴 보잉보잉-1탄(연애버전)

10월 27일(화)-11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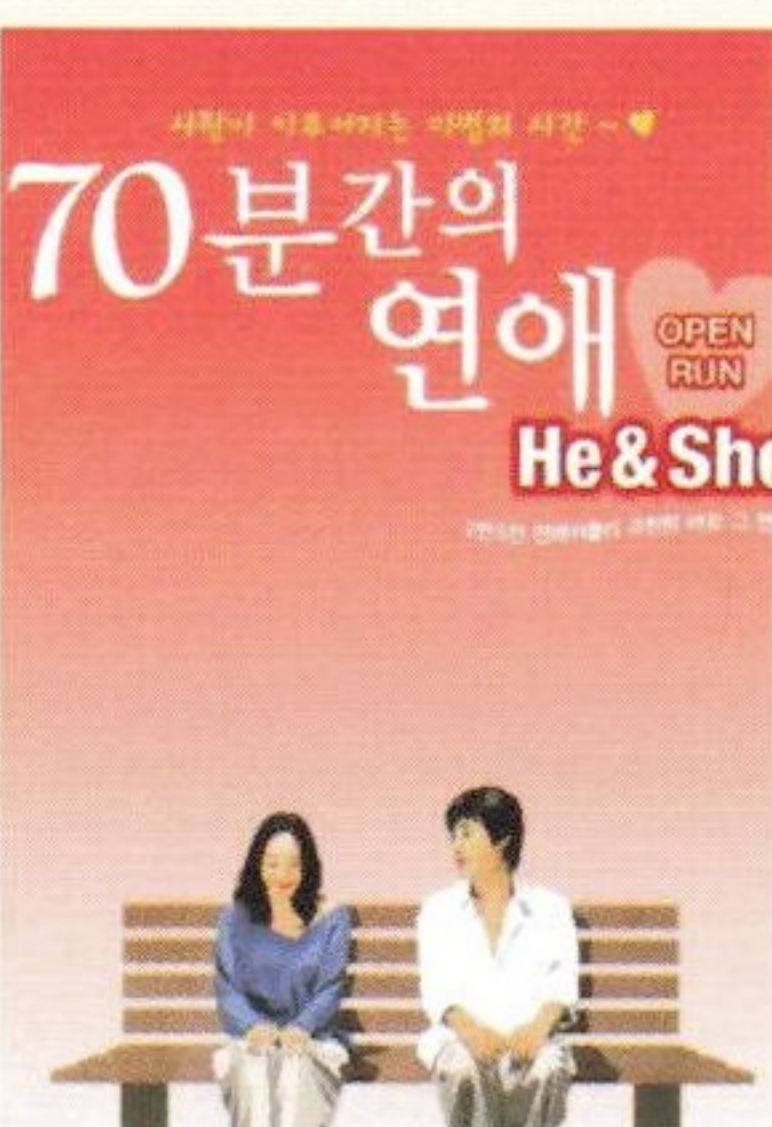


바람둥이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삼각 애정행각을 다룬 폭소코미디극 '보잉보잉'을 한국적 상황에 새롭게 각색한 '뉴 보잉보잉'.

- 번안, 연출/손남목
- 출연/조창우, 장용, 신수정, 박진영, 김유란, 김소영
- 관람료 균일 30,000원(학생 20% 할인)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70분간의 연애-He & She

10월 30일(금)-11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2관



친구사이로 지내온 두 남녀가 15년동안 숨겨왔던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현실적이면서도 유머넘치는 대사속에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극.

- 작/차근호
- 연출/지영

· 출연/추현옥, 김수환, 양진억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무용

### 예술공동체 마르의 2009 열한번째 신작 로시난테의 편자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4:00,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0월 14일(수)-1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열린소극장



경성대학교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 MFA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업에 참여해온 강희정이 이끄는 예술공동체 마르의 열한번째 신작무대.

세르반테스의 고전 '돈키호테'를 재구성, 시대에 휩쓸려 희미해진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인간을 춤언어로 표현한 '로시난테의 편자'를 선보인다.

- 안무/강희정 · 대본, 연출/구현철
- 출연/문라욱, 김종현, 김초슬, 김영찬, 김동석, 선승일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예매시 30% 할인)
- 문 의 강희정(017-559-1246)

## 전통춤 이음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우리 전통춤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춤 6명이 한자리에 서는 전통춤이음전.

### 프로그램

강태홍류 산조춤(윤여숙 ·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태평무(최은희 · 경성대학교 교수), 원향지무(변지연 · 연무

용단 대표), 애련(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승무(김윤옥·원향춤연구회 부회장), 지전춤(장인숙·동아대학교 겸임교수)

- 관람료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A석 5,000원
- 문의 원향춤연구회(517-0470)

## 2009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찰나(刹那) 소나기를 품다...

10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정신혜 안무로 선보이는 창작춤 무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춤언어로 표현한 이번 작품은 춤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 예능보유자 이윤석과 연기자 김예리가 각각 장년이 되어버린 '소년'과 주인공 '소녀' 역을 맡아 작품을 끌어간다.

· 안무/정신혜 · 대본, 연출/조주현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정미숙의 춤 '춤길'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춤패 배김새 예술감독,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춤꾼 정미숙의 춤판 '춤길'.

### 프로그램

길 하나/이매방류 승무, 검무, 살풀이춤

길 둘/한영숙류 태평무, 처용무

길 셋/춤본(안무/김매자)

· 출연/정미숙, 김민경, 하윤정, 주영희, 강다혜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정미숙무용단(011-869-1530)

##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1주년 기념공연

10월 27일-28일 화-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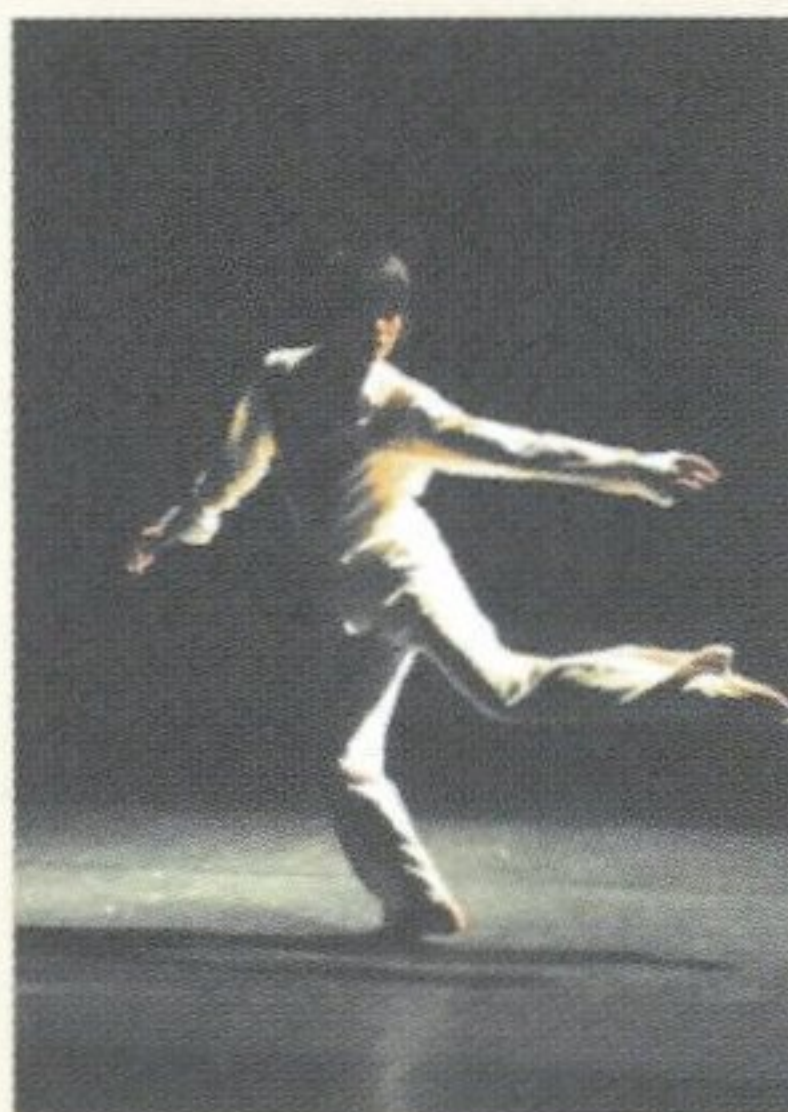


10월 28일 개관 1주년을 맞는 국립부산국악원이 개원 1주년을 기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을 초청해 마련하는 전통춤의 대향연.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박재현 두 번째 춤판 '셋 빨간 거짓말'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과를 졸업하고 제 3회 세계델픽대회 은메달 수상, 부산KBS 무용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박재현의 두 번째 창작춤판.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아픔을 그린 3개의 에피소드 '셋 빨간 거짓말'을 선보인다.

- 대본, 안무/박재현
- 출연/남대우, 이영범, 정진우, 박재현, 허종원, 김동석, 최우석, 강정일, 박근영, 김수현, 김진희 외

- 관람료 일반 15,000원 학생 10,000원
- 문의 박재현(018-571-4381)

## 콘서트

### 2009 이문세 붉은노을 부산콘서트

10월 9일 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SR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 문의 (주)뉴페이스컴(1599-2005)

### 2009 이선희 라이브 콘서트-부산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 문의 (주)하늘이엔티(1688-6675)

### 대명절 추석특집 이미지 50주년 In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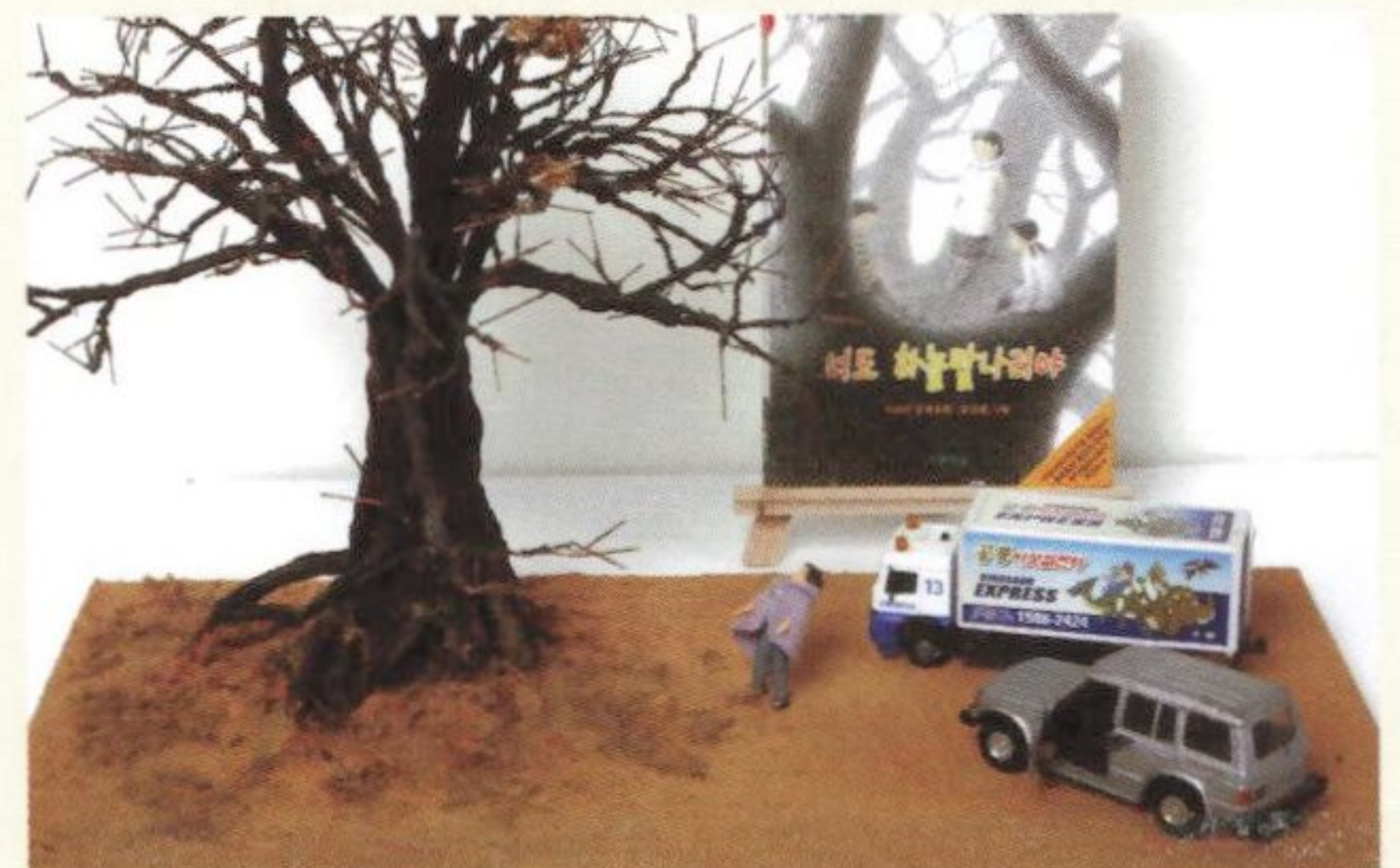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문의 (주)하늘소리(1566-2505)

## 행사

### 제 10회 어린이책잔치

10월 5일-11일 월-일요일 오전 11:00  
부산민주공원



어린이책 전문출판사 30곳이 제작한 유아 및 초등 학생을 위한 대표도서 80여종을 전시하는 2009 어린이책잔치.

어린이평화책전시회와 책읽어주기마당, 그림자극 공연, 동화속 인형 전시회,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주요행사

- 5일(월)-11일(일) 기획전시실  
'동화책작가 김향이 동화 속 인형 전시회'
- 10일(토)-11일(일) 오후 1:00, 3:00 기획전시실  
'김향이 작가와 인형만들기'
- 10일(토) 오후 1:30, 4:30, 11일(일) 오후 12:30, 4:30 소극장 '그림자극 거미와 파리'
- 10일(토)-11일(일) 오후 1:00, 2:00, 3:00, 4:00 상

설전시실 '어린이 평화책 빛그림'  
 · 11일(일) 오후 1:00 소극장 '문학평론가 도정일 초청강연'  
 · 10일(토)~11일(일) 오전 11:00~오후 5:00 원형랩 프 1층 '미로에서 책읽어주기'  
 ■ 문 의 부산어린이전문서점 곰곰이(702-0016), 민주공원(790-7418)

## 제 87회 시울림 시낭송회 문인수 시인 초청대담 문인수 시인의 삶과 문학

10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9-516-1867)

## 2009 부산국제건축문화제

10월 9일(금)~10월 13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무료
- 문 의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888-4757)

## 해야해야 솟아라 해야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희망'을 주제로, 시낭송모임인 '시가 익는 마을' 회원들의 시낭송과 함께 시를 음악과 무용, 마임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시극(詩劇) 공연을 선보인다.

- 예술감독/박철홍
- 연출/김세진
- 관람료 무료
- 문 의 박진희(010-2855-0700)

## 전시

### 건축도자 Now & New 예술, 디자인 그리고 도시展

2009년 9월 5일(토)~2010년 3월 7일(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 문 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055-340-7012)

### 민영기 찻사발展

9월 5일(토)~11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1)

### 아트 인 부산 2009 : 인터시티

9월 12일(토)~11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1)

### 중국국가박물관 명품그릇전 맛을 담는 그릇의 멋

9월 15일(화)~11월 15일(일)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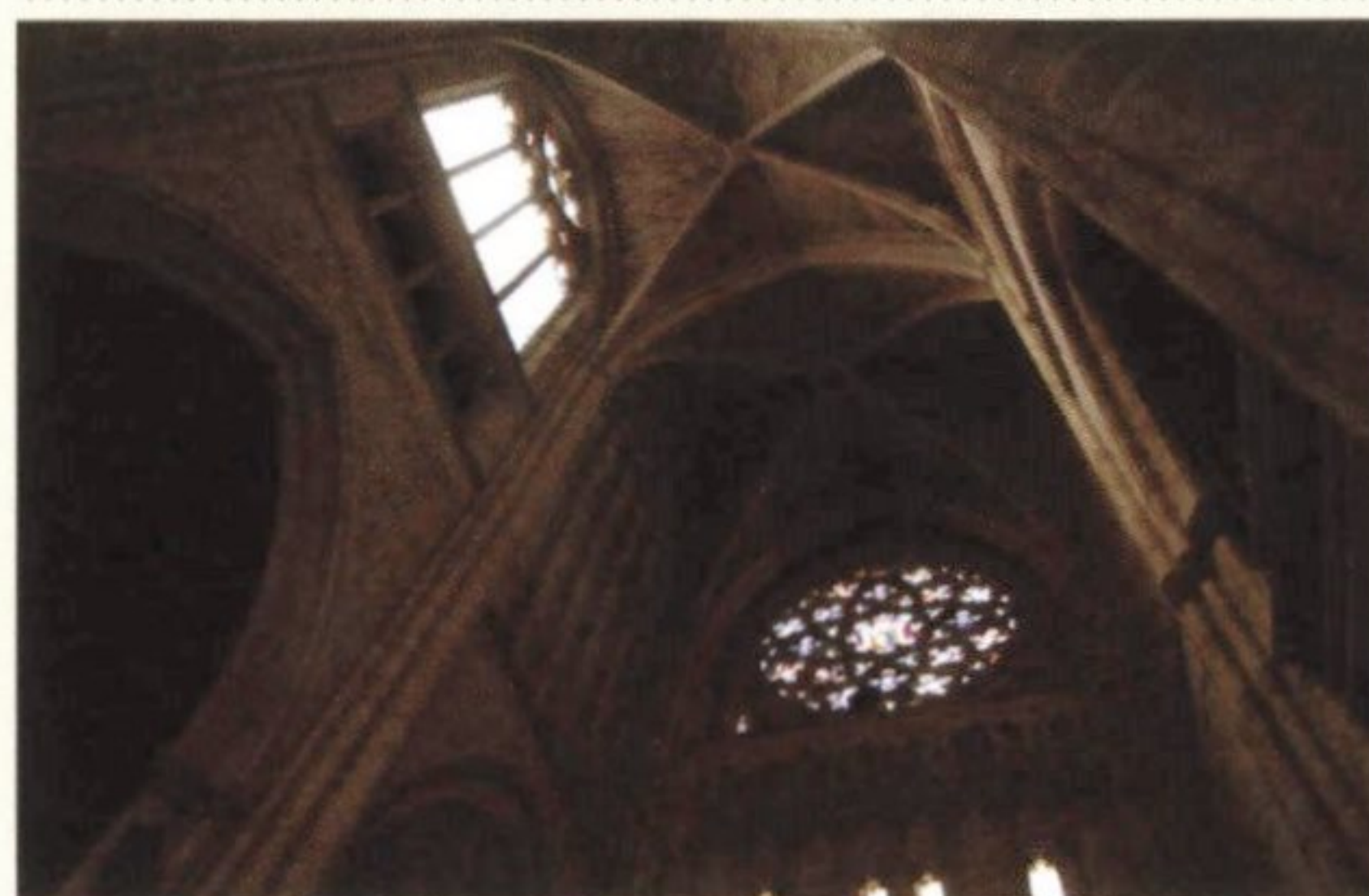
중국 음식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여정을 통해 발전해왔는가를 그릇을 통해 살펴보는 중국국가박물관 명품그릇전.

신석기시대 채색토기 항아리에서부터 요나라 금잔, 남송시대 영청자 주전자 등 그릇 170여점이 전시된다.

- 문 의 부산박물관(610-7141~5)

### 이경홍 사진전 돌로 된 날개들 위에...

10월 1일(목)~10월 30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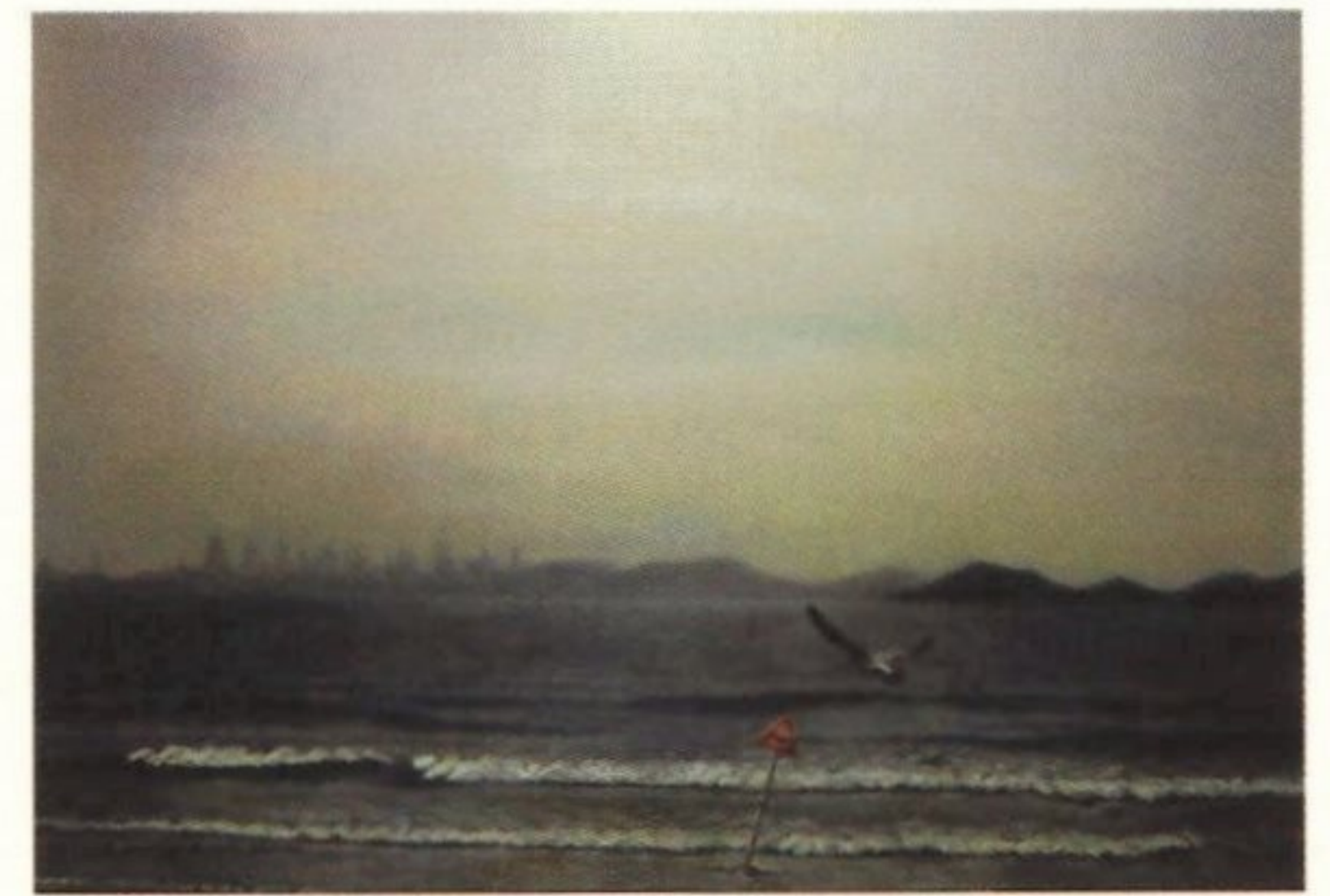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와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로 있는 사진작가 이경홍 사진전.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기막힌 사팔이展

10월 6일(화)~10월 11일(일) 갤러리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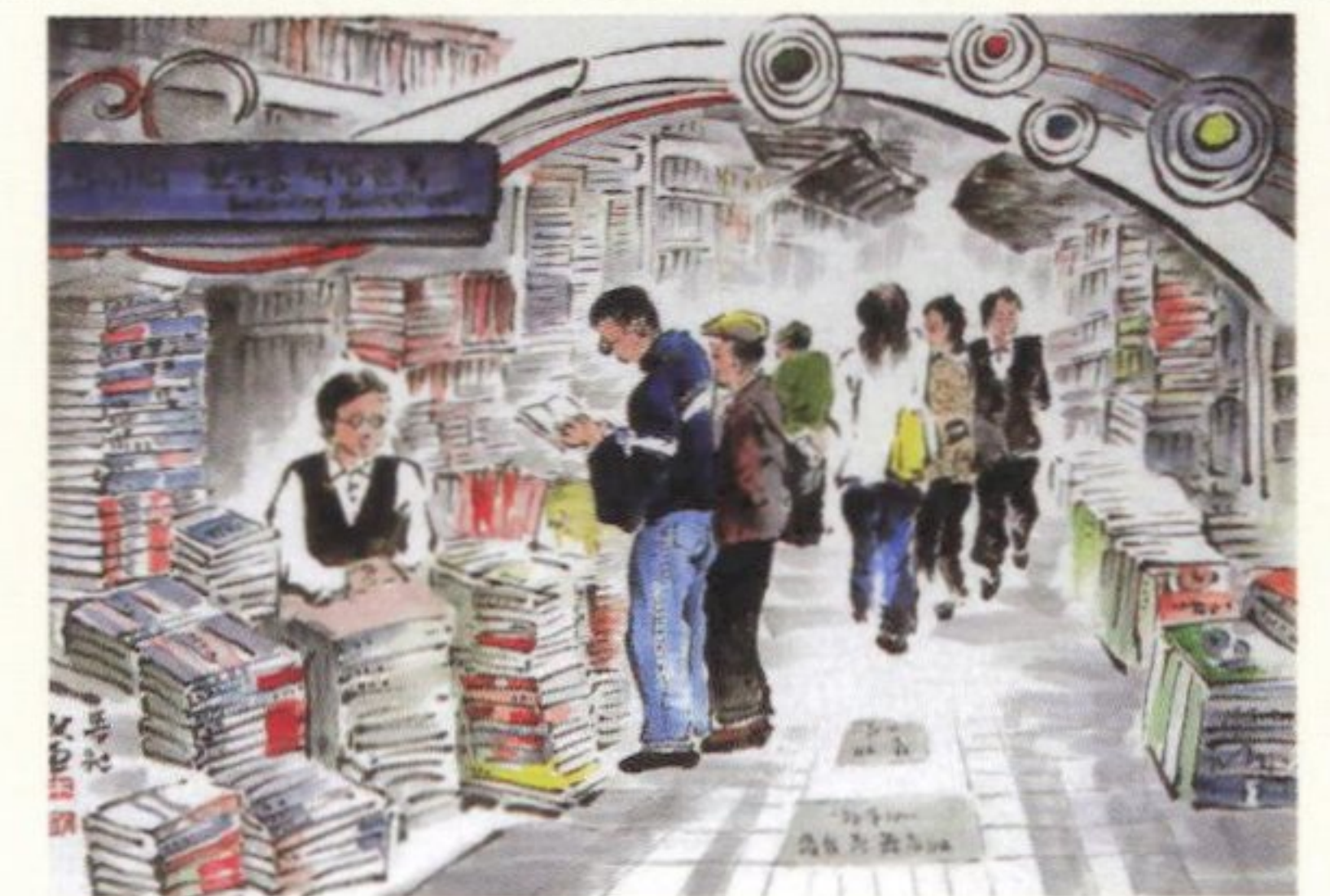
정문식 작 'Water World(아무도 없는 그곳)'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동문인 김문수, 김성철, 김해진, 정문식이 함께하는 4인4색전.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 제 5회 부산연목회 한국화전

10월 13일(화)~10월 18일(일) 갤러리영광



허휘 작 '보수동책방골목'

· 참여작가/고일웅, 구윤근, 김미숙, 김시웅, 박기옥, 박외영, 서정숙, 오도순, 유영욱, 이정근, 이학균, 장익만, 정명수, 정인우, 조현보, 최기만, 허휘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 이상일 사진전

8월 14일(금)~10월 31일(토)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박진성 작품전 서커스에 비유해본 도시인의 형상

10월 27일(화)~11월 1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 4번

## Gustav Mahler 4.Symphonie

김 중 옥\_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음악방송제작단장



보헤미아 출신의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말러(1860.7.7~1911.15.18.)는 베토벤(Beethoven), 베버

(Weber), 바그너(Wagner) 그리고 브루크너

(Bruckner)에 이르는 대가들의 감화를 받은 20세기 작곡기법의 선구자로 후기낭만파(19세기 후반)의 음악적 시대를 살고간 위대한 작곡자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창작은 가곡과 교향곡으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로는 절망감이나 염세관을 강하게 나타내며, 때로는 괴기한 해학이나 초연한 탐미(耽美)를 보이기도 했으며, 만년에는 종교적 이라고도 할만큼 고독한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을하늘의 해맑음과 청량한 공기가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정화시켜주듯 따뜻한 가슴과 맑은 영혼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 말러 음악의 또다른 매력입니다.

출장길에 오르면 시간내어 전문 매장(LP Record 점이나 CD매장)을 찾곤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말러 코너로 가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4번을 찾습니다. 말러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 음원이 28장으로, 현재는 LP, LD 그리고 CD 모두 해 19장을 애장(愛藏)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9장은 그동안 자의, 타의(他意)로 소유이전이 된 셈입니다.

듣는 이에 따라 들리는 감성의 각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말러의 교향곡 그 하나하나를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부산에서도 1906년에 작곡된 말러의 제 8번 교향곡, 일명 '천인(千人) 교향곡', 즉 오케스트라 단원과 합창단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교향곡이 연주될 수 있는 연주홀이 생길 것을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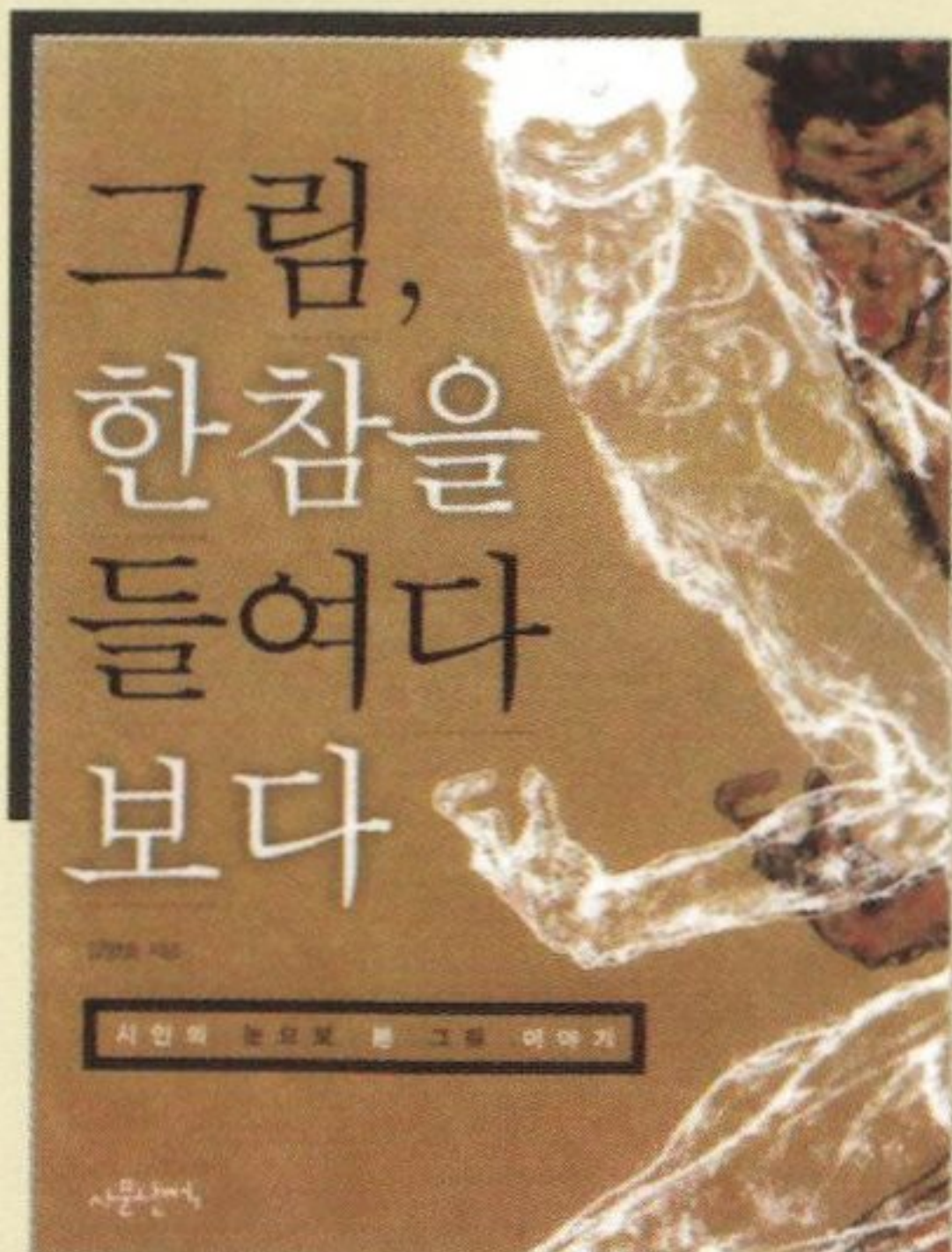
말러의 교향곡 4번은 길이가 짧고 관현악 편성 역시 간소해, 트

롬본과 튜바가 빠진 말러의 유일한 교향곡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특히 4번은 정서적으로 가장 밝고, 간결하고, 경쾌한 곡으로 전체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주 시간은 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짧은 약 60분 정도인데 1900년에 작곡되어 1901년 뮌헨에서 말러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차의 워낭(horse bell) 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교향곡 4번은 말러전문가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말러의 10개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소탈한 곡으로, 처음 접하는 분들께 1번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곡이다. 극적인 장면(?)은 없지만 끈적거리며 척척 달라붙는 듯한 1악장과 천국의 노래가 딸린 4악장이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4 악장에 나오는 노래의 내용이 어머니가 음식을 구하러 나간 사이 굶주림으로 죽어간 소년이 가난, 질병, 굶주림이 없는 천상의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절대적 평온을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말러는 "천상세계는 절대적 평온이 지배한다. 나는 어린이의 눈을 통해 천상의 생활을 표현하고자 했다. 어린아이는 방금 천상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꾸밈없이 들려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전 교향곡에 가까운 작품이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 지휘로 비엔나 필하모니 연주, 스위스 출신의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Edith Mathis)가 노래한 LD(Laser Disk)가 여러 음원 중에서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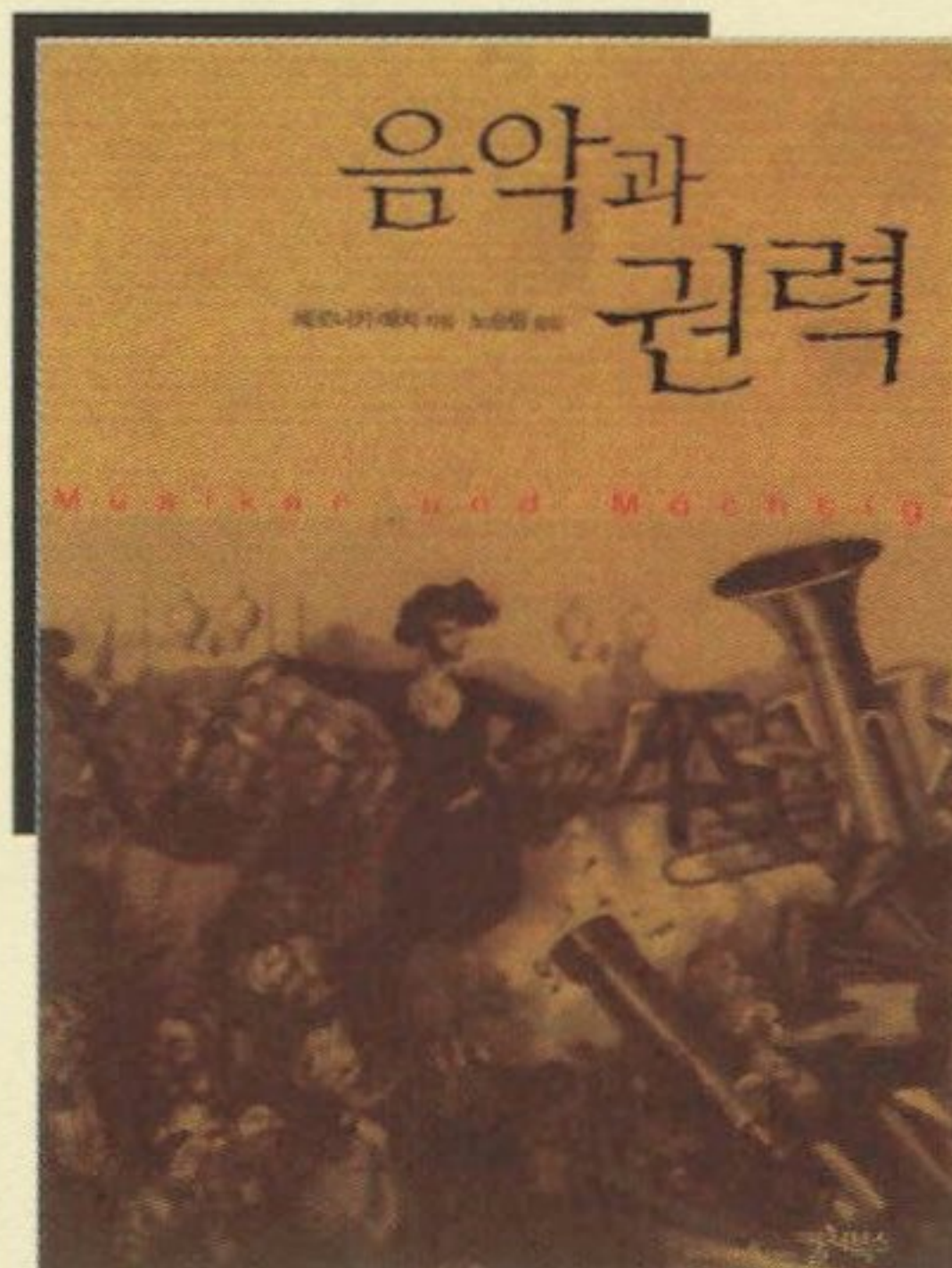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은 1987년 10월 1일, 일본 오사카 Kinokunia, 梅田(Umeda)店에서 구입한 고집쟁이 노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1908~1989, 오스트리아)의 베를린 필과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가 노래한 LP(Long play)판을 추천합니다. 구름낀 하늘에 가랑비라도 내리면 느끼는 감정이 배가(增加)될 말러 교향곡 4번, 가만히 눈감고, 귀로 생각하며, 함께 감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 그림, 한참을 들여다 보다

김형술 지음  
사문난적 / 351p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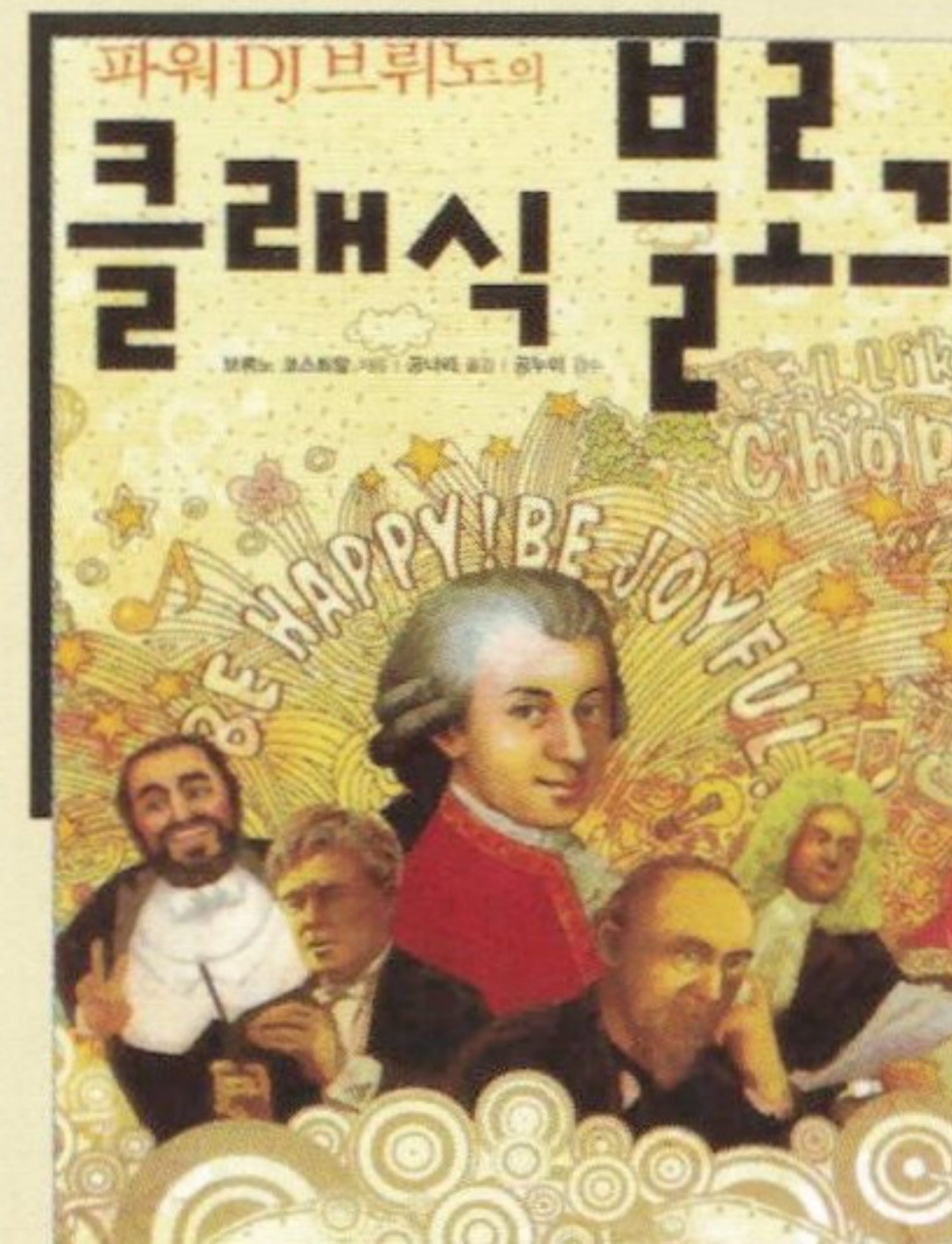
여행을 할 때도 그곳의 화랑이나 미술관을 가장 먼저 찾을 정도로 그림 보는 일을 좋아하는 김형술 시인의 그림에세이. 199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시 외에도 영화와 그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의자와 이야기하는 남자> 등 4권의 시집, <영화 속의 시> <물고기가 온다> 등 2권의 영화 산문집에 이어 이번에는 그림에세이를 묶었다. 부산일보에 연재되는 동안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글들을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화가가 꿈이었다는 시인은 한 점의 그림 앞에 서는 일을 '제 속의 말들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에드워드 호퍼가 1952년 발표한 <아침 해>라는 그림에서 시인은 밤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아침 낮선 곳의 침대에서 눈을 뜨는 한 여인의 시선으로 삶을 조명한다. '사각형의 햇빛'이라고 붙인 그림 속의 여인은 창으로 쏟아 들어오는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이 그림은 시인의 감상으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와 생명을 부여받으며 독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부터 20세기 초현실주의와 팝아트, 설치미술, 사진작가까지 28명의 작가의 작품이 시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 음악과 권력

베로니카 베치 지음, 노승림 옮김  
컬처박스 / 591p / 28,000원

지상의 것이 아닌 듯 아름답고 고귀한 선율로 만들어진 세상, 음악.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음악가는 정치적 갈등이라곤 전혀 모른 채 진실하고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순수하게 음악에만 몰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다고 한다. 그들은 흥망 성쇠를 거둔 역사 속에서 치열하고 처절하며, 때로는 치부를 드러내듯 부끄럽고도 치졸한 사건들과 시시때때로 맞닥뜨려 왔다. 음악학 박사인 이 책의 저자 베로니카 베치는 "음악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은 음악을 이용했다"는 전제 아래, 음악가들의 삶이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점들을 꼬집어 밝히고 있다. 그녀는 음악가들의 대작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각기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의 정권과 어떻게 유착관계를 맺어 왔는지, 혹은 정권에 대항하여 어떠한 활동을 펼쳐 나갔는지 등 때로는 음악 외적 배경이 음악이라는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를 여러 유명 작품을 예로 들어 상세하게 소개한다. 멀게는 최초의 프리랜서 작곡가인 모차르트부터 가까이는 윤이상까지 음악가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기능했는지 속속들이 파헤친 클래식 역사 해설서이다.



## 파워 DJ 브뤼노의 클래식 블로그

브뤼노 코스트말 지음, 공나리 옮김, 공누이 감수  
살림Friends / 253p / 9,800원

프랑스의 유명한 대중음악평론가 브뤼노 코스트말이 최신 유행가보다 더 신나게 클래식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클래식 음악은 고상하며, 뭔가 잔뜩 공부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클래식 음악은 오늘날의 대중음악과 마찬가지로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즐기던 음악이었다. TV도 오디오도 MP3도 없던 시절에 클래식은 열광과 환희의 대상이 되어 준 예술이자 오락이었다. 그러니 그것을 듣기 위해 음악사를 공부하거나 음악가의 작곡 기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었다. 당대의 인기 만점 클래식 음악가들은 오늘날의 예능 스타같은 존재였다. 클래식 음악은 즐겁고, 어렵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데에는 클래식 음악을 진지하고 엄숙하게만 듣는 '나쁜 버릇' 탓이 크고, 그것이 무슨 상식인 것처럼 강요해온 분위기가 탓이다. 이제 짜릿하고 신나는 클래식을 엄숙하게 듣고 있는 잘못을 그만할 때가 되었다.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클래식 음악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짜릿한 음악인지를 제대로 느껴보자. 익숙한 클래식 음악까지도 신선한 기분으로 듣게 하는 탁월한 클래식 음악 안내서가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 부산시립무용단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2009 Cross Cultural Festival 참가

10월 17일~18일 수라바야시 야외극장, 수라바야시립극장 등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시와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서 열리는 '2009 Cross Cultural Festival'에 초청되어 오는 10월 17일과 1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야외극장, 수라바야시립극장 등에서 우리 춤사위를 펼친다. 매년 7월초 수라바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Cross Cultural Festival'은 인도네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제 문화행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15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7개국 20여개 공연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은 16일 수라바야시립극장에서 한인 교민, 주재원, 수라바야시 기관장, 현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시작으로, 17일 교민 학생들을 위한 강습과 공연, 18일 Cross Cultural Festival의 메인 공연인 수라바야 시청 앞 특설무대에서 천하태평지무, 백두대간을 펼친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포항공과대학교 초청공연

10월 29일(목) 오후 7:30 포항공과대학교 대강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포항공과대학교 초청으로 포항공과대학교 목요 문화행사 무대에 선다. 포항공과대학교 목요 문화행사는 매주 목요일 포항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마련되는 수준높은 지역 문화행사이다. 이번 초청공연에서는 악장 유경조의 지휘와 윤해승(해금), 박성희(국악가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전학수, 이주현, 신문범, 최오성) 협연으로 국악관현악 '축제' (이준호 곡), 국악현악 '화랑' (백규진 곡), 해금협주곡 '세상풍경' (이경섭 곡), 국악관현악 '방황' (이경섭 곡),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배 띄워라',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박범훈 곡) 등 우리전통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일정

신종플루 확산으로 부산지역의 축제와 일부 공연들이 취소되면서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횟수도 다소 줄었다.

### ■ 9월 일정

- 10.12(월) 11:30 부산시민회관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노인의 날 축하공연' (출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10.14(수) 12:30 시청로비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출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10.20(화) 19:00 영도문화회관 개관축하공연 I (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 10.23(금) 19:00 영도문화회관 개관축하공연 II (출연/부산시립무용단)
- 10.28(수) 12:30 시청로비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출연/부산시립무용단)

# 의병의 얼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의령

무더위도 한풀 꺾인 9월 둘째주 금요일, 테마여행 당점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9월 테마여행지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이 일어났던 역사와 문화의 고장 의령. 특히 부산시립극단의 젊은 단원들이 동행하면서 테마여행에 대한 기대를 한껏 더 높였다.

의령관문을 통과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관광해설사 정종규씨가 반갑게 정기회원 가족들을 맞는다. 정종규 씨의 인솔로 처음 도착한 곳은 정암진. 의령과 함안 사이를 흐르는 남강의 도선장이었던 정암진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령 출신의 의병장 곽재우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승첩지이기도 하다. 지금은 남강을 가로지르는 정암다리과 전망루인 정암루가 세워져 있다. 정암다리에서 내려다보는 남강 물 속에는 솥(鼎)모양을 닮았다 하여 솥바위라 불리는 정암(鼎岩)이 자리하고 있다.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에 큰 부자 3명이 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삼성그룹 창업주故 이병철 씨와 LG그룹 구인회 회장, 효성그룹 조흥제 회장의 생가가 솥바위 주변으로 둥글게 모여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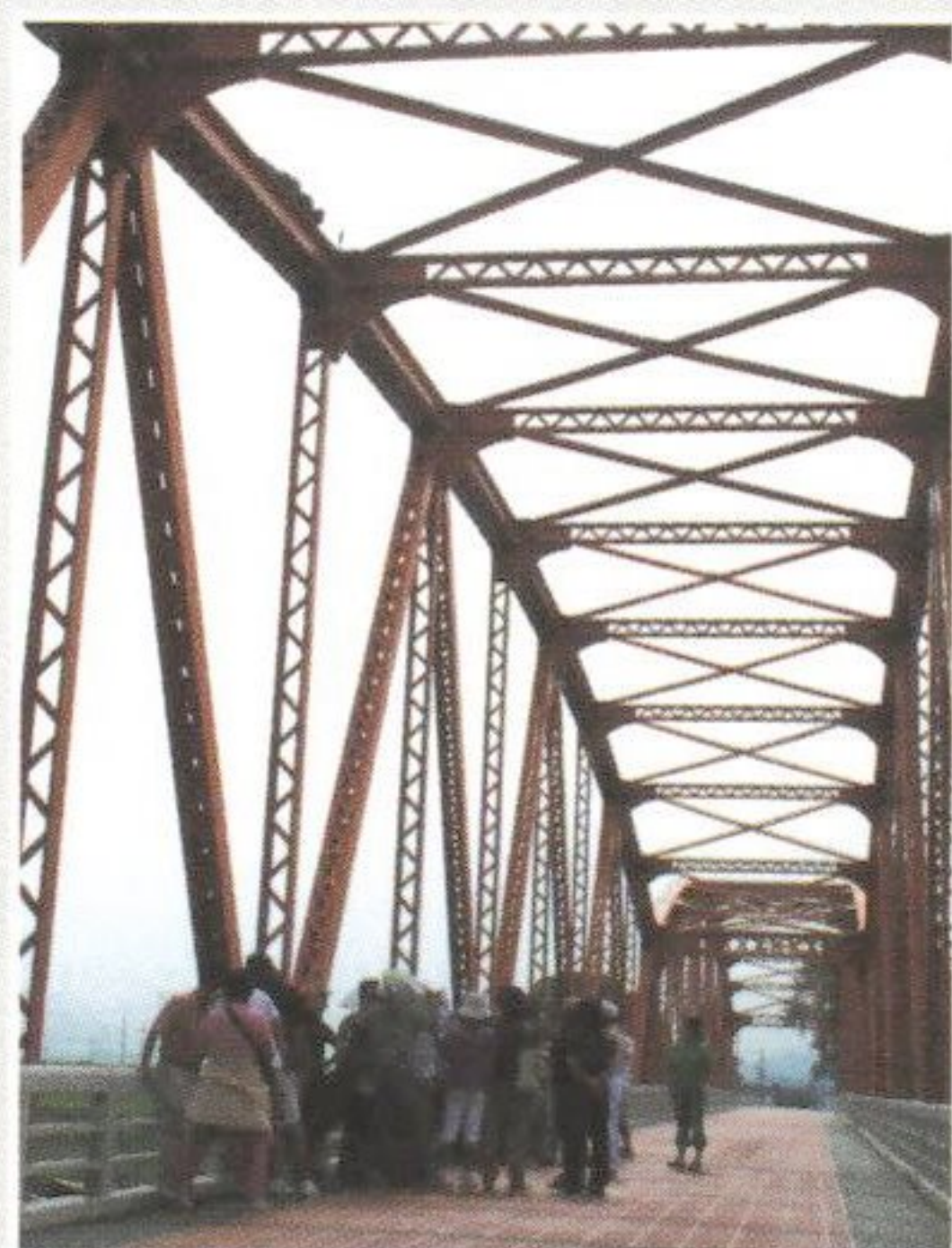
정암다리에 서서 남강을 내려다보며 솥바위에 얽힌 재미나는 일화를 듣고난 정기회원들은 다음 답사지인 곽재우 장군 생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서 출생한 곽재우 장군은 과거에 급제했으나 왕의 시정을 비판하는 논지로 뒤늦게 자리에서 물러나 초야에서 지냈다.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왜병이 침입하여 서울로 향하자 ‘나라를 지키는 일을 관군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4월 2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병의 침공을 막았다. 곽재우 장군은 17명의 장수와 수천의 의병을 거느리고 기강, 정암진, 현풍, 창녕, 영산, 진주성, 화왕산성 등지의 전투에서 백전백승했다.

지난 2005년 복원된 곽재우 장군 생가는 조선 초기 건축양식으로 안채와 사랑채, 별당, 문간채, 곳간 등 7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복원된 곽재우 생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모으고 훈련시키기 위해 큰 북을 매달았던 수령 500년의 큰 느티나무(세간리 현고수) 한 그루가 서있다.

곽재우 생가를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인근에 자리한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생가로 자리를 옮겼다. 호암 생가는 1851년故 이병철 회장의 조부가 손수 지은 전통 한옥으로, 그동안 몇 차례의 증, 개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단장됐다고 한다.

다음 답사지는 곽재우 장군과 그 휘하 17장령(將令)과 무명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충익사. 충익사는 1972년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의병탑과 충의문, 사당, 충의각, 홍의문, 기념관 등이 들







어서 있다. 조선후기 건립된 충의각은 곽재우 장군과 17장령의 명판(名板)을 모신 정각으로,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상여 모양을 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곽재우 장군의 전적도 5폭과 보물로 지정된 장검, 마구, 돌벼루 등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기념관 중앙의 곽재우 장군 기마도는 서있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 말의 머리가 움직이는 신기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정기회원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충익사 방문을 끝으로 오전 일정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충익사 맞은편 의령시장에서 의령 고유의 향토음식인 의령소바(메밀국수)로 허기진 배를 달랬다.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의령시장을 돌며 의령의 특산물인 망개떡도 맛보는 등 모처럼 시골장구경에 신이 났다.

오후 첫 일정인 부산시립예술단원과의 만남은 충익사 충현정에서 펼쳐졌다. 의령천 구름다리를 건너 충현정으로 자리를 옮긴 정기회원들은 부산시립극단 비상임단원 허철녕, 김상균, 라세흠 씨의 천연덕스러운 장타령에 연신 웃음을 쏟아냈다.

다음 공연장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서둘러 도착한 곳은 9월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뗏목탐사가 시작되는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장박교 아래 남강변. 뗏목탐사는 의병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남강을 따라 뗏목을 타고 내려가며 의병전적지를 돌아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직접 노를 저어서 내려가야 하는 색다른 체험에 회원들의 기대가 컸다. 4조로 나뉘어 뗏목탐사에 나선 회원들은 저마다 구호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한시간 가량 뗏목을 저어 내려왔다. 원래는 임진왜란 승첩지인 정암진까지 노를 저어 가야하나 시간관계상 중간지점인 와룡정에서 하선했다.

뗏목 탐사로 그 어느때보다 몸은 피곤했지만 나라의 안녕을 위해 결연히 일어섰던 곽재우장군과 의병들의 충의는 정기회원가족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글, 사진/정복엽)

■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편

2009년 11월에는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함안으로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10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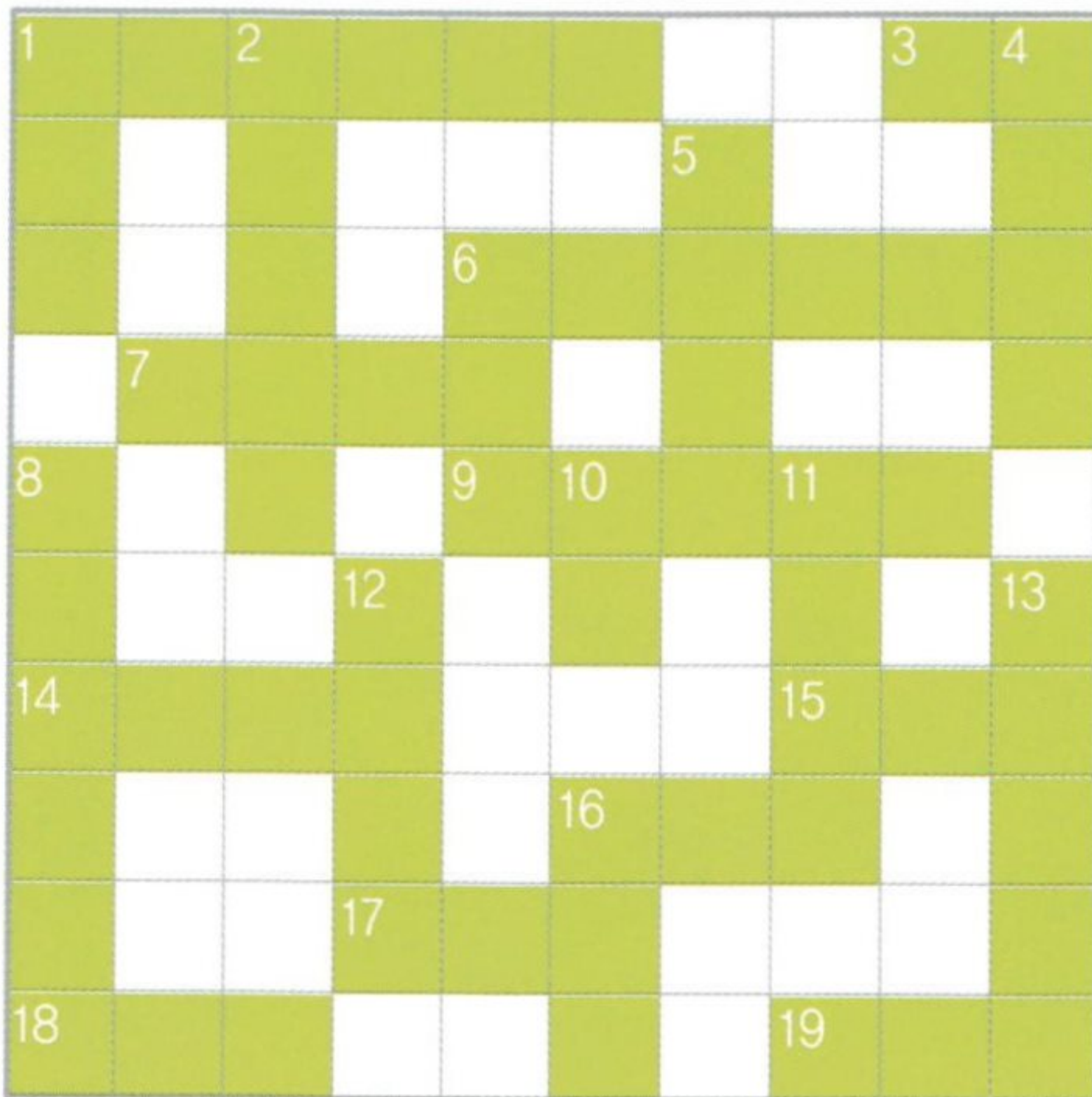
## 10월 테마여행 당첨자

### 엽서당첨자

강승희(금정구 부곡4동)  
김영란(연제구 연산9동)  
양지원(남구 대연3동)  
이규(남구 용호1동)  
이근희(해운대구 반여1동)  
이심순(남구 대연4동)  
제수부(해운대구 좌동)  
최상윤(동구 범일동)  
황광주(수영구 망미1동)  
홍정남(연제구 연산5동)

### 신규가입자

강호연(남구 용당동)  
김송지(부산진구 부전동)  
민춘호(부산진구 양정2동)  
서동수(남구 용호2동)  
신필녀(남구 용호1동)  
안정숙(중구 영주2동)  
이은미(남구 용호1동)  
조은숙(사하구 구평동)  
최명희(사상구 학장동)  
홍성호(남구 용호동)



가로

- 올해로 한국대륙 10주년을 맞는 일본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문신의 영어식 표기.
-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사일록에게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저당잡힌 안토니오를 법률가로 변장한 포사가 기지를 발휘하여 그를 구한다는 내용의 셰익스피어 희곡.
- 데뷔작 '개미'를 비롯 '뇌' '나무' '신' 등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소설가. 곧 출간될 차기작에서는 남자 주인공으로 한국인 '김예빈'을 등장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인 디즈니가 1955년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설립한 어린이 놀이터. 세계 최고

수준의 유원지로 각광받고 있다.

-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등장하는 햄릿의 연인.
- 제주도 남제주군에 속하는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다. 네덜란드의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한 예술 양식. 본래는 극적인 공간 표현, 축선(軸線)의 강조, 풍부한 장식 따위를 특색으로 하는 건축을 이르던 말로, 격심한 정서 표현을 가진 동시대의 미술, 문학, 음악의 경향까지 이른다.
- 가정폭력이라는 현실의 날 선 이야기를 강하고 힘 있는 드라마로 풀어낸 양익준 감독의 영화. 올해 춘사대상영화제와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도빌아시아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 다수 영화제에서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 1950년대 후반에 해성처럼 나타났던 로큰롤 가수 리치 바렌스를 모델로 한 루이스 발데즈 감독, 루다이아몬드 필립스 주연의 영화.
- 영국 출신의 젊은 미망인과 태국 왕과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영화로, 애니메이션,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사랑았다.

세로

- 1996년 당시로는 파격적인 전기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며 국내에 해성같이 등장해 열정적인 무대매너와 다이내믹한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최근 소속사로부터 폭행, 감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 근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독일의 인쇄술 창시자.
- 영국의 작가 H.G. 웰스의 대표적 SF소설. 인간의 투명을 원하는 소망을 리얼하게 묘사한 SF적 착상의 기발함도 놀랄만 하지만 소외된 인간의 고독을 그렸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도 높게 평가된다.
-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최대의 신사.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매년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나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비난을 사고 있다.
-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대표작으로 오페라 '리골레토' '아이다' '춘희' 등이 있다.
-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왕. 카이사르의 원조로 잃었던 왕위를 회복했으나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자 자살했다.
- 천(千)의 우리말.
-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데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으로, 남산타워나 역사성이 있는 서울 남대문 등이 해당된다.
- 권정생의 단편동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것도 알고 보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어린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대륙부의 총칭. 일반적으로 옛 프랑스령 식민지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가리킨다.
- 테너와 베이스의 중간 목소리. 베이스의 깊이와 차분함, 테너의 화려함을 함께 지녀 남성 목소리를 상징하는 소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 난 호 정 답

이	한	철	미	샤	마	이	스	키
중	아	이	델					
초	록	물	고	기	클	렌	트	
식	라	책	팻					
남	대	문	에	디	슨	상		
학	고	비	송	도				
첼	로	타	지	마	할	종		
해	금	카	송	환				
영	운	징	오	르	골			
노	랑	대	첩	본	매	화		

■ 큰집

- 남하윤(서구 서대신동 3가)
- 박유진(해운대구 반송3동)
- 신주용(북구 화명동)
- 유영애(서구 암남동)
- 장봉태(동구 범일동)

■ 공간 소극장

- 송선미(수영구 광안동)
- 이영미(남구 대연5동)
- 전민정(수영구 수영동)
- 정상윤(금정구 부곡동)
- 조영선(연제구 연산2동)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남미정(남구 대연3동)
- 성정우(연제구 연산5동)
- 이진규(금정구 부곡동)
- 박선영(남구 대연3동)
- 박영국(부산진구 연지동)

■ 나랏소

- 배은숙(수영구 망미동)
-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 이상윤(해운대구 반송동)
- 이심순(남구 대연4동)
- 장미정(양산시 중부동)

퍼즐당첨자 명단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최고급 부산맛을 곁들입니다

# 나랏소

만우 숯불구이 골방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한낮의 유 콘서트

유머를 가미한 담백한 지휘자의 설명과 파워풀한 남성 보이스로 면역력 100배 증강!! 무엇보다도 이 세상 최고의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임을 각인시켜준 한낮의 유쾌한 경험이었다.

- 박중국(남구 대연3동)

###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단원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악장의 지휘에 따라 오보에 A음을 기준으로 각자의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감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악장이 들어오기 전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악기 상태를 점검하는 소란스러움에 눈살이 찌푸려지곤 했습니다. 아마추어나 프로를 가리지 않고 악기 상태 점검은 대기실에서 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임에도 그런 소란없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를 시작하는 게 산뜻하고 기특하더군요. 무력무력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같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잔치였다 생각하니 부산지역 음악의 밝은 내일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고 뿌듯한 연주회였습니다.

- 강희범(부산진구 범천4동)

###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시대인 1970년대 feel의 음악과 분위기, 와우~ 무척 흥미로우면서도 새로운 분위기로 와닿았다. 한번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실수! 공연을 보고난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항상 내옆에 있어주는 엄마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쾌하고 감동이 있는 뮤지컬이라고 말하고 싶다.

- 김현주(부산진구 부암1동)

###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의성어와 의태어만으로 공연을 한다. 신기하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갔다. 익숙한 인터넷 용어들...웃기는 웃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기대를 많이한 탓인지 조금 실망이었다. 내용은 단순한데 영~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새로운 시도는 훌륭했으나, 뭔가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었다.

- 석상훈(부산진구 부암1동)

### 창작뮤지컬 '빨래'

빨래를 하며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린다는 나영이의 빨래철학(?)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빨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게 있어 빨래란, 그저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었거든요... 앞으로 저도 힘들 때 큰 대야에 빨래를 밀어 넣고 발로 막 밟아보려구요. '슬플땐 빨래를 해' ost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말이죠.

- 광지영(북구 덕천3동)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최고급 한우만을 고집합니다  
**나랏소** 한우  
한우 숯불구이 곱창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mailto: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할인율** · 기획공연 5~30% · 시립예술단공연 5~20%
- 좌석선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할인횟수** · 제한없음
- 가입신청**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 가입비 납부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탈퇴** -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혜택**
  -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우송, 조기예매 기회제공, 문화강좌할인, 테마여행
  -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발행 등



Friday 8:00 pm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도시적 삶의 코드 우리들만의 이지르가 생긴다.

# 하늘이네 그 콘서트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우리만의 흥미진진한 라이브쇼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는 도시남녀들과 인생의 터닝포인트 앞에 선 그들의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노리플라이 10.16(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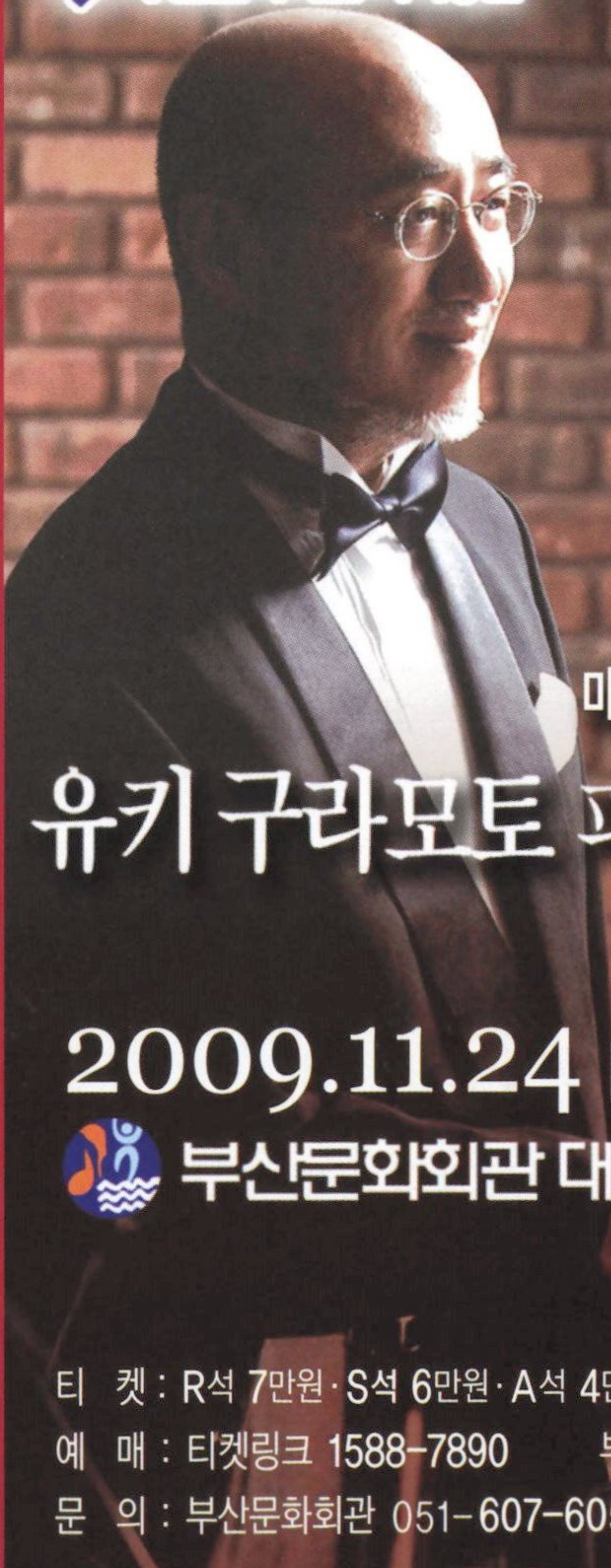
심현보 11.13(금)



이지형 12.11(금)

티켓 | 균일 30,000원

일시 | 2009. 9. 11(금) ~ 2010. 8. 13(금)  
장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출연  
유키 구라모토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매회 전석 매진의 신화

## 유키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2009.11.24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7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 B석 3만원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피아니스트 핁킨 콜린

## 첼로 장한나 초청 독주회

2009.12.3 | 목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7

예매를 서두르시면 좌석이 앞섭니다! Reserve Early for the Best Seats!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행비 **5%** 할인받으세요!!

본 혜택은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중소기업청지원  
재래시장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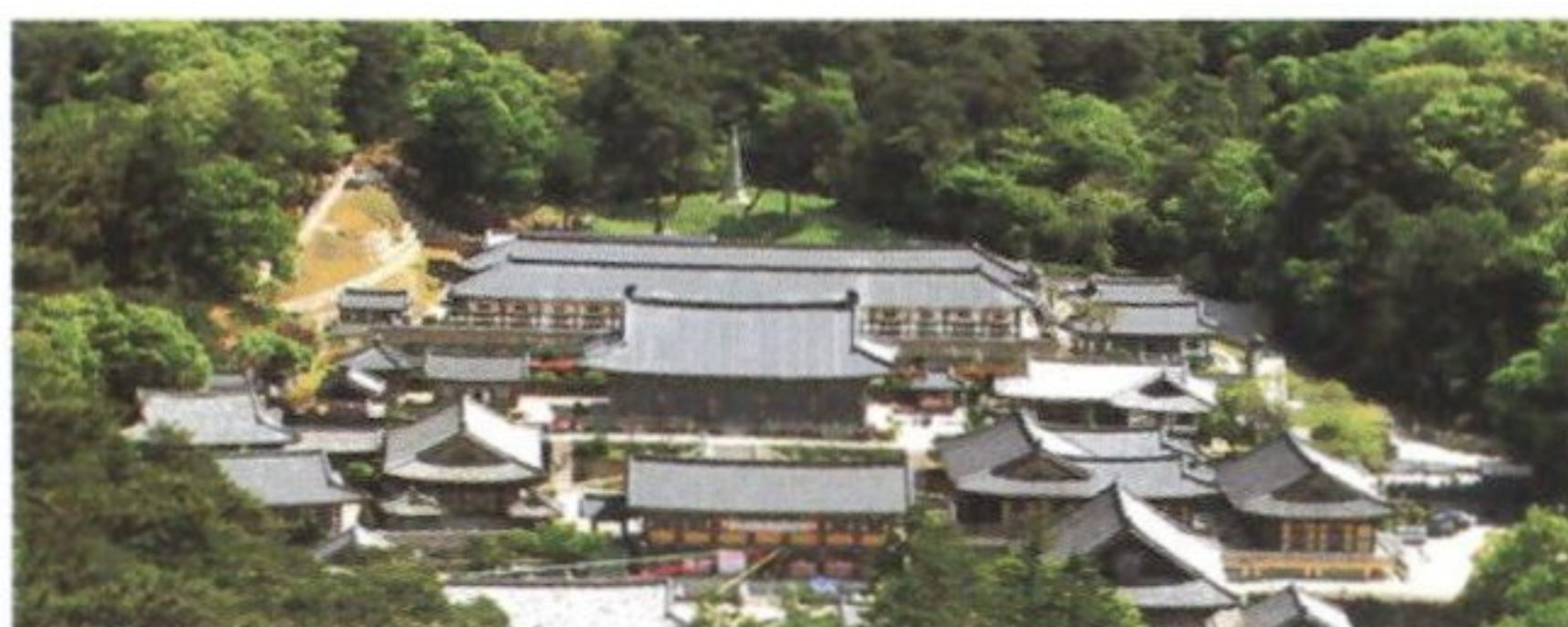
전통재래시장 장보기와  
여행을 동시에!



영설공설시장  
주실마을(조지훈생가) + 청량산

AKFK38

14,000원



거창시장  
합천해인사 + 거창박물관

AKFK39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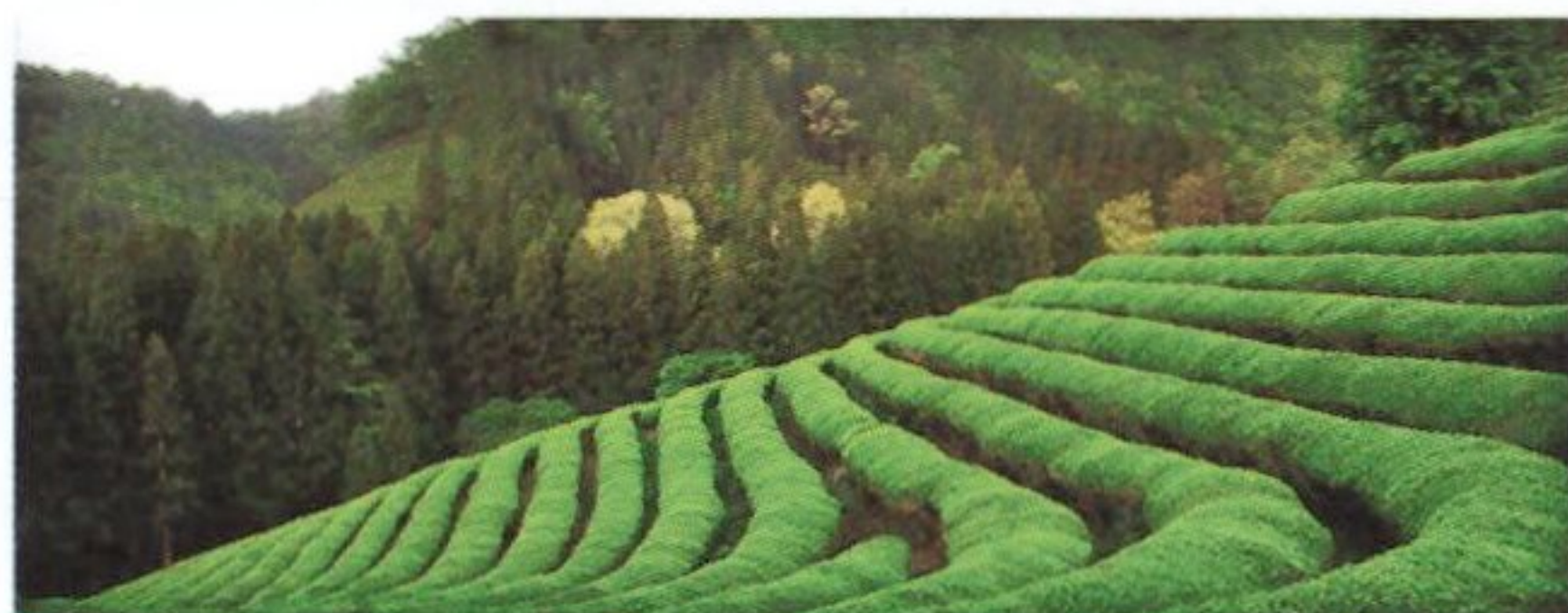
구례5일장  
구례 화엄사 + 지리산 노고단

AKFK33

14,000원

자연의美  
한국의섬

아름다운  
한국의 섬 여행



부산출발  
보길도/해남/두륜산/보성녹차밭

AKFK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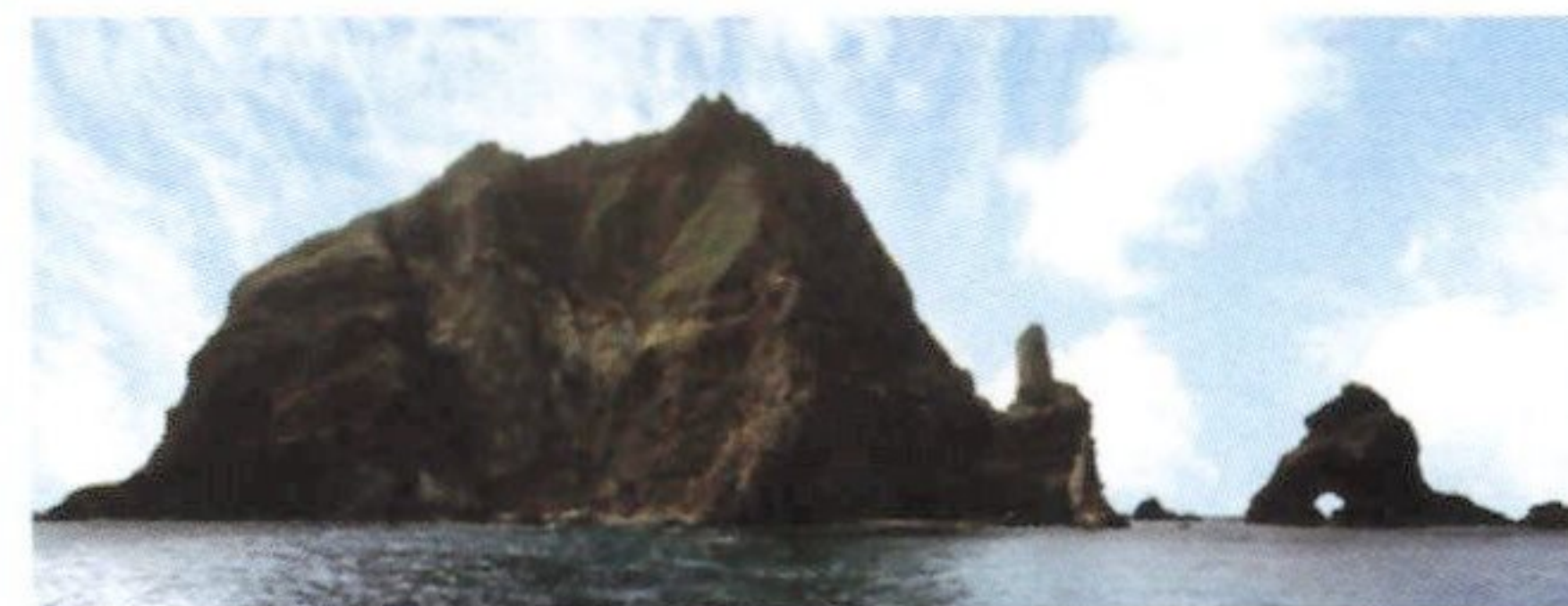
120,000원~



부산출발  
천년의 신비 홍도/흑산도

AKFK01

220,000원~



부산/포항 셔틀포함  
울릉도/독도

AKFK00

250,000원~

가을  
온천여행

세계 각지의  
온천 체험 여행



부산출발  
코비 북큐슈 온천여행 2일

JKP720

279,000원~



부산출발  
취온천/황산/상해 5일

CCP755MUT

369,000원~



9월 단4회! VISA포함, 춘취원 지정호텔  
북경 온천여행 4일

CNP751KE0

529,000원~

특가大행진  
3총사

특가 상품으로  
저렴하고 알차게



부산출발  
상해/소주/항주

CCP753

299,000원~



명산투어  
상해/황산/항주 5일

CCP755

369,000원~



SI 청정지역  
사이판 일급<리베라>

PSP708

699,000원~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0월 10일(토) 오후 4:00 소극장  
부산가야금연주단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인 30명으로 구성된 부산가야금연주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악기인 가야금을 통하여 전통 음악과 창작 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순수 민간 연주단체이다.

▣ 프로그램

- 가야금 3중주/응혜애(연주/정미경, 김은별, 최승혜)
- 성금련류/가야금2중주(편곡/지성자 · 연주/부산가야금연주단)
- 가야금 3중주/오봉산타령(작곡/함현성 · 연주/곽우령, 김두경, 신고은)
- 25현가야금 4중주/La Comparsita(편곡/곽재영 · 연주/최주실, 이남연, 김단비, 문영주, 이주연)
- 25현 가야금/현향신화(작곡/지원석 · 연주/부산가야금연주단)
- 영화음악 메들리/인연, 라밤바(편곡/백규진 · 연주/부산가야금연주단)
- 장구/임채형      · 신디/김병섭      · 드럼/이상진

10월 17일(토) 오후 4:00 소극장  
카피 밴드 시너지

자유롭고 깔끔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연주곡 카피 밴드 시너지(Synergy)의 무대.

▣ 프로그램

- 봄여름가을겨울/거리의 악사, 못다한 내 마음을
- Avenue Blue/Tumblin
- 손무현/시행착오
- Robben Ford/The Brother 등 수곡

10월 24일(토) 오후 4:00 소극장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의 국악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 기악, 가야금병창, 창악, 창극, 무용, 시조, 경기민요, 풍물분과 등 8개 분과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의 무대.



▣ 프로그램

- 무용/부채춤(출연/신영지, 김미정, 김경미, 정혜정)
- 가야금 병창/새타령(출연/강명옥, 이태영, 하정희, 김지혜, 김지영)
- 토막창극/춘향전 중 '춘향모와 이도령 상봉대목'(출연/김정애, 조정례, 신수방)
-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춘향전' 중 춘향을 옥중에 보내고 춘향을 살려달라 천지신명께 비는 춘향모 월매와 걸인행색을 하고 나타난 어사 이도령의 상봉대목을 해학과 진한 익살로 표현한 무대.
- ※음악반주(대금/송재운 · 장구/김영애)
- ※해설/장준영

10월 31일(토) 오후 4:00 소극장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우리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국악의 보편화·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국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무대.



▣ 프로그램

- 판소리/입체창 '춘향가' 중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별하는 대목(출연/신지영)
- 아쟁노리/출연/최영훈, 채민성, 강지현, 이푸른, 권민지
- 산조춤/철현금과 아쟁산조 합주곡(출연/김민선, 설숙희, 심복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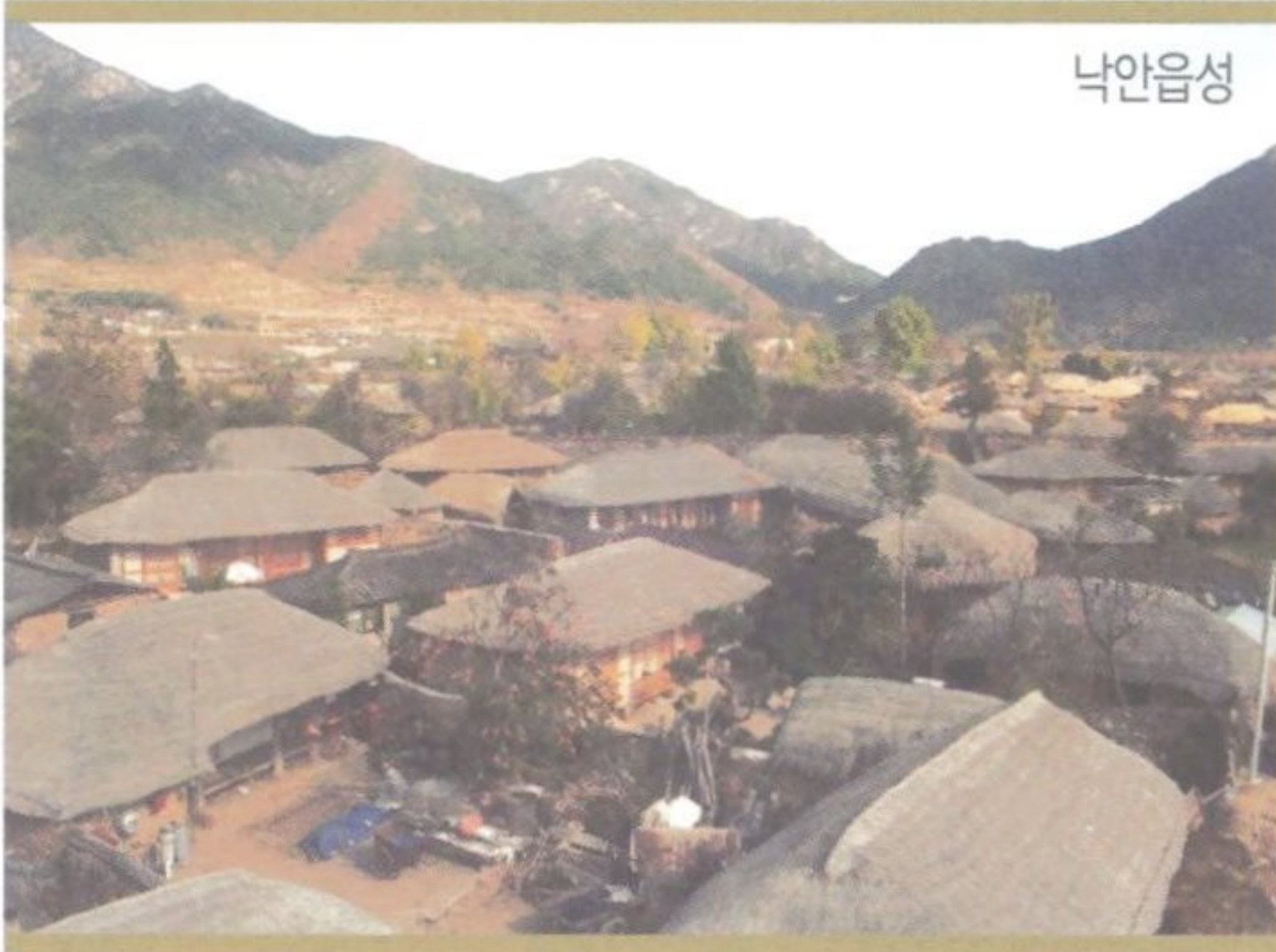


고려동

## ▶ 2009년 11월 13일(금) 함안 아라가야 역사기행

가야의 맹주국으로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함안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함안의 주요 유적지답사, 가을빛으로 물든 여산팔경마을 농촌 체험으로 가을을 만끽해 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함안 도착, 고려동유적지, 대산리 석불, 무진정 등 답사
- ▷ 12:30 여산팔경마을 도착, 점심식사
- ▷ 13:30 여산팔경마을 탐방, 농촌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낙안읍성

## ▶ 2009년 12월 11일(금) 시간이 멈춰 버린 곳-순천 낙안읍성, 순천만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을 시작으로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선정된 아름다운 순천만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를 비롯한 200여종의 조류들의 보금자리, 순천만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 ▷ 07: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순천 낙안읍성 도착, 답사
- ▷ 12:00 점심식사
- ▷ 13:00 순천생태공원 생태 탐방
- ▷ 16: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전화번호 안내

###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10  
사무실 607-3111  
연습실 607-3116  
악보실 607-3117

###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실 607-3120  
사무실 607-3121  
연습실 607-3126  
악장실 607-3127  
사물놀이실 607-3128

### 시립무용단

안무자실 607-3130  
사무실 607-3131  
연습실 607-3136  
소품실 607-3137

### 시립합창단

지휘자실 607-3140  
사무실 607-3141  
연습실 607-3146

### 시립극단

연출자실 607-3150  
사무실 607-3151  
연습실 607-3156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실 607-3160  
사무실 607-3161  
연습실 607-3166

###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70  
사무실 607-3171

### 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607-3100  
FAX 607-3109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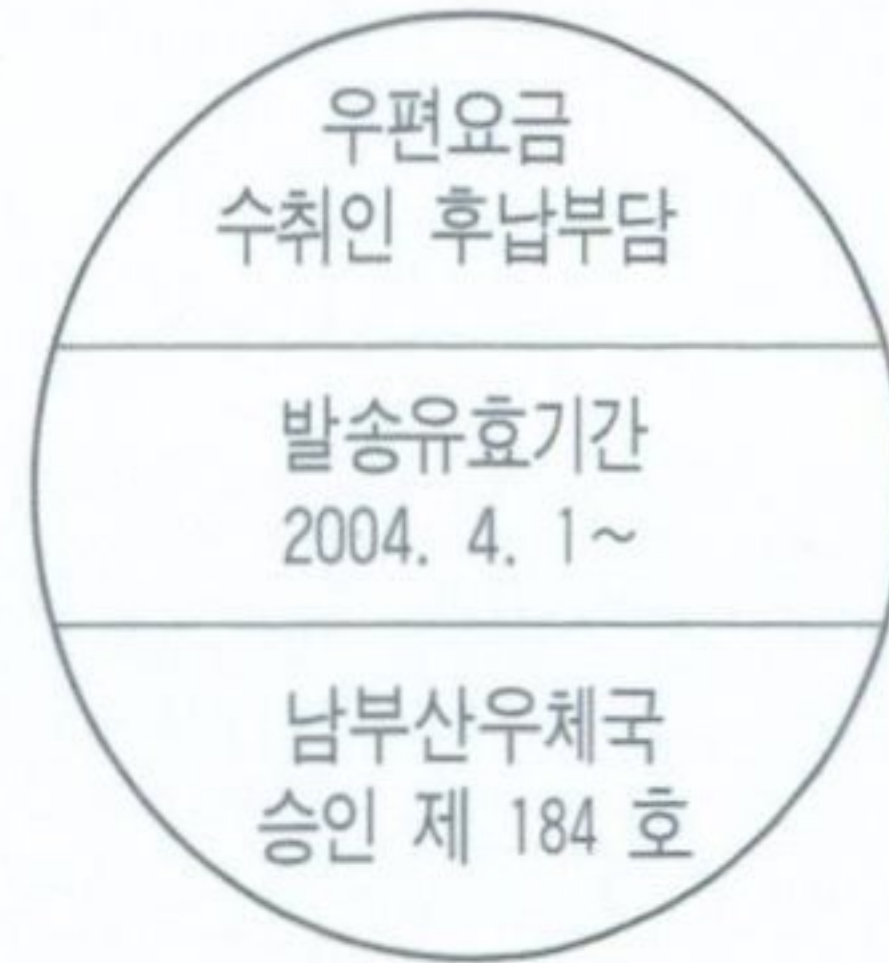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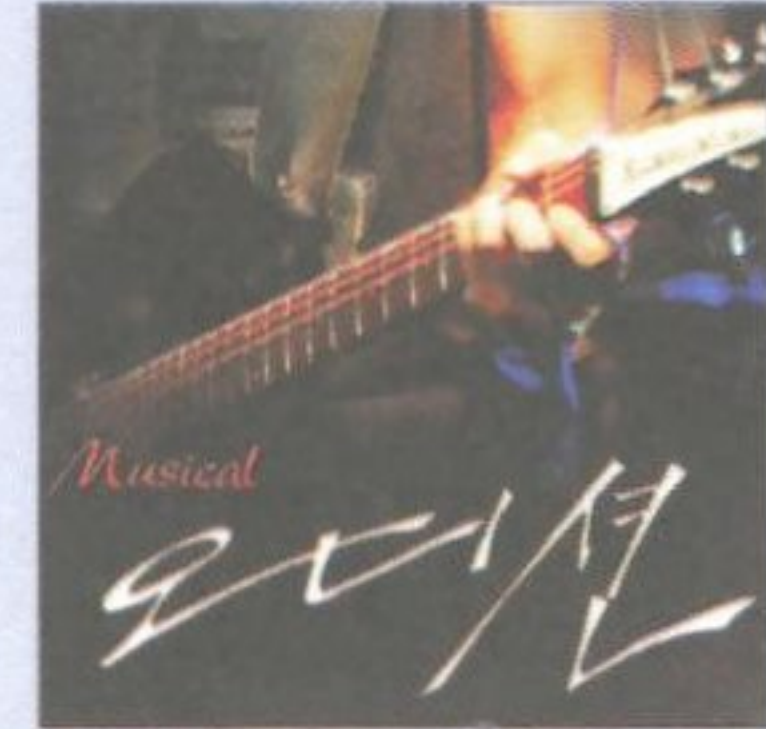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오디션

10% 할인



2009. 10. 7(금)~11. 8(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4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810-7000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50,000원(R석) / 40,000원(S석)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회 전 석 매진의 신화 유키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Romance

2009.11.24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예 매 :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부산 시립극단 제 36회 정기공연

# 변신

## - 꿈의 기록

원 안 \_ 카프카의 <변신>  
재구성·작 \_ 이윤택  
연 출 \_ 구현철

안 무 \_ 강희정 / 음악감독 \_ 이세호 / 무대미술 \_ 백철호 / 조명디자인 \_ 김범기 / 의 상 \_ 황성원  
사 진 \_ 김도웅 / 영 상 \_ 장희철 / 오브제 \_ 하현관 / 노래지도 \_ 추현철 / 조연출 \_ 백상희

10. 30(금) >> 11. 1(일) 평일 19:30, 토.일요일 1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최 \_ 부산광역시 / 주 관 \_ 부산문화회관 / 공연문의 \_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극단 607- 3151 www.bsculture.busan.kr

예매처 \_ BS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티켓링크 / 입장권 \_ 균일 15,000원

# 내 첫 번째 경력은 동명대학교입니다



콧대높은 방송국의 까다로운 관문을  
영상 공모전, 대학생 명예기자 등  
동명에서 준비한 실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검증된 스펙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곳,  
내 첫 번째 경력은 동명대학교입니다.

## 동명대학교 2010학년도 수시2차 모집일정

- ▶ 원서접수 : [www.tu.ac.kr](http://www.tu.ac.kr)  
2009.11.23.(월)~11.27.(금)
- ▶ 문의처 : 051)629-1111

신문방송학과 97학번 **현기택**  
MBC 보도국 영상취재 2팀 / 카메라 기자